

발간등록번호

11-1620067-000253-01

인권 친화적 교과서 집필기준 모색을 위한 워크숍 : 모니터단이 바라본 교과서

- 일시 : 2009. 10. 7. (수) 오후 3시 30분 ~ 오후 6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

국가인권위원회



EM029143

워크숍 일정

※ 좌장: 김철홍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장

구분	시 간	주요내용	발제 및 토론자
1부	15:30 ~ 15:35	개최 및 교과서 모니터링 활동경과보고	
	15:35 ~ 15:50	반차별적 관점으로 바라본 교과서	이 선 영 (서울가곡초등학교 교사)
	15:50 ~ 16:05	사회적 및 소수자 관점으로 바라본 교과서	정 영 찬 (인천안산초등학교 교사)
	16:05 ~ 16:20	사회적 갈등에 관한 교과서 집필기준	신 홍 철 (이천고등학교 교사)
	16:20 ~ 16:35	인권적, 국제적 관점으로 바라본 교과서	노 의 환 (대평고등학교 교사)
	16:35 ~ 16:50	청소년 입장에서 바라본 교과서	김 형 준 (다산학교 1학년)
	16:50 ~ 17:00	휴식	
2부	17:00 ~ 17:15	인권 친화적 집필기준	이 은 주 (양서중학교 교사)
	17:15 ~ 17:25	인권적 관점에서의 교과서 집필기준	허 중 렬 (서울교대 사회과 교수)
	17:25 ~ 17:55	종합토론	전 체
	17:55 ~ 18:00	정리 및 마무리	

C ONTENTS ...



인권 친화적 교과서 집필기준 모색을 위한 워크숍

인사말	i
국가인권위원회 제1기 교과서 모니터단	iii
반차별적 관점으로 바라본 교과서	1
이 선 영 (서울가곡초등학교 교사)	
사회적 및 소수자 관점으로 바라본 교과서	17
정 영 찬 (인천안산초등학교 교사)	
사회적 갈등에 관한 교과서 집필기준	39
신 흥 철 (이천고등학교 교사)	
인권적, 국제적 관점으로 바라본 교과서	51
노 의 환 (대평고등학교 교사)	
청소년 입장에서 바라본 교과서	71
김 형 준 (다산학교 학생)	
인권 친화적 집필기준	81
이 은 주 (양서중학교 교사)	
부록 : 교과서 모니터링 사례집	
- 비추천 사례	95
- 추 천 사례	201

인 사 말

교과서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험을 위해 암송해야 하는 대상이기에 결코 좋아할 수 없는 책이지만, 대한민국 안의 학생이라면 늘 가까이 하게 되기에 학령기에는 최고의 다독서(多讀書), 정독서(精讀書)임에 틀림없습니다.

다독·정독서인 만큼 교과서의 내용과 서술방식은 우리 사고와 태도,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학령기의 교육은 우리의 의식 뿐 아니라 무의식에 자리 잡기 때문에 학령기를 훌쩍 지나도 지워지지 않기도 합니다.

교과서 안에 인권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과서의 중요성은 입시 현실 속에 교과서를 달달 외워야 하는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공통적으로 인식되어왔습니다. 유엔에서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제1차 시기(2005~2009)에 초·중등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강화할 것과 인권 친화적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마련할 것을 권고해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과서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교과서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해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 6월 13일 전국의 중·고등학생 50명, 교사 34명을 교과서 모니터단으로 위촉했으며, 약4개월간에 걸쳐 교과서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교과서 모니터단은 우선적으로 현행 교과서 안의 삽화, 내용, 서술방식을 인권적 기준에 근거하여 모니터링 했으며, 이것을 비추천, 추천 사례로 발굴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발굴된 비추천 사례는 크게 (1) 성·인종에 있어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사례 (2)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감수성이 부족한 사례 (3) 사회적 갈등에 있어 중립적이거나 공정하지 못한 사례 (4) 국제적·인권적 관점이 고려되지 않은 사례, 그리고 (5) 청소년 문화를 평가절하 하는 사례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교과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고 하면, 수량화와 계량화된 데이터가 요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과서 모니터링의 첫째 목적은 교과서 내용이 얼마나 차별적인가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인권 친화적인 교과서 집필기준에 대한 인식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 있기에 발굴된 사례들을 수량화하거나 계량화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예측되는 반응으로 ‘뭘 이렇게 사소한 부분까지...’ 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고, 성숙되어감에 따라 인권은 이제 거대담론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해 소소한 것에서 느낄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권은 역시 거대하고 추상적 개념에 그쳐 나와는 멀리 있다고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오늘 개최하게 되는 워크숍은 일차적으로 다섯 가지 분류를 기준으로 현재의 교과서를 진단해보고, 그 기준들의 올바른 방향을 함께 모색해보는 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그 기준들이 교과서 집필진과 관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인권 친화적 교과서와 교육환경의 초석이 되기 위함입니다.

2009년에는 주로 교과서 내 비추천 사례들이 중심이 되었지만, 교과서 개편이 되는 과정에서 추천사례들이 더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며, 우리 정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7~2011)을 통해 인권 친화적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대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미래형 교육과정까지도 보다 인권 친화적으로 발전하는 전기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학교 교육의 압박감속에서도 교과서 모니터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학생 모니터단 여러분과 바쁜 일과 속에서도 교과서 모니터링의 방향을 제시해주시고, 과목별 모니터링을 기꺼이 함께 해주신 교사 모니터단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09. 10. 7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 이 성 훈

국가인권위원회 제1기 교과서 모니터단

□ 교과서 모니터단 추진 배경

- 교과서의 단계적 개정 시기(2009~2011)를 맞아 교육 내용이나 방법상 인권교육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적절한지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인권에 대한, 인권을 위한, 인권을 통한 인권교육 원칙

□ 교과서 모니터단 목표

- 교과서 안에서 반(反)인권, 무(無)인권적 요소 및 내용 사례 발굴
- 인권 친화적 교과서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집필진에게 대안 제시
- 인권 친화적인 교육과정 확대와 교과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정책 제시
- 인권교육 확대와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

□ 주요활동경과

-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모니터링 교과서 안 인권 찾기』 구성 계획 확정
- 교과서 학생 모니터단 및 교사 모니터단 모집 및 선발(5.25~6.2)
- ‘교과서 안 인권 찾기’ 교과서 모니터단 발대식 및 간담회: 학생50명, 교사34명 위촉(6.13)
- 교과서 모니터단 ‘교과서 안 인권 찾기’ 온라인 커뮤니티 개설
 - 학생 모니터단 <http://cafe.daum.net/textbookmonitor-stu>
 - 교사 모니터단 <http://cafe.daum.net/textbookmonitor-tea>
- 교과서 모니터단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6.4~ 현재)
- 학생 모니터단 상반기 교과서 모니터링 활동(6.4~8.5)
- 학생 모니터단 하계인권캠프 및 모니터 사례발표회(8.6~8.7)
- 교사 모니터단 개정 교과서 및 과목별 모니터링 진행(7~8월)
- 학생 모니터단 하반기 교과서 모니터링(9월~현재)
- 교과서 모니터링 검토회의(9.14)

□ 구성현황

학생 위원 50명(중등 10명 / 고등 40명), 교사 위원 34명(초등 15명 / 중등 5명 / 고등 12명 / 특수 2명)

○ 학생 모니터 위원

김경미(인천명신여고1), 김다예(분당영덕여고1), 김민주(운천고 2), 김빛나(대원여고2), 김승희(정신여고3), 김안나(인천국제고1), 김연진(학익여고1), 김영민(대원외고2), 김예지(인천국제고1), 김유나(이화여고1), 김유진(대원외고2), 김정진(가락고1), 김지원(포항제철고1), 김진호(중동중2), 김채은(성지고3), 김한새(순천효천고1), 김현석(배명고1), 김형준(다산학교 고1), 김희영(정신여고3), 마지연(연성중2), 문민경(이화여고1), 박미정(인천가림고1), 박세영(성남외고1), 박수빈(인덕원고1), 백승은(서울목동중1), 서리나(이우고2), 손영현(경기북과학고1), 오명신(상무고3), 오연경(영덕고1), 오주영(영덕중1), 윤정아(고양고3), 윤희인(광주 윤리중3), 이동혁(구성고2), 이소현(인천국제고1), 이수원(인천국제고1), 이슬기(이일여고2), 이은주(부천여고1), 이한숨(정신여고2), 이효진(외대부속외고1), 임지우(동구여중2), 장영은(광주 송일고2), 정다향(대원외고1), 정언수(분당서현고2), 정윤희(외대부속외고2), 정은정(성남외고1), 정효영(신목중3), 최근아(정신여고3), 최준호(분당내정중2), 홍봄이(서산 부춘중3), 홍재영(수원청명중1)

이상 50명의 학생 모니터 위원이 함께 했습니다.

○ 교사 모니터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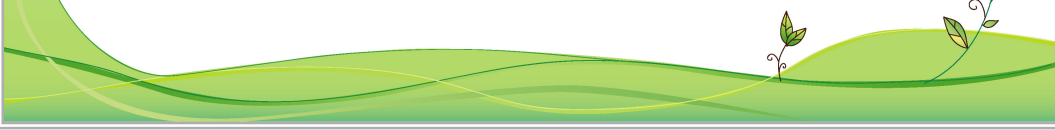
강희숙(과천중앙고), 고옥재(문산제일고), 고혜경(근명여자정보고), 공일영(은혜중), 권철웅(우신고), 김수동(천안서여중), 김영갑(부명고), 김인희(서울맹학교), 김태균(제암초), 김희재(성요셉여고), 노의환(대평고), 목진덕(남강중), 문은주(인천대화초), 박병은(전주용흥초), 박연수(임곡초), 신희철(이천고), 안은례(영천여고), 양승미(안산초당초), 오윤식(성심학교), 이규열(신철원초), 이선영(서울가곡초), 이승휘(소하고), 이은주(양서중), 이정일(화성장안초 석포분교), 임승국(오산중), 임용덕(경기군포산본초), 장범관(청주교대 부설초), 정영찬(인천안산초), 정희정(울산정보고), 조기성(계성초), 조성대(인천가현초), 진명식(전주교대 군산부설초), 채도휘(안성용머리초), 최동열(서일여고)

이상 34명의 교사 모니터 위원이 함께 했습니다.



반차별적 관점으로 바라본 교과서

서울가곡초등학교 교사
이 선 영



반차별적 관점으로 바라본 교과서

서울가곡초등학교 교사
이 선 영

I 들어가며

교과서는 학교수업의 기본이자 기초인 텍스트이다. 하지만 교과서에 심어져 있는 많은 오류들은 교사들은 놓치는 경우가 많으며 설사 개개인의 교사들이 주관적으로 수정하려고 해도 그런 권한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교과서가 틀렸다고 어찌 주장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주장을 한다고 해도 누가 들어주겠는가?

인권교육은 학교가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과 타인의 권리에 대해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이를 교육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교실에서는 인권교육이 쉽지 않다. 입시에 중요한 교과 중심의 수업이 더욱 중시되고 있고 그나마 교사의 재량으로 수업을 할 수 있었던 시간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초·중·고 모두 그러한 추세이며 초등학교라고 해서 다를바 없다. 따라서 인권교육은 교과 수업 시간 내에 녹아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교과 수업 시간 내에서 인권교육이 가능하려면 학교 교과서의 내용에 인권교육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나 교과서 자체가 인권적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간에 교과를 배우고 난 학생들의 생활과 마음에 인권을 알고 실천하는 모습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교사들이 모여 교과서의 반인권적인 모습, 무인권적인 모습 또한 친인권적인 모습을 찾아보는 것이다. 반인권적이거나 무인권적인 것은 고치고 친인권적인 모습은 인권교육으로 활용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든다. 교실에서 수업시간을 따로 내어 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 한 교과교육에서 인권에 대해 알고 실천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반차별적 관점에서 교과서를 모니터링한 작업들을 보여주려고 한다. 많은 선생님 들께서 또는 학생들이 수고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예를 찾아내었지만 지면관계상 모두 실을 수 없어 그 중 대표적인 것을 제시해 보겠다.

II

교과서- 반차별적 관점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반차별적 관점이란 무엇일까? 교과서에서 반차별적인 것을 따져보기 위해 ‘어떤 기준으로 교과서를 봐야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겼다. 단순히 교사 개인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교과서의 문제를 찾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인권교육 길라잡이(국가인권위원회, 2007)” 100~101쪽에서는 남녀차별의 시선이 없는가 하는 교과서 모니터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필자는 이 기준으로 교과서를 모니터링 해보려고 한다.

- 남성과 여성에 대한 언급 횟수가 동일한가?
- 여성 등장인물은 신체적으로 강하고, 모험심이 있으며 창의적이고 광범위한 업무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는가?
- 남성 등장인물은 인간적이고 배려심 많은 사람으로 남을 도와주려 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남들이 자신을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는가?
-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동등한 존재로 존중하고 있는가?
- 남성이 육아와 살림에 적극동참하고 있는가?
- 여성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전통적으로 여성의 직업으로 여겨지던 직업들(교사, 간호사, 비서 등)이나 무임금 또는 저임금직종은 아닌가?

가. 남녀차별의 시선이 있는 교과서 모습

①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바른 생활



‘3단원 함께하는 한가위’(28쪽)에 있는 삽화그림이다. 제목과 다르게 한가위 음식 준비를 하는 삽화에서 여성들만 차례 음식을 만들며 즐거워하고 남성은 전혀 음식 만들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로 하여금 차례 음식 준비는 여성만 하는 일이라는 성차별과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

②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국어 : 듣기 말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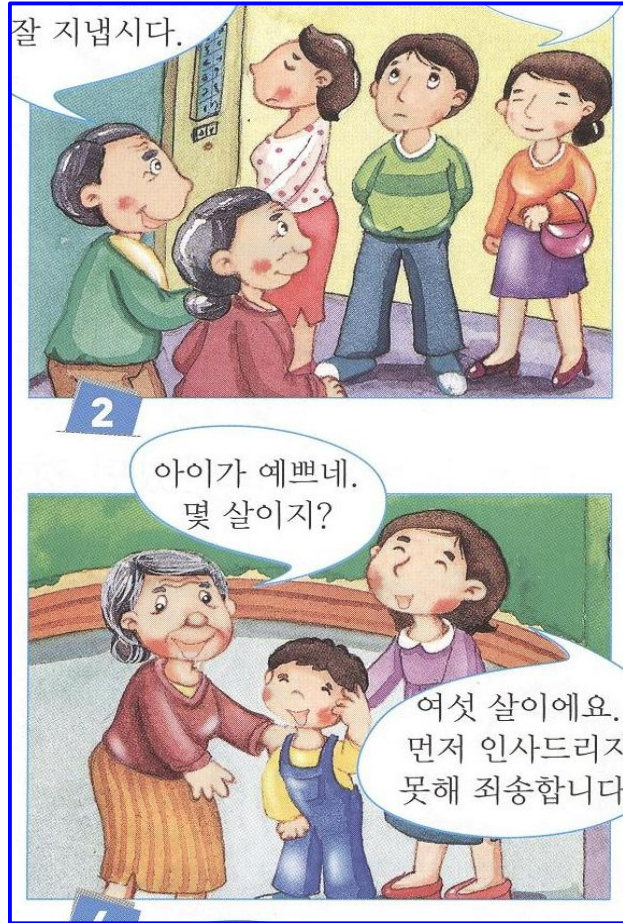
2. 꼼꼼히 살펴보아요 (교과서 17쪽) 에 나오는 삽화이다.



장난감을 가지고 소개하는 삽화에서 여학생은 인형, 남학생은 로봇이나 자동차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다. 성별로 특정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면 안되는데 남학생은 로봇과 자동차 장난감을 여학생은 인형과 동화책만을 가지고 논다고 표현된 삽화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로 하여금 성차별과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내용이다.

③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 바른생활

전체 내용에 나오는 삽화에서 활동적인 엄마 모습은 찾기 어렵다. 단원소개 쪽부터 엄마, 아줌마는 줄곧 치마를 입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다음은 바른생활에 포함된 삽화의 한 예이다.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엄마 또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고 의복에서도 치마보다는 바지를 선호하고 많이 입고 있음에도 교과서 속에서는 차분한 곱슬머리나 단발머리(심지어 커트 헤어스타일도 없음) 그리고 치마로 중년의 여성이 대변되고 있다.

④ 초등학교 6학년 - 영어

- 7. My Father is a Pilot. 165쪽

직업에 관한 단어를 배우면서 특정한 성의 직업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면 안되는데 여기에서의 그림은 의사와 버스운전사 등은 남성의 직업, 간호사, 피아니스트 등은 여성의 직업인 것 같이 그려져 있다. 전통적으로 여성의 직업과 남성의 직업이라 여겨지는 것들을 삽화로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초등학교 영어교과서의 경우 글보다 삽화로 표현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삽화가 7단원 내내 매차시마다 인용되어 있다. 이런 삽화가 4차시 수업마다 포함되어 있고 이는 여성의 직업과 남성의 직업을 구분하는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 다음은 그림카드 삽화의 예이다.



⑤ 중학교 1학년 - 영어 (ㄷ 출판사, 김덕기저)

- Lesson12. Before you Begin. 167쪽



여성은 멋을 내는 존재로, 남성은 책을 보는 존재로 그려져 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여성과 남성을 표현하고 있는 삽화이므로 이 그림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서로 동등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⑥ 고등학교 - 사회 (7 출판사) 228쪽



이 삽화를 보면 남성은 밖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 가정에 보태는 입장으로, 여성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으며, 가정살림을 책임지는 남성에게 소위 바가지를 긁는 역할로 나와 있다. 남성이 돈을 벌어오는, 여성은 그 돈을 받아서 쓰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는 사례이며 이는 시대상 과도 맞지 않고 성평등적 관점에서 부적절하다.

⑦ 고등학교 - 생태와 환경 (C출판사) 189쪽



위의 사례나 삽화를 볼 경우 여성은 모두 가사 일을 도맡아 하고, 남성은 음식 먹는 것과 물건 사는 것의 일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살림에 적극동참하고 있지도 않으며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존재로도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요즘 시대상에도 맞지 않는 반인권적인 내용과 삽화라 할 수 있다.

나. 인종(국가)차별의 시선이 있는 교과서 모습

인종(국가)차별의 경우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다문화시대에 초점을 두고 앞의 남녀차별의 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모니터링 사례를 발표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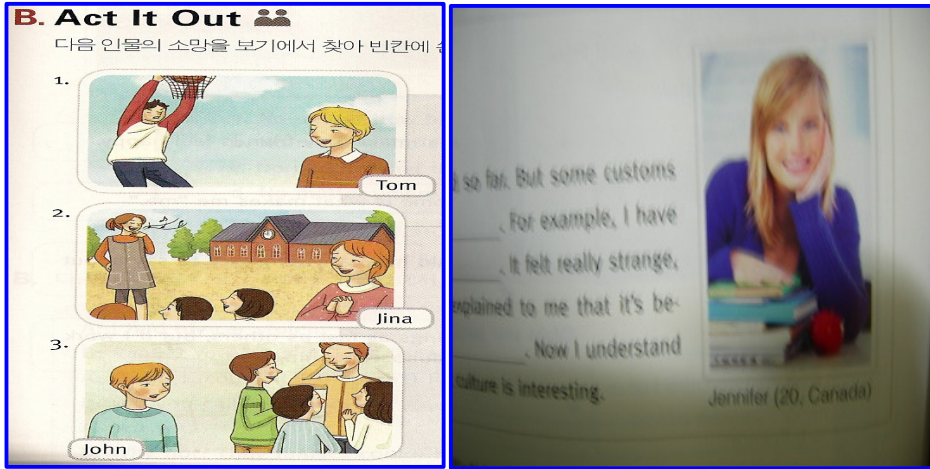
- 어느 특정 인종이나 국가만 교과서에 제시된 것은 아닌가?
- 어느 민족이나 인종을 비하하거나 우월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가?
- 어느 국가를 비하하거나 우월하게 여기고, 그들의 문화를 볼 때 문화상대주의의 입장을 지키지 않고 있지 않은가?
- 어느 국가나 민족에 관해 선입견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은가?

① 중학교 - 1학년 영어 (L 출판사) 10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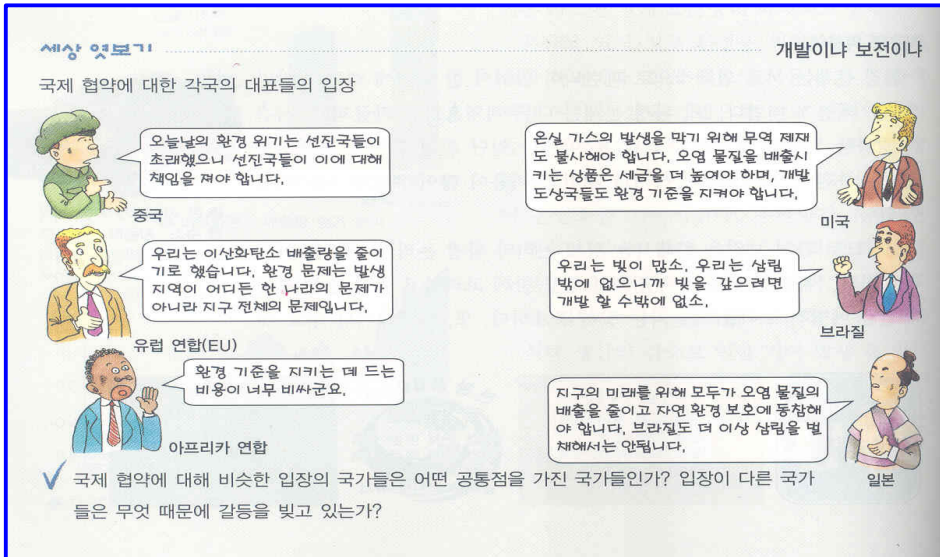
다른 인종과 가교를 놓아서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는 지문과 달리 황인종만 보이고 있다. 이는 내용과도 맞지 않는 것이며, 특정 인종만 제시하고 있으므로 반인권적이라 할 수 있다.

② 고등학교 - 영어 (L출판사)



영어교과서에 삽화나 사진에 '영어를 쓰는 외국인'으로 대체적으로 흰 색 피부의 백인이 등장하고 있다. 아프리카계 인종이나 흑인은 등장하지 않으므로 인종 편향적이고 이는 영어를 사용하는 많은 인종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 (ㄱ출판사) 108쪽



교과서의 내용은 유럽연합은 인식을 개선하자는 좋은 취지의 내용을 말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일본은 마찬가지로 개선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반해 중국은 선진국에

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아프리카연합은 돈만 따지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브라질은 빛이 많고 삼림밖에 없다는 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누가 보아도 '중국, 아프리카, 브라질은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다, 유럽연합, 미국, 일본은 환경보존을 생각하는 좋은 나라이다'라고 생각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제 환경단체의 발표를 보면, 미국이 온실가스를 많이 내는 나라중의 하나인데 그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결국 이 사례는 후진국은 무지하고 비인간적인데 반해, 선진국은 환경보호, 환경 친화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소 후진국과 선진국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 정형화된 가정, 빈부, 사회적 신분의 모습이 들어있는 교과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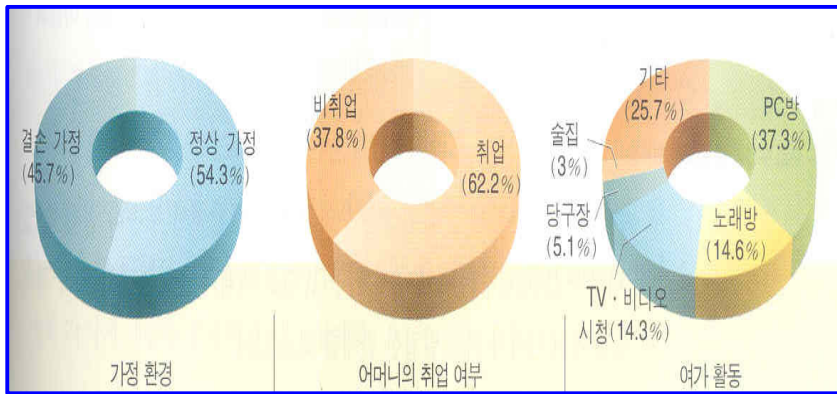
여기에서는 정형화된 가정이나 빈부, 사회적 신분의 모습이 차별적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모니터링하려고 한다. 이는 교과서의 가정에 대한 모습이 너무 정형화되어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빈부, 사회적 신분의 모습이 들어갈 때 차별의 시선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찾아보았다.

① 중학교 - 2학년 1학기 국어 136쪽



1990년대에도 한부모 가정이라던가 다문화 가정의 모습이 나타나야 올바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단순히 정형화된 가정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시대상에도 맞지 않고 인권적이라고도 할 수 없다.

② 고등학교 - 사회(지출판사) 249쪽



여기서는 결혼가정과 정상가정이라는 용어가 사회적 편견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결혼가정이라는 표현보다는 한부모, 조손 가정 등으로, 정상가정은 양부모가정 등으로 용어를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III 마무리 지으며 - 교과서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지금까지 반차별적 관점에서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를 살펴보았다. 남녀차별의 시선, 인종(국가)차별적 시선, 그리고 정형화된 가정을 나타내는 교과서의 모습을 찾아 본 것이다. 그렇다면 이 교과서는 어떻게 수정, 개선되어야 할까?

우선 남녀차별의 모습이 나타난 경우 남성과 여성의 언급횟수가 동일하게 하며 남성이 육아나 가사에 도움을 주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 여자이기 때문에 인형과 책을 좋아한다는 고정관념을 바꾸어야 하며 여성을 나타내는 삽화는 다양한 의복과 헤어스타일로 현재의 여성상을

제시해야 한다. 어머니의 모습이 집에서 살림만 하고 가사 일을 도맡아 하는 여성으로 제시된 경우도 많은데 이는 진취적이며 창의적이며 업무에 관심이 많은 여성으로 바뀌어야 하며, 전통적으로 여성의 직업, 남성의 직업이라는 구분 없이 삽화를 그리거나 내용을 전개해야 한다.

인종(국가) 차별의 시선이 있는 경우의 교과서는 다양한 인종의 삽화, 사진이 나오는 것이 맞으며,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모두 백인이라는 고정관념의 그림이나 삽화는 수정되어야 한다. 국가를 제시하는 것에서도 선진국은 우수하고 후진국은 열등하다라는 선입견을 제시하면 안되고 문화를 나타내는 모습도 문화다양성을 충분히 존중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정형화된 가정, 빈부, 사회적 신분의 모습이 들어있는 교과서에서는 정형화된 모습이 시대상을 반영하도록 수정하고, 시대상이 반영된 한부모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이 사회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모습임을 제시하여야 한다. 빈부나 사회적 신분에 선입견을 제공하거나 차별적 시선이 있는 것도 모두 수정해야 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교과서가 인권적이어야만 인권교육도 가능하다. 남녀의 차별, 인종·국가의 차별, 정형화된 가정 및 편견이 들어있는 교과서에서 학생들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이 커서 편견이 가득한, 인권을 존중하지 못하는 어른으로 커가는 것은 아닐까?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찾아낸 많은 차별상들을 보며 우리 교과서가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새삼 더욱 놀랐다. 학생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며 가장 중요한 교과서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차별적이라는 사실에 교과서에 대한 신뢰감마저 떨어지고 만다. 학생들도 이런 교과서를 배우며 알게 모르게 차별적인 시선과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에 따라 행동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학생들마저 교과서에 대한 신뢰감을 잃을 지도 모른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를 새로 집필할 때 이런 오류들을 수정하면 되고 개정된 교과서도 문제가 있다면 수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수정된 교과서로 앞으로 공부할 학생들은 인권적인 생각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관점으로 바라본 교과서

인천 안산초등학교 교사
정영찬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관점으로 바라본 교과서

인천 안산초등학교 교사
정영찬

I 들어가는 글

새로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2007. 2. 28.)에 의거 200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교과서 집필과정에 적용될 개정 교육과정 지침 등을 살펴본 결과, 제7차 교육과정에 비해 초·중등 학생들이 배우게 될 학교 교과서에 인권 관련 내용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2007년 2월에 고시된 새로운 초·중등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인권교육’ 개념이 도입되어 초등학교에서부터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개정 교육과정에는 인권교육이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교과목은 국어, 도덕, 사회, 영어 등 통합교과 형태로 실시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도덕과목과 사회과목에서 집중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인권교육이 교과활동뿐만 아니라 창의적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등에서 실시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인권관련 교육으로서 장애인 이해교육, 양성평등교육 등이 포함돼 실시될 예정이다.

이렇게 인권관련 교육이 확대될 전망이기에 자연스럽게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반영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되기에, 향후 개정될 교과서를 위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에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내용만을 분석해 보았다.

인간은 모두 소중하게 태어난다. 어떤 사람은 다수자의 조건에서 어떤 사람은 다른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데 소수와 다수를 규정하는 수많은 기준은 때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또 편견이 개입되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에는 다수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소수자가 되기도 한다. 또한 다수자의 지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후천적인 이유로 소수자가 되기도 한다.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되는 예가 그렇다. 이렇게 보면 다수자와 소수자는 서로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서로 호환되며 상대적으로 규정되는 개념이다. 즉 우리는 모두 소수자이다. (인권과 소수자 이야기, 박경태, 책세상, 2007, p.19)

소수자는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사회의 다른 성원들에게서 차별을 받으며 차별 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정의내릴 수 있다.(인권과 소수자 이야기, 박경태, 책세상, 2007, p.19-p.20)

이러한 소수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화교, 외국인 이주 노동자, 혼혈인, 국제 결혼한 배우자, 다문화 가정 아동 등의 인종·민족적 의미의 소수자가 존재하며 여성, 장애인, 노인, 빈민 같은 '전통적인' 소수자 집단도 존재하고 있다.

소수자라는 단어가 '소수(小數)의 사람'이라는 뜻이라 해서 반드시 구성원의 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여성의 수가 남성보다 훨씬 길어 대부분 사회에서 여성의 수가 남성의 수가 많다. 하지만 여성은 소수자로 분류된다. 즉 이러한 것을 볼 때 소수자라는 것을 결정하는 기준은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편견과 차별의 여부에 달려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소수자를 사회적 약자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이 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사회적 약자는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불리한 위치에 있을 뿐, 어느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소수자와 달리 사회적 약자는 자신이 어느 집단에 속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오다가 어느날 자기가 차별을 받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그 차별 받는 이유가 자신의 어떠한 특징들(여성, 장애 등, 또는 강자들이 '너희는 이런 특징이 있다'고 규정한 것)때문임을 깨닫는다면, 그는 자기가 속한 집단을 발견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서 소수자로 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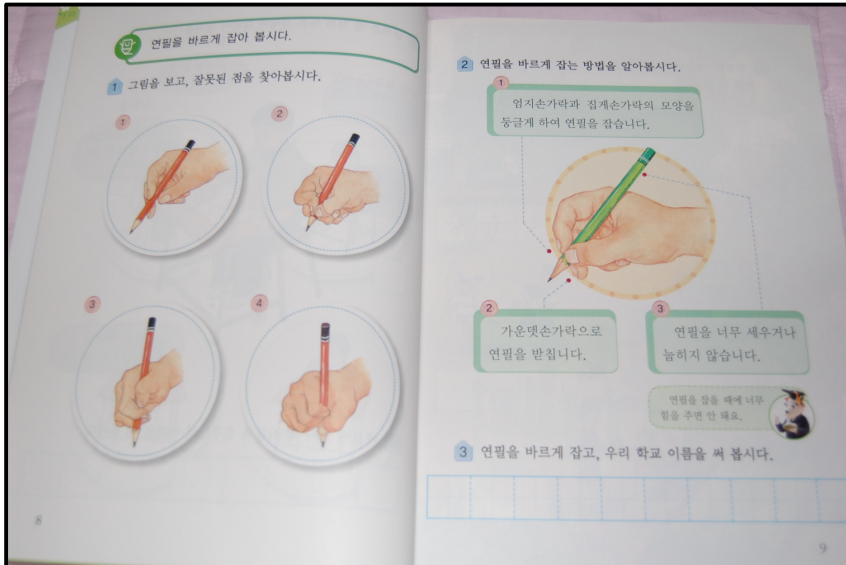
이러한 소수자적 관점에서 교과서를 모니터링 한 사례들은 교과서를 개별적으로 집필하는 집필진들에게 교과서 전체를 조망하고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라 본다. 또한 교육현장의 교사와 학생들에게도 우리 사회가 소수자를 현재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전기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

II

사회적 및 소수자의 관점에서의 교과서 집필 시 문제점

각각 모니터링 한 교과서에서의 문제점을 보면서 무엇이 왜 문제가 되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교과서 모니터단들이 모니터링한 내용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술에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고정관념에 따라 삽화를 구성한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번 교과서 모니터링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모든 교과서에서 연필을 잡을 때, 식사를 할 때, 운동을 할 때 모두 오른손 잡이로만 그려져 있었다.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도 항상 고민이 된다. 왼손잡이인 학생들에게 왼손잡이를 고치라고 해야 하는지, 그들은 괴로워하고 다수가 오른손잡이인 상황에서 왼손잡이는 왜 “나쁜”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남과는 다른 나의 모습, 남들의 시선....



〈그림-1 쓰기 1학년1학기 교과서 p.8-p.9〉

비단 이러한 연필 잡는 것 뿐만이 아니다.

예를 들어 바른생활 1학년 1학기 3. 가족은 소중한요(p.32-p.47)에서만 보더라도, 교과서 32-34쪽의 그림을 보면 젓가락과 수저 등의 도구를 들고 있는 네 사람은 모두 오른손잡이로 되어 있다. 교과서 36-37쪽의 그림을 보면 곰돌이 가족의 식사 모습이 나와 있는데 7명의 곰돌이

모두 오른손잡이로 표현되어 있다. 교과서 38-39쪽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의 그림과 식사도구의 사용법에 관련한 수저와 젓가락 집는 사진 모두 오른손잡이로 표현되어 있다. 44쪽의 “할아버지 생신”관련한 그림에서 직접적으로 보이는 사람 중 5명 모두 오른손잡이이다. 45쪽의 즐거운 급식시간 그림에 보이는 사람 모두 오른손잡이이다.

이러한 모든 교과서, 단원에서 모든 사람을 오른손잡이로 표현한 것은 우리 사회에 오랜 세월 쌓여온 편견이 드러나는 것일 수 있다. 이 같은 교과서 삽화에 대해 반복학습을 할 경우 왼손잡이인 학생이나 오른손잡이 학생 모두 왼손잡이(소수자)를 다름으로 이해하지 않고 틀림이나 열등함으로 오해하게 된다. 왼손잡이 아동들은 자신의 장점을 발휘하지도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왼손잡이 아동들은 단지 ‘왼손을 쓴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죄 짓는 기분으로 살며 괴로워할 수도 있다.

1. 소수자에 대한 기술

사례①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

선택 활동 다음 활동 중에서 한 가지를 정하여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봅시다.

활동 내용

- 혼자 사시거나 양로원에 계시는 노인을 방문하여 말동무 되어 드리기
- 몸이 불편한 아이와 놀아주기
- 소년 소녀 가정의 집을 찾아가 도와주기
- 고아원을 방문하여 도와주기
- 혼혈인 친구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알아보기

1. 어려웠던 집이나 보람 있었던 집을 말해 봅시다.
2.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왜 필요한지 말해 봅시다.

48

〈그림-2 도덕 초등5 교과서 p.48〉

사례②

선택 활동 ② 카드놀이를 해 봅시다.

놀이 방법

우리 주변이나 세계의 불행한 어린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적어 온 카드를 모듬별로 모아 토의하고, 실제로 실천해 봅시다.

카드 1. 국내의 지도자에게 지역이나 세계 문제에 대해 호소하는 편지 쓰기
(예 : 대통령께 '어려운 소녀 가장을 도와 주세요'라는 편지 쓰기, 신문사나 방송사에 편지 쓰기)

카드 2. 어려운 이웃을 찾아 봉사하기(고아, 장애아, 노인 돕기)

카드 3. 지역의 환경 보호에 참여하기(거리 청소, 나무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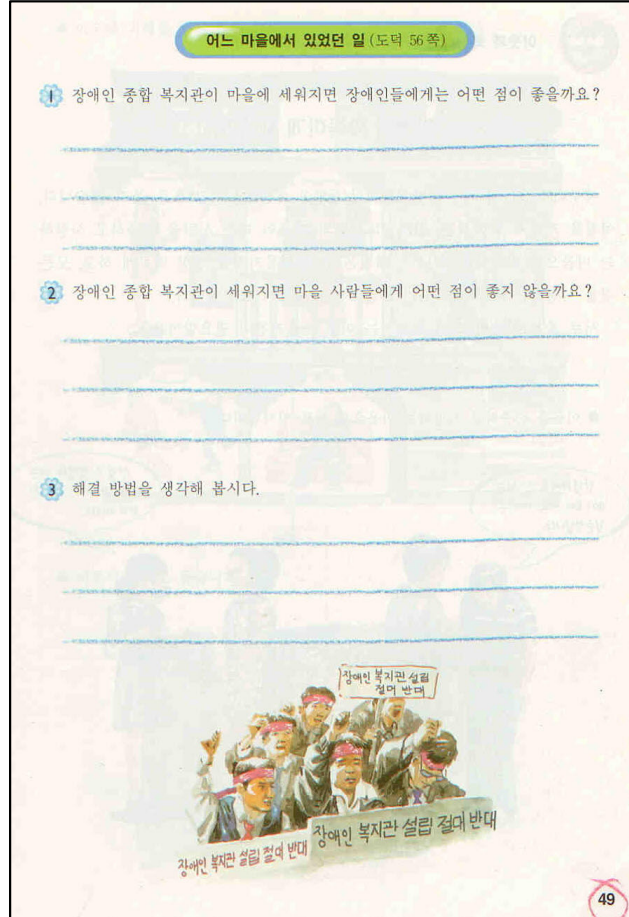
카드 4.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기금 모으기에 참여하기(용돈 아껴쓰기)

〈그림-3 도덕 초등6 교과서 p. 163〉

교과서 모니터단에 의해 모니터링 한 사례들 중 『사례①,②』에서는 몸이 불편한 친구, 고아, 소년, 소녀가장과 고아원 친구들, 혼혈인은 항상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도움을 받는 존재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례②』에서는 불행한 어린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라 기술하면서 하단 어려운 이웃에 고아, 장애아, 노인을 포함하여 “고아, 장애아=불행”이라는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례들은 이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는 시혜(施惠)적인 관점에서만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은 인권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어려움에 도움을 주는 것이 곧 ‘인권’이라고 생각되게 할 수 있다.

2. 장애인시설 설립에 관한 기술

사례③



〈그림-4 도덕 초등5 생활의 길잡이 p.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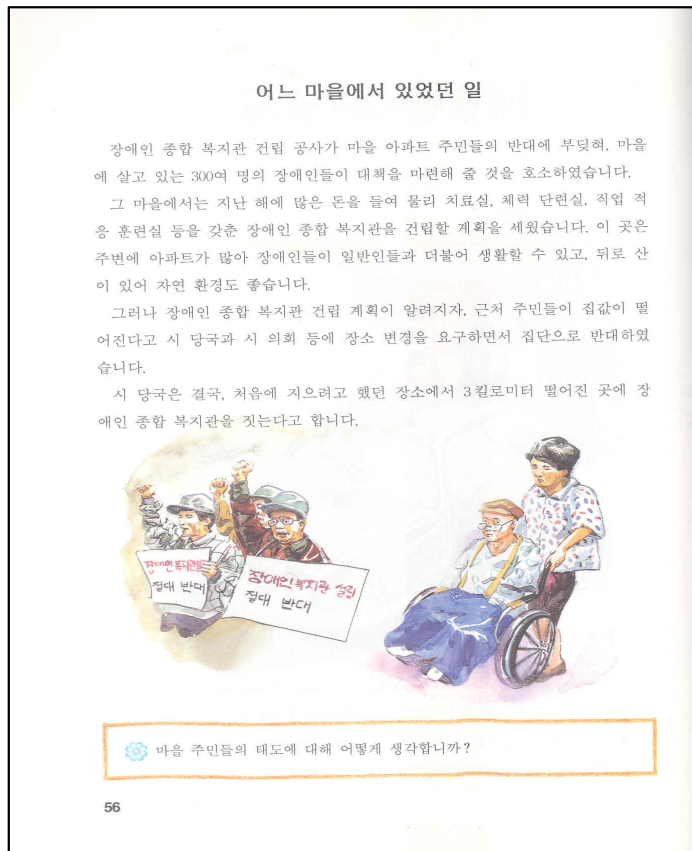
사례③에서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세우려는데 마을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례를 읽고 해결방법을 생각해 보는 내용이다. 하지만 해결방법을 생각해 보자고 했지만, 먼저 제시된 질문들은 전혀 맞지가 않다. 『장애인 종합 복지관이 마을에 세워지면 장애인들에게는 어떤 점이 좋을 까요? 장애인 종합 복지관이 세워지면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점이 좋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은 장애인들에게는 어떤 점이 좋고, 마을사람에게는 어떤 점이 좋지 않을까? 라고만 물어보고 있다. 이러한 질문은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장애인에게만 좋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다는 대답을 이끌어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질문을 제시한 다음 바로 해결 방안을 찾으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질문만으로는 해결 방안이 나오질 않는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이 세워지면 마을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진다고 반대한다. 참 현실적인 이야기다. 하지만 초등학교 5학년에게는 집값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반대하는 것들을 이해하기 어렵다. 경제적 이유로 인권이 존중될 수 없음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립 반대에 대한 관점은 자칫 학생들에게 다수자가 소수자를 차별하고 있는 배제의 의식을 키워줄 수도 있다. 배제¹⁾의 의식은 외부의 이방인들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무의적인 학습은 학생들에게 다수자의 관점에서 소수자들을 차별시키는 배제의 의식, 고정관념, 차별을 답습하게 할 수도 있다.

사례④



〈그림-5 도덕 초등 5 교과서 p.56〉

- 1) 배제의 사례로, 이민 국가인 호주는 연방을 결성한 뒤 1901년부터 통일 이민 제한법에 따라 백인 이민자만을 받아들이고 아시아계 등의 '유색 인종'은 받아들이지 않는 다는 이른바 백호주의(白濠主義, White Australia policy) 정책을 펴오다가 1973년에 공식적으로 폐지하였다.

사례⑤

함께 하기 3 이웃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

● 다음 글을 읽고, 이웃 간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지 내 생각과 그 이유를 써 보도록 하자.

오늘은 오랜만에 열리는 가족 회의날이다. 보통 때 가족 회의 시간에는 가족 문제나 집안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오늘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어머니께서 우리 마을에 장애인과 고아들을 위한 사회 복지 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라고 하셨다. 이 문제로 며칠 전에는 임시 반사회도 열렸다고 하셨다. 반사회에서 대다수의 주민이 사회 복지 시설 건립을 반대하였는데, 그런 사실이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지고, 아이들의 교육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더 모아 마을 전체의 공식적 입장을 나타낼 것이라고 하였다. 어머니께서는 먼저 우리 가족의 생각을 듣고 난 후에 반사회에 가서 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 나의 생각 :

● 이 유 :

<그림-25 도덕 중등 1 교과서 p.248>

사례⑥

탐구 활동 | 개인의 권리와 공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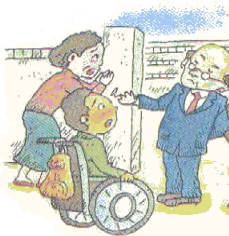
집 근처에 장애인 학교가 생기지 못하도록 소송을 낸 서울의 한 아파트 주민들에 대해 대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우리 사회 도처에서 기승을 부리는 님비(NIMBY) 현상에 췌기를 막은 셈이다.

장애인일수록 정상인보다 더 많은 교육과 훈련을 필요로 하는데, 국내에서는 장애인의 70% 이상이 의무 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턱없이 부족한 교육 시설 때문에 정부가 운영하는 특수 학교는 물론이고, 값비싼 민간 기관에 들어가는 데도 한참씩 기다려야 한다. 더 이상 장애인 교육 기관의 설립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민과 지방 자치 단체의 반대에 밀려 제때 설립이 안 되는 실정이다.

과제1 이러한 님비 현상의 사례를 찾아서 서로 대립되는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과제2 자신이 장애인이거나 그 가족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장애인 학교 설립 반대에 대한 항의문을 작성해 보자.



<그림-7 사회 고등 (지 출판사) 교과서 p.267>

사례⑦



〈그림-27 도덕 고등 교과서 p.80〉

『사례④⑤⑥⑦』 장애인 시설에 대한 사건에 관한 찬반 토론의 내용만 실는 것은 자칫 “장애인 시설=혐오시설”이라는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 지역에 복지시설을 건립될 경우 그 혜택도 지역주민이 보게되는 것이며, 지역주민 중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 혜택을 보게되는 것임에도 지역사회에 함께 살고 있는 지역주민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마치 외지의 사람들 혹은 완전히 별개의 사람들이 설립한다는 관점으로 사례를 기술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사회적 사건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을 담아내지 못하면 배제하는 것인데, 이들 장애인 시설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관점이나 시각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인권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는 사회적 사건과 관련하여 하나의 집단에 대하여 사건의 가해자로 보고 서술하여 인권적 요소를 갖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시설과 관련하여 그 사건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존재하고 그 사건들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원인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장애인이 문제 유발자로 서술되고, 장애인 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하나의 집단, 입장)이 일방적인 가해자나 문제유발자로 서술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3. 장애 체험에 대한 기술

사례⑧

내가 할 수 있는 배려와 봉사 활동 계획을 세워 실천해 봅시다.

선택 활동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은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는 일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여러 장애인의 어려움을 체험해 보고, 그들을 위해 배려하여야 할 점을 찾아 실천해 봅시다.

상황 1 : 팔이 불편합니다

- 친구와 짝을 이룹니다.
- 압박 붕대를 준비하여 한 팔을 묶습니다.
- 친구의 도움 없이 학교에 옵니다.
- 친구의 도움을 받아 학교에 옵니다.
- 역할을 바꾸어서 합니다.

상황 2 : 말을 할 수 없습니다

- 친구와 짝을 이룹니다.
- 가게에서 손짓, 몸짓으로 뜻을 전달하며 물건을 사 봅니다.
- 친구의 도움 없이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갑니다.
- 친구의 도움을 받아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갑니다.
- 역할을 바꾸어서 합니다.

93

〈그림-28 도덕 초등6학년 교과서 p.93〉

사례⑨

함께 하기 **장애 체험하기**


● 헬렌 켈러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3종의 장애인이었다. 학급 친구들과 장애인 체험 활동을 간단히 해 보고, 헬렌 켈러에 대하여 더 깊게 생각해 보자.

①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장애인 체험 활동을 해 보자.

- ① 모두들 교실 뒤쪽으로 모인다.
- ② 저마다 눈가리개로 눈을 가리고 혼자서 장애물을 지나 교실 앞쪽으로 갔다가 돌아온다.
- ③ 말은 절대로 하지 말고, 손으로 천천히 더듬어 가면서 걷는다.
- ④ 장애물을 통과하여 돌아온 다음에는 두 사람이 서로 손을 잡고 다시 가 본다.
- ⑤ 다음에는 두 사람씩 짝을 지어, 한 사람은 눈을 가리고 시각 장애인이 되고, 한 사람은 입을 가리고 청각 장애인이 되어, 청각 장애인이 시각 장애인을 안내해 본다. 시각 장애인이 장애물을 벗어나서 그냥 통과할 때에는, 청각 장애인은 시각 장애인이 장애물을 손으로 만져 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보살펴 준다.

② 장애인 체험 활동을 하고 나서, 혼자 걸어갈 때, 안내자와 함께 갈 때, 안내자의 역할을 할 때의 느낌을 말해 보자.

③ 장애인 체험 활동을 하고 나서, 헬렌 켈러의 훌륭한 점에 대해서 새롭게 느낀 점이 있다면 써 보자.



<그림-29 도덕 중등1 p.151>

사례⑩

함께 하기 1 **장애 체험하기**

● 우리 주변에는 많은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 장애를 체험해 보고, 그 소감을 말해 보자.

	체험 사례	체험 방법	소감
1	시각 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대로 양쪽 눈을 가린다. • 도우미의 인도에 따라 화장실을 다녀온다. 	
2	언어 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로 입을 가린다. • 교무실의 선생님께 지정된 물건을 빌려 온다. 	
3	지체 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끈으로 손과 발을 묶는다. • 교문까지 다녀온다. 	

<그림-30 도덕 중등2 교과서 p.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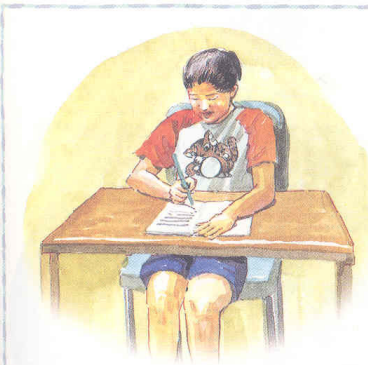
「사례⑧⑨⑩」에서는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이해하여, 평소에 장애인에 대해 지녔던 무관심이나 편견을 극복해보고자 하는 취지의 체험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체험활동이 단순히 장애에 대한 어려움을 체험하는 것에 그치고 있고, 사회적 환경에 대한 관심까지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사례⑨」의 헬렌켈러의 사례는 장애를 극복한 위인을 통해 장애를 개인의 극복기로 인식하게 할 소지가 크다.

4. 사회적 약자 서술에 있어서의 편견

사례⑩

선이의 일기

200○년 ○월 ○일 ○요일



나와 동생은 현장 체험 학습이나 운동회 때가 가장 싫었다. 친구들은 현장 체험 학습 때에 어머니가 따라오시기도 하고, 운동회 때에는 가족끼리 둘러앉아 맛있게 음식을 먹지만, 우리는 어머니가 오시기는커녕 김밥이나 과자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생일에 미역국도 못 먹었고, 선물도 받아 보지 못했다. 친구들이 생일 잔치를 했다거나 선물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때면 몹시 부러웠다.

또,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명절에 가족과 친척들이 모이는 것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방학이 되면 친구들이 외가에 간다고 자랑할 때에도 그랬다.

학교 생활은 쓸쓸하기 짝이 없었다. 전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할 때에는 학교가기가 싫고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다. 그러나 지금은 괜찮다.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내 나름대로 거짓 없이 깨끗하게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림-31 도덕 초등5학년 교과서 p.59〉

사례⑫

함께 하기 2 **참된 봉사 활동이란?**

● 다음 글을 읽고, 자기가 해 온 봉사 활동과 비교하여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2학년 1반 ○○○○)

그 곳에서 일하면서 그들에게 너무나 미안했고, 나 자신이 너무나 미워졌다.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나보다 조금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그들을 무시했던 나의 모습. 그들은 자기 몸을 가누지 못했지만, 비록 말을 못 하거나 걷지 못했지만 모두들 천사였다. 걷지 못하는 사람에겐 서로 다리가 되어 주고, 말을 못 하는 사람에겐 서로 입이 되어 주는 그런 천사들이었다. 그 곳에는 자원 봉사자들도 많았다. 수녀님들을 비롯하여 병원의 의사 선생님, 또는 회사에서 실직당하신 분들조차 그 곳에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계셨던 것이다. -  중학교 봉사 활동 소감문집 『그 곳에 가면 꽃이 된다』 중에서

① 위의 글에 가장 알맞은 제목을 붙여 보자.

② 내가 한 봉사 활동과 비교하여 다른 점은 무엇인가?

〈그림-32 도덕 중등2학년 교과서 p.91〉

『사례⑪,⑫』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정관념에 따른 정형화된 기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그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수정되어야 한다. 특히, 정상과 비정상의 분류에 따른 서술을 하고 있는데, 소년소녀 가장의 학교생활은 비정상(부정적), 자신은 정상이며 복지시설에 있는 사람은 비정상이라는 관점의 서술은 문제가 있으며 다양성의 관점으로 서술해야 한다.

5. 기타 서술

사례⑬

〈해보기〉 역할극을 해 보자. 학교 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집단 따돌림 상황을 설정하고, 5인 1조가 되어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따돌림을 당하는 대상이 되어 본다. 그리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서로 이야기해 보자.

* 하나 더 알기 *

따돌림을 극복하는 방법

- ① 내가 왜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지 그 원인을 찾는다.
- ② 따돌리는 친구가 놀리거나 욕을 하며 괴롭힐 때 울거나 힘들어하는 표정을 짓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말고 ‘하지마’ ‘싫어’라고 자기표현을 분명히 한다.
- ③ 친구들에게 쪽지 편지 등을 통해 지금의 힘든 상황을 잘 전달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한다.
- ④ 따돌림으로 인해 자포자기하지 말고, 부모님이나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기술가정 중등 Ⅱ 출판사 교과서 p.15〉

사례⑭

- 1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의 특징과 집단 따돌림의 유형에 대해 조사해 보자.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해 보자.

집단 따돌림 당하는 학생의 특징	집단 따돌림의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자량을 많이 한다. •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활동에 함께 하지 않기 •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 가하기 • • •

한국 청소년 상담원 www.kyci.or.kr
 한국 청소년 개발원 www.kiyd.re.kr
 한국 청소년 문화 연구소 www.youth.re.kr

- 2 집단 따돌림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사회적·교육적·가정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사회적 요인	
교육적 요인	
가정적 요인	

〈그림-13 사회 고등 Ⅱ 교과서 p. 268〉

「사례⑬⑭」에서의 서술은 사회적 약자(따돌림을 당하는 학생)들이 가진 문제나 그들의 삶의 원인에 대하여 서술할 때 나타난다. 사회적 약자의 문제나 상황에 대하여 사회적 약자 스스로에게 원인이 있다는 식의 이러한 표현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

Ⅲ 집필 방향에 대한 제언

교과서의 집필 관점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즉, 시혜(施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배우는 과정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진정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관점에서의 교과서는 인격적으로 평등한 주체들이 구성하는 이러한 다양성이 바로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는 과정이어야 한다.

소수자들은 ‘~라서 그럴 거야’라는 편견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런 편견은 차별의 원인이 된다. 하지만 교과서에서 장애인시설은 혐오시설, 소수자는 항상 어려우니깐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편견을 지니고 있으면 그 편견은 깨지지 않을 것이다.

소수자가 어떤 삶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인권 상황을 보여주는 척도이다. 교과서에서 소수자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나타내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짊어질 청소년들에게 과거의 소수자의 인식을 답습하는 모양밖에 되지 않는다.

이번 교과서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보면,

「1. 소수자에 대한 기술」의 부분에서는 교과서에서 소수자들을 돕는 활동을 제시할 때, 학생들이 진심으로 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활동에 필요한 계획을 세우는 단계, 상대방에게 어떤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단계, 실천단계, 추후 학습 단계로 나누어 활동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제시해야겠다. 또 이 활동시의 유의사항도 반드시 넣어 상대방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일방적이지 않도록 유도한다. 또한 소수자를 기술할 때의 용어사용에도 주의하여 정확한 용어와 편견에 치우치지 않는 용어를 사용해야겠다.

「2. 장애인시설 설립에 관한 기술」의 부분에서는 교과서에서 장애인시설 설립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면 같은 내용이라도 조금 더 희망적으로 접근해야겠다. 또한 장애인시설이 설립되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장면, 나쁜점만 부각시키는 내용보다는 ‘장애인 복지관이 생겼을 때 일반

인들에게 좋은 점은 없을까요?', '복지관이 생겼을 때 정부나 구청에서 마을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은 없을까요?'등을 물어보는 것이다. 교과서상에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더욱 강조하고 학생들에게 집값이 떨어져서 반대하는 현실(학생들은 잘 이해 못함)보다는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활동이라 생각된다.

또한, 협오시설로 인한 지역갈등 사례에 복지시설 설립을 가급적 최소화하며, 만약 사례로 제시할 때에는 건립해야 된다는 취지에 지역주민 중 장애를 가진 사람들, 지역주민의 복지와 편리를 위해서라는 논리를 함께 병행해야겠다.

「3. 장애 체험에 대한 기술」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장애체험을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구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저학년: 불편을 이해하기, 고학년: 장애체험을 통해 주변에 불편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고쳐져야 할까요? / 중, 고등학년: 장애인이 불편한 사회의 원인 찾기 → 비장애인 중심, 소수자 중심의 사회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학습』식의 학습으로 구성하면 효과적인 장애체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는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4. 사회적 약자 서술의 편견」의 부분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서술할 때의 표현에 유의해야겠다. 사회적 약자는 '무조건 어렵고, 부정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시혜적인 관점을 갖고 서술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따른 용어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야겠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차원을 넘어 이들도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권리의 주체로서 인권장전에 명시된 제반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함께 제시하면 좋은 인권 친화적인 교과서가 될 것이다.

「5. 기타 서술」에서는 주로 집단 따돌림에 관한 서술에 대해 분석하였다.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 폭력은 학교 내 학생들 간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이다.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에게도 원인이 있다는 교과서 기술보다는 학생 스스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 것처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 줄 의무와 책임을 동시에 가진다는 내용으로 구성해야겠다.

구체적으로 사생활의 영역에서는 개개인은 그 인격 발현을 위하여 자유로이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으며 자유로이 타인과 접촉하고 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집단 따돌림의 경우는 자유로운 활동과 인격 발현에 관한 권리, 즉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8조에서는

모든 사람이 세계인권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제29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을 교과서에 반영하고 교육한다면 훌륭한 내용구성이 될 것이다.

현재 교과서는 개정교과서를 중심으로 인권에 대한 인식이 확연하게 변하고 있다.

『개정교과서 슬기로운 생활 1학년 1학기 3. 가족은 소중한요』



이 단원이 다른 학년 및 교과목의 **모범**이 될 만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가족 제시(38~39쪽)와 함께 바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삽화/사진의 제시(2컷), 보육원가족도 가족의 일부분이라는 삽화 제시 부분이다.

이 부분의 교사용 지도서(114쪽)를 살펴보면, 위의, 『대가족과 핵가족, 한 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에 대해 안내하되, ‘할아버지나 할머니와 함께 사는 가족’,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사람만 있는 가족’, ‘외국인이 있는 가족’ 등으로 사진을 보며 설명하고, 학생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다문화 가족, 핵가족 등의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도법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가족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되 서로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여러 모습의 가족이 있으며 이런 다양한 가족의 모습이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함을 강조한다.』고 알려줌으로써 다

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원의 일원인 학생들의 인권 존중을 고려하면서 인권 친화적 관점의 교육을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교과서 서술의 변화는 소수자에 대한 관점에서의 인권친화적인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편견에 치우치지 않은 교과서 속 소수자의 관점을 통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소수자들도 우리의 일부임을 발견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소수자이기 때문이다.

IV 마무리

소수자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기존의 주류 중심적인 시각을 거부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즉 주류의 시각은 소수자를 일탈자, 낙오자, 이상한 사람, 열등한 사람으로 본다. 이 시각에 따르면 소수자는 능력이 모자라서 경쟁에서 진 사람들이며, 사회가 요구하는 ‘정상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인식은 결론적으로 소수자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는 것도, 다수자들과 다른 대우를 받는 것도 능력에 따른 보상이므로 당연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편견을 심어준다.

‘정상’의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다. 즉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바람직한’ 기준들은 매우 자의적이다. 정상, 바람직함, 평균, 표준 등의 범주를 좁게 설정하고 있고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비정상인, 일탈자, 더 나아가서는 범죄자로서 분류하고 있다.

일탈의 허용범위가 좁은 사회는 비정상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많아져 갈등을 겪고, 일탈의 허용 범위가 넓은 사회는 포용력이 있고 관용적인 사회가 된다. 소수자는 비정상인 아니고, 남들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교과서에서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적 관점에서의 인권교육의 원리들이 학습자들에게 의미 있게 전달되기 위하여 대상 아동의 발달단계와 그들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충분히 감안하여 개발되도록 해야 한다.

교과서 속에서의 자연스런 인권에 대한 인식은 학생들의 평등한 사고와 균형있는 의식의 정립이라는 목표에서 더 나아가 인권친화적인 사회 형성을 실현할 수 있고, 아동들의 인권을 보는 시각의 변화와 의식의 확장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강명숙(2009), 『교과서 모니터링 기준과 사례』, 『교과서 안 인권 찾기』, 2009년도 국가인권위원회 교과서 모니터단 발대식 및 간담회 자료집
2. 교육과학기술부(2008a),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I)-총론, 재량활동』, 광주: 한솔사
3. 교육과학기술부(2008b),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II)-우리들은 1학년,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특별 활동』, 광주: 한솔사
4. 교육과학기술부(2009a), 『바른생활 1-1 교과서』, 『바른생활 1-1 지도서』, 서울:(주)두산
5. 교육과학기술부(2009b), 『바른생활 1-2 교과서』, 『바른생활 1-2 지도서』, 서울:(주)두산
6. 교육과학기술부(2009c), 『바른생활 2-1 교과서』, 『바른생활 2-1 지도서』, 서울:(주)두산
7. 교육과학기술부(2009d), 『바른생활 2-2 교과서』, 『바른생활 2-2 지도서』, 서울:(주)두산
8. 교육과학기술부(2009e), 『생활의 길잡이 1-1 교과서』, 서울:(주)두산
9. 교육과학기술부(2009f), 『생활의 길잡이 1-2 교과서』, 서울:(주)두산
10. 교육과학기술부(2009g), 『생활의 길잡이 2-1 교과서』, 서울:(주)두산
11. 교육과학기술부(2009h), 『생활의 길잡이 2-2 교과서』, 서울:(주)두산
12. 교육과학기술부(2009i), 『슬기로운생활 1-1 교과서』, 『슬기로운생활 1-1 지도서』, 서울:(주)두산
13. 교육과학기술부(2009j), 『슬기로운생활 1-2 교과서』, 『슬기로운생활 1-2 지도서』, 서울:(주)두산
14. 교육과학기술부(2009k), 『슬기로운생활 2-1 교과서』, 『슬기로운생활 2-1 지도서』, 서울:(주)두산
15. 교육과학기술부(2009l), 『슬기로운생활 1-2 교과서』, 『슬기로운생활 2-2 지도서』, 서울:(주)두산
16. 교육인적자원부(2007), 『초등학교 교육과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7. 구정화·송현정·설규주(2004),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18. 구정화(2009a),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고려한 학교 인권교육의 방향』, 『사회과교육』, 제48권 1호, pp. 1~12
19. 구정화(2009b), 『교과서 안의 인권』, 『교과서 안 인권 찾기』, 2009년도 국가인권위원회 교과서 모니터단 발대식 및 간담회 자료집
20. 국가인권위원회(2002), 『우리 교과서의 인권이야기』.
21. 박경태(2007), 『인권과 소수자 이야기』, 책세상
22.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2007), 『학교 인권교육 길잡이 - 유엔의 초·중등학교 인권학습활동 안내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적 갈등에 관한 교과서 집필기준

이천고등학교 교사
신 흥 철



사회적 갈등에 관한 교과서 집필기준

이천고등학교 교사
신 홍 철

I 들어가며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를 보면 교과서는 '학교에서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학생용의 주된 교재'라고 정의하고 있다. 교과서는 학습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학생이 탐구해 나가도록 하며, 학습동기를 유발시키고, 또한 학생에게 학습내용을 구조화시키는 등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요구를 충족시켜 개인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체계와 민주시민의 덕목을 갖게끔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그 가치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속에서는 이러한 교과서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는 집필상의 오류나 의도적인 기술상의 왜곡, 공정하지 못한 편향적인 기술 등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사회정의 및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회과 교과를 지도하고 있는 교사로서 교과서속의 반인권적이며, 학생들의 편향적인 가치신념체계를 심어줄 수 있는 교과서 집필상의 오류 및 사회현상에 대한 편향적인 기술들을 접하면서 학생지도의 어려움과 아쉬움을 갖고 있던 중 금번 국가인권위원회 주관으로 활동이 전개된 교사/학생 교과서 모니터링에 참가하였으며,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사회교과를 중심으로 교과서 기술상의 개선방향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사회과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 이를 토대로 사회 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민주 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지님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교과이다.

사회과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민주 시민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바탕으로 인권 존중, 관용과 타협의 정신, 사회 정의의 실현, 공동체 의식, 참여와 책임 의식 등의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고, 나아가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 개인의 발전은 물론, 사회, 국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제7차 교육과정, 교과부 2007).

이러한 사회과교과의 성격에 의해, 사회과의 목표는 사회 현상에 관한 기초적 지식과 능력은 물론, 지리, 역사 및 제 사회 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발견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익혀 우리 사회의 특징과 세계의 여러 모습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며,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현대 사회의 문제를 창의적이며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공동생활에 스스로 참여하는 능력을 기르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발전은 물론, 사회, 국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 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것에 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사회과의 아주 중요한 목표이다. 그리고 이것을 교과서에 담아내어야 하는데 사회과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범하기 쉬운 집필진들의 오류를 <교과서 개발 방향 및 편찬상의 유의점>을 통해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1) 교과서의 성격과 목표를 충실히 구현하여 사회과에서 추구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 (2)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의 이해와 해결에 필요한 탐구력, 의사결정력, 비판적 사고력 등의 고차적 사고력을 기르고 사회 참여의 태도를 습득하도록 한다.
- (3) 중학교 및 고등학교 선택 과목과의 계열성을 고려하고, 고등학생의 일반적인 인지 발달 수준과 경험을 반영한다.
- (4) 현대 사회의 복잡한 현상과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도록 여러 학문의 다양한 관점과 지식을 통합적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 (5) 교실 수업에서 교사가 활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고,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도록 한다.
- (6) **정치적, 종교적, 사회문화적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한다. (특정 지역, 계층, 인물, 성, 상품, 기관, 종교 등을 비방·왜곡 또는 옹호하지 않았으며, 집필자 개인의 편견 없이 공정하게 기술하였는가?)**
 - 교육의 정치적, 종교적, 사회문화적인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공정하고 교육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 특정 정당, 종파, 인물, 인종, 상품, 기관 등을 선전하거나 비방해서는 아니 되며, 남녀의 역할에 대한 편견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7)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현장 교원의 참여와 검토를 통해 실제 수업에 적합하도록 개발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제시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에는 사회현상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게 다루지 못한 경우들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노사갈등, 지역갈등, 시설설치를 둘러싼 정부와 지역주민의 갈등 등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듯하지만, 사용되는 단어, 문구를 통해 혹은 사용되는 논거, 논거의 양에 따라 결코 중립적이지 않아 공정치 못한 경우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중립적이지 못한 기술은 학생들에게 어떤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교과서에서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향후 이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II

공정하지 못한 교과서 집필 사례

1. 부적절한 단어나 삽화 사용으로 인한 불공정 사례

사례1>



이것을 보고 계시던 인호 할아버지께서 마을 사람들을 마을 회관에 급히 불러 모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이자, 인호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개울과 논이 높이가 비슷한 우리 마을은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식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마다 자기 논이 높이를 조금 더 높이 쌓아올리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혜경이 아버지께서 반대 의견을 내셨습니다.

“아닙니다. 앞으로 비가 계속 온다면 개울둑이 넘쳐 논 전체가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도 자기 집 논둑만 높인다면, 힘이 더 들 뿐만 아니라, 논둑이 낮은 집은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초등 도덕 6학년 교과서 p. 52~53〉

위 사례는 초등학교 도덕 6학년 4. 우리학교, 우리 고장에 나오는 사례인데, 학교와 고장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해야 하는 까닭을 알아보는 내용으로 개울둑과 논둑 쌓기에 대하여 마을 사람들 간에 대화하고 있는 사례이다.

그러나 의견을 교환하는 부분에서 혜경이 아버지의 “자기 집 논둑만 높인다면”라는 반대 의견에 따라서 자기 논둑만을 높인 집들이 이기적인 사람들로 보여질 수 있다.

사례2>

4. 지역간 대립

총선 지역 감정 자극 결정

이번 선거에서……각 당의 지역 정서 호소는 전례를 보기 드물다. 지역감정 발언이 극에 달하자 총선 참여연대가 9일 각 당에 **쳐들어가**……지역감정 자극을 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강제로** 받아내는 **준 폭력행위도** 벌어졌다.……

〈고등1 사회 Ⅱ 출판사 p. 181〉

위의 사례는 고등1 사회과목의 VI.시민사회의 발전과 민주시민 3. 사회적쟁점과 합리적 의사결정 단원에서 지역간 대립을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사례를 예시로 든 것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총선 참여연대가 이런 정당의 행태에 문제 제기를 하여 지역감정자극을

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아낸 것인데, 부적절한 언어로 표현하여 오히려 이러한 시민운동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비춰진다.

사례3>

탐구활동
<p>집단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p> <p>다음 사례들을 보고 제시된 질문에 답해 보자.</p> <p>■ 사례 1 이문동 차량 기지 건설 공사</p> <p>철도청이 1997년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국유지에 전동차 1천여 대를 고칠 수 있는 차량 기지를 건설하려 하자 이 지역 주민들은 즉각 반대 운동에 들어갔다. 시민 반대 위원회가 차량 기지가 땅값을 떨어뜨리는 시설이라고 주장하자 근접 지역 주민들까지 함께 반대 운동에 참여했다. 철도청 관계자들은 2년간 주민과 동대문구청, 구의회측과 81 차례나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합의를 보려고 노력했지만 주민들의 반대 운동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은 쉽지 않았다. 철도청은 협상을 이끌어 내기 위해 끊임없는 대화를 하고 <u>건설 부지로 책정된 토지의 일부를 동대문구 내의 학교와 공원 같은 공공 시설을 짓는데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u> 이렇게 많은 보상 비용을 들이고서야 반대 운동은 잠잠해졌다.</p>

〈중등 3 사회 ㄱ 교과서 p105〉

위 사례는 기지건설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철도청과의 협상을 기술한 사례이다.

앞 부분은 철도청과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비교적 사건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잘 기술하였다. 그러나 맨 하단 “이렇게 많은 보상비용을 상비고서야 반대 운동은 잠잠해졌다”라고 기술하고 있어 중립적이기 보다 철도청의 입장을 반영하는 듯한 인상이 짙다.

사례4>



〈고등 1년 사 회 ㄷ 출판사 교과서 p.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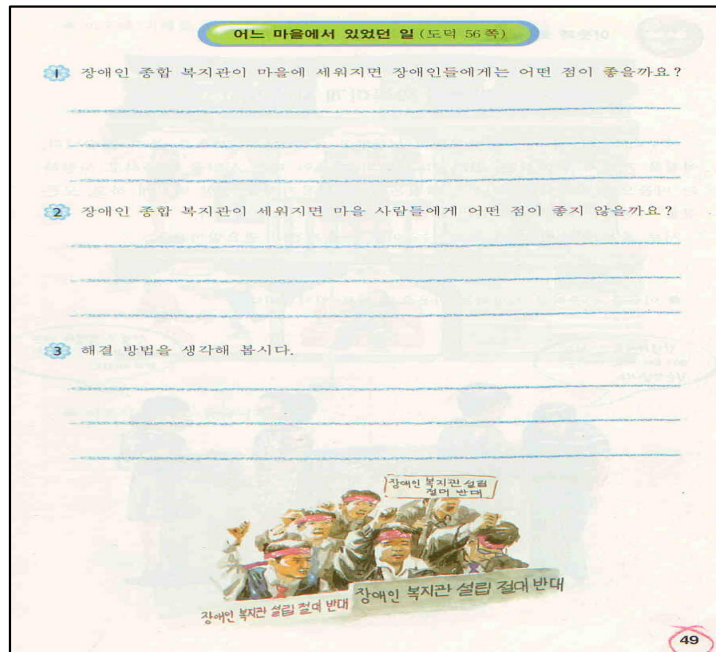
교과서에서는 노사갈등에 관한 내용들이 등장한다. 미래가 촉망되는 학생 중에는 노동자로서 노조활동을 하게 되는 학생도 있을 것이지만, 기업가로서 노조와 협상을 하거나 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해야하는 상황들이 있게 되니, 노사갈등에 대한 교육은 민주시민사회에서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할 자세일 것이다.

그런데 실제 교과서에서는 노사갈등을 다루면서도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와 관련된 사진은 많이 실지만,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언급이나 사진 등을 수록하지 않는다.

위 사례는 고등1학년 사회과 VIII. 정치생활과 국가 1. 현대정치의 과제 단원의 탐구활동에 나오는 사진이다. 이 사진에서처럼 교과서는 노사갈등을 표현하면서 노동자 집단의 쟁의행위만 부각시켜 노동자집단의 쟁의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심어줄 우려가 있다. 최소한 갈등이 발생하는 대립되는 세력들을 형평성 있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말이다. 혹은 노사협상과정을 제시할 수도 있을 법한데 말이다.

2. 불리한 논거 제시로 공정하지 않게 기술하는 사례

사례5>



〈초등5 도덕 생활의 길잡이 p.57〉

위의 사례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세우려는데 마을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례를 읽고 해결방법을 생각해 보는 내용이다.

그러나 질문은 『장애인 종합 복지관이 마을에 세워지면 장애인들에게는 어떤 점이 좋을 까요? 장애인 종합 복지관이 세워지면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점이 좋지 않을까요?』라고만 물어보고 있다. 이미 질문 자체에 장애인에게는 좋은 반면, 마을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출발한 질문으로 질문 자체가 대등하지 못하다. 다른 것도 아닌 도덕교과이므로 공익을 위해 사익을 감내해야하는 쪽으로 답이 도출될겠지만, 애초 질문부터 공정하지 않고 있기에 학생들에게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러한 지역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건강한 시각을 갖기 어렵게 한다.

사례6>

탐구 활동

- 다음 자료는 혐오 시설과 관련된 지역 사회 주민들과 지방 자치 단체 간의 갈등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고 아래의 활동을 해 보자.

우리 동네에 쓰레기 처리장이 들어서면 집값과 땅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동네에는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 수 없다고 한다면, 매일 집집마다 나오는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 (1) 위 그림에서 문제가 되는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 (2)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중 위와 같은 사례들이 있는지 조사해 보자.
- (3) 만일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위와 같은 문제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토의해 보자.

〈중등1 사회 ㅈ 출판사 p32〉

위의 사례는 중등1 ㅈ 출판사의 사례이다. I. 지역과 사회탐구 4. 지역사회와 해결 단원의 사례인데, 갈등에 사용된 논거 자체가 불리하게 제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하게 하는 사례이다.

혐오시설 자체가 집값과 땅 값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만 기술하고 있는데, 쓰레기장과 같은 혐오시설은 공기가 나빠지거나 건강상의 이유도 반드시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렇게 집값, 땅값 등의 경제적 사유만을 들어, 쓰레기장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 모두는 공익보다는 사익만을 앞세우는 것처럼 비춰지게 하고 있다.

3. 집필자의 잘못된 정보로 인한 공정치 못한 기술

사례7>



<고등 시민윤리 교과서 p.20>

고등 시민윤리 교과서에 나오는 사례인데, 넘비와 핍피현상을 가르치는 내용이다. 그런데 우측 주민 공공도서관 확충,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를 핍피현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집필자가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일 수 있다. 핍피현상이라 함은 대체적으로 지역주민에게 경제적 이익이 반사적으로 생기는 현상이다. 주민 공공도서관이나 지역편의시설 도모 등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주민의 당연한 요구일 수 있다. 더욱이 지역별로 지역편의시설에 따라 지역주민의 삶이 달라지고 있는 요즘 이와 같은 지역주민의 요구는 너무 당연하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요구(행복추구권 추구)이기도 할 것이다.

이는 피켓의 내용이 '첨단산업단지 유치' 등 경제적 이익이 되는 것으로 바꾸거나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지역주민의 재산적 가치나 경제적 이익과 배치된다는 이유만으로 대립되는 상황을 묘사한 삽화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례8>

〈하단 마지막 줄〉
마지막으로는 중재 위원회를 통해 중재하는 등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극 개입한다.**

〈고등1. 사 회 ㄷ 출판사 p.200〉

위 사례는 고등1 사회 VII.정치생활과 국가 2.사회적쟁점의 정치적 해결과정 단원에 내용이다. 제시된 내용은 중재의 방법 중 강제중재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현재 강제중재는 폐지되었음.-노사양측의 자율적 판단과 노력을 통한 갈등해결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자의적이고 강제적인 문제해결을 강조하는 듯한 표현으로 정부의 지나친 정책적 고려에 의해 노동자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소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재 위원회를 통해 중재하는 등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개입하여 원만하게 노사갈등을 해결하기위해 노력한다.

III

집필방향에 대한 제언

교과서는 학생들의 지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며, 가치관 및 신념체계를 형성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자료이므로 교과서 집필에 있어서 집필진이 의도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세심하게 고려하여 집필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의 심리발달단계까지 고려하여 교과서의 내용을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 교과서 내용의 습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치신념체계의 오류를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집필자에게 몇 가지 제언을 한다면 아래와 같다.

첫째, 사용되는 단어나 문구 등을 사용함에 있어 철저하게 중립적이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어는 그야말로 ‘아’하는 것과 ‘어’하는 것이 천양지차이다. 자신의 의도는 중립적이었고, 공정했다고 하지만, 사용되는 단어, 문구 하나로 어느 한쪽으로 쏠리거나, 쏠리게 보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갈등 사례에 있어서는 갈등의 결과로 시위 등을 중심으로 기술보다 갈등을 풀 어가는 과정 중심으로 기술할 것이다.

셋째, 대표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지역협오시설 반대사례 등을 기술함에 있어서도 불리한 논 거를 제시해서 결과적으로 불공정하게 보이지 않도록 한다. 흔히 쓰이는 협오시설, 지역시설 설 립을 둘러싼 갈등에서 땅값, 집값 하락만을 내세워 지역주민 모두가 경제적 이익에 눈이 먼 사 람들로만 보이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

IV 마무리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의 대부분의 시간을 교과서라는 학습교재를 바탕으로 수업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교과서를 매개로 학생은 수업과정에서 지적, 정의적, 신체적 발달단계에 맞는 국가,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가치체계 및 신념, 지식 등을 배우게 된다. 학생들은 교과서 에 기술되어있는 내용에 대해 매우 신뢰수준이 높아 교과서 속에 숨어있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숨은 의도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갈등의 긍정적 측면을 배제하거나 축소시키면서 부 정적인 측면을 인식하도록 조장하거나 권력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려는 기술적인 글의 표현들이나 삽화를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배양하지 못했다.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교사들도 교과서의 재구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갖게 되는 편향적인 시각은 고착화되어 사회의 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비인권적인 요소가 자연스럽게 학습되고 사회화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교 과서 집필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비인권적인 기술내용을 원천적 으로 차단하여야 할 것이며, 2차적으로는 교수-학습과정에서 교사의 교과서 재구성을 통한 지 도를 통해 모든 사람의 권익이 신장(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과서 모니터링을 통해 비인권적, 반인권적 요소를 찾아내고 제거하는데 노력하며 학생들의 인권의식과 바른 가치체계를 정립시켜 개인의 발전은 물론 사회, 국가발전 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인권적, 국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교과서

대평고등학교 교사
노 의 환



인권적, 국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교과서

대평고등학교 교사
노 의 환

I 들어가며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사회를 바라보게 하는 관점을 길러주는 텍스트이다. 그렇기에 성, 인종 등에 있어서 고정관념에 의하거나, 편견 없는 기술이 요구되고, 사회갈등에 있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기술을 요한다.

또한 내용에 있어서도 인권을 고려하고 있는가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내용 자체에 '자유, 평등, 인간존엄성 등 인권 목록을 담고 있느냐', 또는 '인권 목록이나 내용을 기술하는데 있어서도 적절했느냐'는 교과서가 인권 친화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라 할 것이다. 또한 직접적인 내용은 아닐지라도 다른 교육목적을 위해 '활용된 소재가 인권적인가?' 하는 문제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인권에 대한, 인권에 의한, 인권을 위한 교육)

유엔에서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제1차 시기(2005~2009)동안 초·중등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주요 핵심은 초·중등 교육과정에 권리에 기반한 인권교육(Rights-Based Approach), 다수의 국제협약에서 포함시키고 있는 인권교육에 관한 권리를 국가 내에서 이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세부적인 인권교육의 요소와 인권교육활동의 원칙 등을 소개하고 있다(유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2005).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행 교과서에는 이러한 국제사회가 제시하고 있는 「인권」 단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사회과의 '서양 근대사회의 발전'이나 '현대사회', '민주시민' '개인과 사회의 발전' '사회생활과 법규범' 등의 단원 속에서 산재되어 있을 뿐이다.

현행 교과서를 모니터링하면서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낀 것이 바로 이 점이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다수의 조약에 가입되어있고, 유엔 회원국(우리나라는 유엔인권이사회 의 이사국이기도 하다)이면서도, 이에 대한 교육단원이나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나마 2009 사회과 교육과정에 「인권 및 사회 정의와 법」 단원이 생성되어 개정된 교과서에 반영될 것이라 기대를 품어본다.

그렇기에 이번 파트에서는 교과서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인권적 관점에서 교과서거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없는지, 극히 드물지만 인권목록이나 국제 인권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내용들은 어떻게 기술되어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이 작업은 2009 개정 교육과정 「인권 및 사회정의와 법」 단원에도 발전적인 제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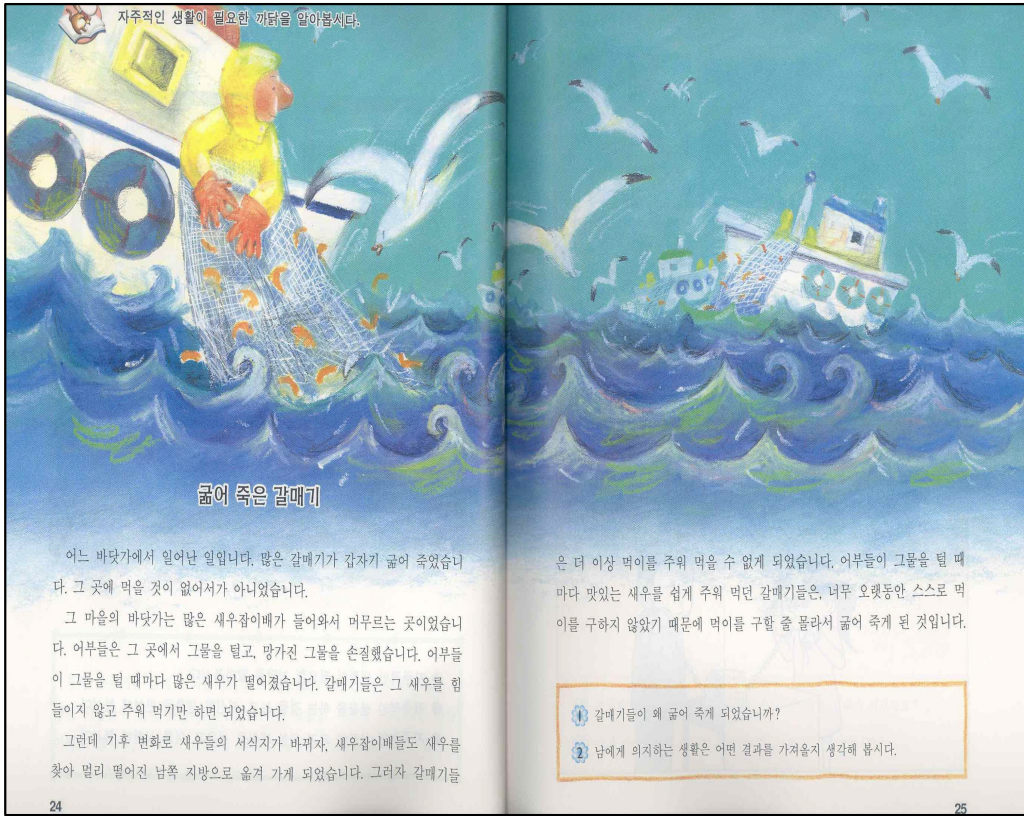
II

인권적, 국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교과서 사례

1. 인권적 관점이 고려되지 않은 교과서 소재

인권에 있어 가장 우선되는 철학과 원칙을 꼽으라고 하면, 세계인권선언 제1조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 존엄성'일 것이다. 그 중 인간존엄성이란 누구든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뜻일 것이며, 어떠한 생명이던 고귀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교과서에서 몇몇 발견되는 사례들은 인간존엄성이란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즉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다지 인권적이지 않은 소재나, 예화가 사용되어 결과적으로 인간존엄성이나 생명존엄성을 경시할 소지가 있었다.



굶어 죽은 갈매기

어느 바닷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많은 갈매기가 갑자기 굶어 죽었습니다. 그 곳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아니었습니다.

그 마을의 바닷가는 많은 새우잡이배가 들어와서 머무르는 곳이었습니다. 어부들은 그 곳에서 그물을 털고, 망가진 그물을 손질했습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털 때마다 많은 새우가 떨어졌습니다. 갈매기들은 그 새우를 힘들이지 않고 주워 먹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후 변화로 새우들의 서식지가 바뀌자, 새우잡이배들도 새우를 찾아 멀리 떨어진 남쪽 지방으로 옮겨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갈매기들

은 더 이상 먹이를 주워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털 때마다 맛있는 새우를 쉽게 주워 먹던 갈매기들은,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먹이를 구할 줄 몰라서 굶어 죽게 된 것입니다.

- 1 갈매기들이 왜 굶어 죽게 되었습니까?
- 2 남에게 의지하는 생활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 봅시다.

〈초등 4-1 도덕 교과서 p.24~25〉

위의 사례는 초등 4-1 도덕교과서에 어부들에 의존해서 살아온 갈매기들이 결국 어부들이 떠나 굶어죽었다는 예화인데, 학생들에게 자주적인 삶을 강조하게 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자주적인 삶은 인간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자세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자주적 삶을 이끌어내는데 반드시 이렇게 고귀한 생명이 죽어가는 사례를 들었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어떠한 경우, 그것이 하물며 사람이 아닌 동물일지라도 죽어가는 생명을 빗대어 학습을 하게하는 것이 적절할까 하는 의구심이다. 아주 극한 상황을 제시해놓고 '~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에게는 경고 혹은 위협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더욱이 이 예화에서 갈매기가 자주적 삶을 포기하게 된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갈매기의 의지'이기보다 '새우잡이 하는 인간' 때문이기에 적절한 예화라고 보기도 어렵다.



법과 규칙을 잘 지키려는 마음을 다져 봅시다.

모두가 교통스럽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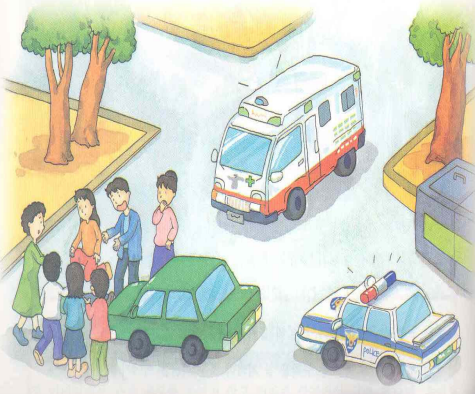
“끼익!”

귀를 찢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과제 자료를 찾고 있던 재록이는 온몸에 소름이 끼치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이고, 또 사고 났구나.’

창문을 열고 사고가 난 쪽을 바라보니 사람들이 몰려들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사이렌을 울리며 119 구급차가 오고 경찰차도 왔습니다.



그 때, ‘딩동’ 하고 초인종 소리가 났습니다. 재록이는 어머니임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 드렸습니다.

“재록아, 집에 있었구나. 아이고! 가슴 떨려.”

얼굴이 창백해진 어머니께서는 가슴을 쓸어 내리더니, 재록이를 포옥 껴안으며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재록이 너만 한 남자 아이 둘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실려 갔다는데, 얼굴을 많이 다쳐서 누구네 집 아이인지 알 수가 없다는구나. 놀라서 뛰어오는데, 다리가 떨어져 잘 걸을 수도 없고 말도 잘 안 나오더라. 킥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옆길에서 급하게 달려나오던 차에 치였다는구나. 누구네 아이일까?”

어머니께서 긴 한숨을 내쉬면서 부엌 쪽으로 향하시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옆집 경찰이 어머니였습니다.

“우리 경찰이 여기 안 왔나요?”

경찰이 어머니는 경찰이도 안 보이고 킥보드도 없어졌다며 창백해진 얼굴로 돌아가셨습니다.

재록이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어머니께서는 얼굴이 파래졌습니다.

“재록아, 골목길에서 사고를 당한 아이가 경찰이라는구나!”

어머니께서는 급히 나가시더니, 잠시 후에 경찰이 여동생 경연이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재록아, 가까운 병원 응급실에 있다가, 같이 가 보자.”

“네. 그런데 경연이도 같이 가나요?”

“함께 가야지.”

경연이는 영문도 모른 채 눈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밖에서 경찰이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너무 많이 다쳐서 의사 선생남도 걱정이에요.”

경찰이 어머니는 경연이를 안고 응급실로...

〈초등 6 도덕 교과서 p.74~75〉

위 사례는 초등6학년 도덕교과서에서 학생들에게 교통법규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시된 예화이다. 예화의 내용은 법규를 지키지 않아서 아동이 사고를 당하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교통스럽다는 내용이었다.

법과 규칙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은 초등학교 도덕교과에서 당연히 교육되어야 하지만, 어린이의 교통사고라는 너무 극단적인 상황으로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인권적이지 못한 예화로 교육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고등 1 사회 Ⅱ 출판사 교과서 p.191〉

위 사례는 고등1 사회과의 『Ⅶ.정치생활과 국가 - 1.현대정치의 과제』 단원에 삽입되어있는 사진이다. 이 사진으로 현대 정치생활에서 다양한 참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상징해보려고 한 의도는 파악되나, 운동경기에서 충돌 장면을 삽입함으로써 자칫 ‘갈등=불건전’ 혹은 ‘갈등=폭력’을 연상시킬 우려가 있다. 기왕이면 충돌하는 장면보다는 협의하거나, 조정, 중재를 상징하는 사진이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2

인간의 사회 생활



영화 '타이타닉'의 한 장면

1912년 4월 14일 일요일 밤.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 호는 저녁 항해 도중 유럽과 아메리카를 연결하는 북대서양 항로에서 빙산에 부딪혀 침몰했다. 이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승객과 승무원들을 포함하여 전체 인원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700여 명 정도였다.

이 때, 선장, 갑판원, 항해사, 승객 등이 보여 준 다양한 행동에 대해, 후세 사람들은 영웅이라고 칭찬하기도 하고 비겁한 행동이라고 비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칭찬과 비난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일까?

그리고 1등석 승객은 2등석과 3등석 승객에 비해 훨씬 생존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현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이 단원에서는

- 지위와 역할, 사회 조직과 관료제, 사회적 불평등 현상 등 사회 생활의 원리와 현상을 인식하는 데 기본이 되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사회 구성원과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중등 사회 Ⅸ 출판사 교과서 p.156 >

위 사례는 사회생활의 원리와 현실을 인식하게 하는 『인간의 사회생활』 단원에 예화로 제시된 침몰한 타이타닉호 예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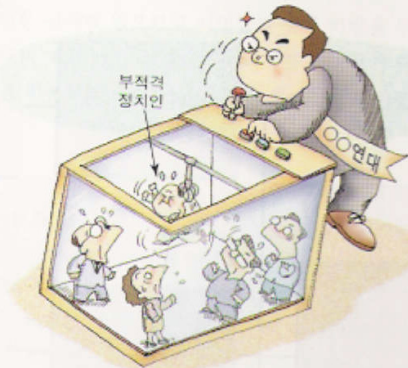
사회적 불평등 현상, 원인, 문제 해결방안을 학습하는 것이 목적인데, 예화로 타이타닉 호 사고에서 1,2,3 등석에 따라 생존비율이 높았던 것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의 소재로 삶과 죽음을 사례로 채택하는 것은 부적절할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사회적 불평등을 알게 하기보다 '경제적 부가 삶과 죽음까지 좌우할 수 있구나'하는 생각을 갖게 해서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소지가 높다.

3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 활동

2000년 1월 12일, “부패·무능 정치인을 몰갈이해 모든 사회 개혁의 길잡이가 되는 정치를 개혁하겠다.”라는 이념으로 ○○ 시민 연대가 발족하였다. 이 연대에는 정치, 환경, 여성, 교육, 소비자 등 각 분야 사회 단체와 종교계 등 전국의 412개 시민 단체가 참여하여 전국적인 유권자 운동 단체로 출발하였다.

○○ 시민 연대는 부정 부패, 비리 관련 등 일곱 가지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전국의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부적격자를 골라 내어 공개하였다. 4·13 총선 결과, 낙선 운동 대상자 86명 중의 68.6%인 59명이 낙선하였으며, 집중 낙선 대상자 22명 중의 68.2%인

4 부적격 정치인 가려 내기



〈고등 1년 사회 ㄷ 출판사 p.211〉

위 사례는 「Ⅶ. 정치생활과 국가 - 2. 사회적 쟁점」의 정치적 해결과정 단원에 부적격 정치인 가려내기에 제시된 삽화이다. 부적격 정치인을 가려내는 것을 상징적으로 잘 그려내기는 하였으나, 마치 사람을 물건과 같이 물건 뽑기로 비유하고 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사람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은 교육소재로 적절치 못하다.

많은 사람들이 남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공정하지 못하며, 준법 정신이나 책임감이 약하고, 정직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들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장에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하면 이것이 나중에는 더욱 큰 손해를 가져다주게 된다. 그 결과 사회가 더욱더 무질서하고 살기 힘들게 되며 마침내 모든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고등 윤리와 사상 p.40〉

위 사례는 고등 윤리와 사상 과목 「I 윤리와 사회 사상의 의의 - 2 자아실현과 인격완성」 단원의 민주사회의 덕목에 제시되고 있는 지문이다. 지문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남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 정직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다. 더욱이 모든 사람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은 학생들로 하여금 인간이나 인간의 행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할 우려가 짙다.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로자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이것은 바로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부단히 계발하고 직업생활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현대 사회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을 가진 후에도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직업생활에서의 게으름은 단순히 나쁜 습관일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 근로자는 직업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적 역할을 분담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직업생활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 삶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성공적인 직업생활은 그 자체만으로도 자신의 삶을 보람 있고 의미 있게 가꾸어 줄 수 있다. 그것은 마치, 지금의 나 자신이 학교 공부가 잘 되고, 가족이나 친구 관계가 원만하며, 취미생활도 만족스럽게 이루어질 때에 느끼는 행복감과 같은 것이다.

〈 중등 2 도덕 교과서 p.137〉

위의 사례는 중등 2 도덕 과목 『근로자와 기업인의 화합과 협력』에 기술되어있는 지문이다. 성실한 직업생활을 교육하기 위한 단원으로 누구나 성실하게 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적절한 일에 뒤따르는 휴식과 쉬운 인간의 권리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술로 휴식의 권리, 쉼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지게 할 소지가 크다.

2. 우리나라 교과서 안에서의 인권

1)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편중

앞서 밝힌 대로 현행 교과서에는 자유, 평등, 인간 존엄성 등의 인권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술한 단원은 없다.

그렇기에 현행 중2, 중3 교과서에서 인권과 관련된 단원들을 추출해보았고,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기술해보았다(중1 사회과정은 지리에 해당).

<중2 사회> 인권 연관 단원	주요핵심내용
2. 서양 근대사회의 발전과 변화	프랑스 혁명과 인권 선언, 자유주의의 발전
3. 아시아 사회의 변화와 근대적 성장	아시아의 근대화 운동
5. 현대사회와 민주시민	시민의 사회참여와 민주시민
6. 개인과 사회의 발전	사회조직과 불평등
7. 사회생활과 법규범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중2 사회> 인권 연관 단원	주요핵심내용
1. 민주정치와 시민참여	민주주의, 시민의 정치 참여
4. 현대사회의 변화와 대응	세계 사회의 공동체 의식, 인간의 존엄성
5. 자원개발과 공업발달	환경오염 문제
7. 지구촌 사회와 한국	국제적 협력과 국제 활동 참여, 남북통일

* 중 2, 3 학년 사회과 목차(ㄱ 교과서)

위의 인권적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단원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우리 교과서에서 주로 다루지고 있는 인권목록을 도출해보면, 자유, 평등, 인간존엄, 참정, 환경, 연대 등의 목록이라고 분석될 수 있다.

권리목록을 크게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로 구별해볼 때,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부분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으며, 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로 귀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사회과가 '민주시민의 육성'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지만, 오늘날 사회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균형적인 접근이 요구되기도 한다.

2) 인권에 대한 얇은 교육


혁명의 전개

삼색기 : 자유(청) · 평등(백) · 박애(적)

1 인권 선언 선포 1789.8.26.


인권 선언은 인간의 자유와 평등, 국민 주권 등 혁명의 기본 정신을 밝힌 문서죠.

영국의 권리 장전, 미국의 독립 선언과 함께 근대 민주주의 발전의 공신이지요.




2 베르사유 행진 1789.10.5.

루이 16세가 인권 선언을 무시하고, 무력으로 국민 의회를 탄압하자, 분노한 시민들이 베르사유 궁전으로 행진하여 국왕 가족을 파리로 끌고 왔다.



3 국왕의 도피 사건 1791.6.20~21.

루이 16세와 그의 가족은 프랑스를 탈출하여 오스트리아로 가려다 국경 지대 바렌에서 혁명군에게 붙잡혔다. 이들은 파리로 돌아와 궁에 갇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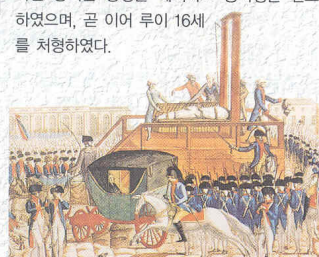


4 입법 의회 구성 1791.10.1.

국민 의회는 입헌 군주제 헌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여 입법 의회를 구성하였다.

6 공화정 선포 1792.9.21.

국민 공회는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선포하였으며, 곧 이어 루이 16세를 처형하였다.



5 국민 공회 소집 1792.9.20.


국왕이 외국으로 도피하려다 실패하고 입헌 군주제가 성립하자, 놀란 이웃 나라의 군주들은, 혁명의 전파를 두려워하여 프랑스와 전쟁을 일으켰다. 이에 혁명은 더욱 과격해져 입법 의회가 해산되고 국민 공회가 소집되었다.

8 총재 정부 수립 1795.10.27.

공포 정치는 시민들의 큰 불만을 샀고, 로베스피에르가 반대파들에게 처형된 후 국민 공회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여 총재 정부를 수립하였다.

7 공포 정치 실시

국왕의 처형에 놀란 영국과 오스트리아 등 주변국은 동맹을 맺고 프랑스를 공격하였다. 로베스피에르는 혁명 정부를 조직하여 농민의 봉건적 부담을 폐지하고, 물가를 억제하는 등 혁신적인 개혁을 단행하여 외국의 침략을 물리쳤다. 그러나 혁명에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하는 공포 정치를 실시하였다.



〈중2 사회 ㄱ 출판사 p.61〉

위의 사례는 「서양 근대사회의 발전과 변화」 단원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이다. 비교적 서양 근대사회 발전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단원의 주요한 목적이 근대사회 발전사이에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학습할 기회들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도 서구

62 인권 친화적 교과서 집필기준 모색을 위한 워크숍

중심의 권리 발전사를 학습하다보니, 권리를 ‘서구의 산물’이라 생각하기 쉽고, ‘서양 중심적’ 사고를 갖게 할 우려도 있다.

권리에 대한 부분은 「사회생활과 법규범」 단원에서 다루고 있으나, 주로 국내법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지고 있다. 또한 「세계화」 단원은 세계화의 흐름을 소개하거나, 경제, 문화교류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국제기구나 국제적인 연대를 학습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선택과목인 『법과 사회』 과목은 비교적 생활과 관련된 법률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국내법을 중심으로 한 학습이기에 국제 인권조약이나 협약과 관련된 내용은 몇 개 단어 속에서만 발견된다. 국제기구에 대한 언급도 유엔의 설립, 목적, 과제만 개괄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서 그 비중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러 단원에 산재해있다 보니, 인권 목록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인권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학습의 기회를 얻기 어렵다.

엄밀하게 말하면, 인권의 내용이 교과서 안에서 찾기 어려운 것은 교과서 집필자들의 책임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한계 때문일 것이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 탐구활동이나 심도학습 등을 통해서 다루고 있는 사례들이 오히려 눈에 띈다.

아래 사례는 극히 보기 드문 예지만 중등3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의 역할』 단원에 탐구활동에 실린 자료이다.

탐구 활동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연도	사회권 조약 비준국 (개국)	자유권 조약 비준국 (개국)
1970	11	11
1980	65	64
1990	97	91
2001	153	152

- 자료 : 국제 연합 -

현대에 들어 시민들은 제 1·2차 세계 대전 중에 인간의 기본적 인권이 철저히 무시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다.

시민들은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세계 인권 선언(1948)이 발표되었고, 뒤이어 각국 정부는 인권에 대한 국제적 약속인 사회권 조약(1966)과 자유권 조약(1966)에 비준하였다. 이처럼 현재 많은 국가들은 기본적인 인권의 보장을 인류의 과제로 인정하고 있다.

1. 세계 인권 선언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 배경을 조사해 보자.
2. 위 표에서 국제 조약에 비준한 국가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를 찾아 그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조사해 보자.

〈중등3 사회 Ⅱ 출판사 교과서 p. 10〉

비교적 짧고 간결하지만 세계인권선언의 탄생 배경과 자유권, 사회권 규약의 언급, 그리고 비준국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기술하고 있다. 다만 자유권이나 사회권 조약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었다면 아쉬움이 남는다.

국가 인권 위원회는 2001년 11월 26일 출범한 독립기구로,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며, 궁극적으로 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인권위원 10인(상임위원 3인, 비상임 위원 7인)으로 구성되며, 사무처 부서는 사무총장 아래 인권 정책국, 행정 지원국, 인권 침해 조사국, 차별 조사국, 교육협력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업무는 수사 기관의 인권침해와 차별 행위에 대한 진정 접수 및 조사, 관계기관에 대한 시정권고, 인권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 지방자치 단체 또는 구급, 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 대우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진정을 낼 수 있으므로 국가 인권 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은 사회적 약자 및 소수를 보호하고 국가 공권력에 대한 견제·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다른 정부 기관의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다른 기관의 협조 없이는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수사중이거나 종결된 사건에 대한 조사권을 배제했다는 점 등이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 있다.

〈고등 사회 B 출판사 교과서 p. 308〉

위의 사례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에서 보기 드물게 국가인권위원회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고등 사회 『한국 사회의 문제와 발전 - 인간이 존중되는 세상』에 <요모조모>라는 코너에 소개된 내용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가 2002년에 출판되었고, 당시 출판된 교과서 대부분에 국가인권 위원회에 인용되지 못한 것에 비한다면, 출판사측이 상당히 부지런하고, 능동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기구로 유엔에 의해 권고되었고, 시민들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배경을 덧붙였다면, 우리나라 인권과 시민사회운동의 성장을 느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 '양심적 병역 거부' 공방 : 양심적 병역 거부는 병역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 악이라고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특정 종교나 윤리적 확신에 따라 전쟁에 참가하는 것을 반대하는 자에게 병역을 강제한다면, 그것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근거로서 형평성의 문제, 분단 상황에 있는 국가 안보의 문제, 선정의 모호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사형 제도 존속·폐지' 공방 : 사형 제도 찬성론자들은 중대한 범죄나 잔인하고 포악한 범죄에 대처하고 국가적 질서 유지와 인류 문화의 유지를 위해 사형 제도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형 제도 폐지론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에 부응하고 형벌이라는 미명하에 행해지는 '또 하나의 살인'을 막기 위해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등 윤리와 사상 p.48〉

위의 사례는 고등 윤리와 사상 과목의 『사회적인 삶과 사회 사상의 필요성』 부분에 삽입된 사례이다. 현재까지도 쟁점이기는 하지만, 당시에도 쟁점이었던 사형제와 양심적 병역 거부 공방을 담으면서 학생들에게 각자의 의견을 토론해보게 하는 아주 좋은 사례이다. 다만 사형제나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국제 사회의 흐름들을 덧붙였으면 하는 점이 아쉬움을 남는다. 이 사람들은 이미 유엔에서 우리나라에 폐지를 권고하거나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한 사안들이다. 학생들에게 국제적 인권감을 익히고, 올바른 정보 하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게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3. 프랑스 교과서 안에서의 인권

우리나라 교과서 안에서 인권을 찾는다는 것이 무척 어려운 문제인 듯해서, 프랑스 교과서 예를 들어보고자 한다.

<중2(5e) 공민교육> 인권연관 단원	<중3(4e) 공민교육> 인권연관 단원
1. 평등의 쟁취 - 이 세상에서 평등 쟁취하기 2. 법 앞에서의 평등	1. 집단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 - 서로 다른 성질의 권리 - 개인 종교의 자유와 프랑스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 3. 차별과 싸우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에 반대하는 발의 4. 남성과 여성 사이의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평등 5. 인간의 존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의 희생양인 어린이 8. 일상생활에서의 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에서의 연대 9. 프랑스에서의 사회적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제도 10. 국제적 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GO의 활동 15. 중대한 재해를 알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해의 위험 16. 중대한 재해에 대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다의 공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운로드의 자유와 지적재산권 - 통행의 자유와 파업을 할 권리 - 법에 의해 보장되는 자유와 권리 - 개인과 집단의 자유와 권리 - 민주주의 내에서의 자유와 권리 3. 법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죄의 추정과 소송에 대한 권리 - 법과 개인의 권리존중 - 조사를 받는 미성년자의 권리 - 법의 구조와 청원하는 방법 - 미성년자의 특별법에 대한 권리 5. 공동의 가치와 유럽의 국적의 시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시민의 가치, 권리, 의무 - 건설하고 보존해야 할 공동 구역 - 연대적인 공간을 건설하려는 의지 - 인권의 수호 6. 국적과 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과 연관된 위험에 처한 EU - 유럽의 소수 민족 보호
---	---

프랑스 교육과정을 우리나라와 대등한 선에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프랑스 교육 『공민교육 (Education civique)』 교과를 볼 때 첫째, 인권 관련 단원이 많다는 점 둘째, 권리목록으로 볼 때, 자유, 평등, 존엄, 사회보장, 연대, 환경, 법률적 권리 등 다양한 목록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셋째, 상당히 구체적이면서도 학생들 자신과 관련된 인권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또한 덧붙인다면 국제 사회, 유럽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상당히 중요하게 학습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과정에서만 차이만은 아니다. 아래는 프랑스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Hachette(2003)에 나오는 사례이다.

세계 속에서 평등을 쟁취하기

교과서에서 평등의 원칙을 명시하는 것은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은 충분치 않다.

1948년에, 유엔은 모든 인간의 평등을 선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어떤 회원국들은 피부색과 성(性)과 개인의 종교에 따라 다른 법을 만들었다.

그밖에도,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정(1989)에 따르면, 정부는 아이들에게 초등학교에 가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가난한 나라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초등교육을 접하지도 못한다.

〈자료 1〉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 1장 내용

〈자료 2〉 남아프리카 초등학교생들 사진(백인과 흑인아이들이 섞여 있는 학교)

부연설명: 1991년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공식적으로 백인과 흑인 분리를 실시했다. 그들은 다른 곳에 살아야했고 다른 곳을 다녀야했다. 그리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지 못했다.

〈자료 3〉 작업장에서 일하는 아이 (콜롬비아) 사진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1989) 네 32조를 인용하여 이 사진의 아동착취가 잘못된 것임을 말하고 있음

〈중2(5e) Hachette, p8〉

1. 유엔은 평화와 인간의 권리를 수호한다.

a. 유엔헌장(1945) (발췌)

〈참고자료〉

서문

- 우리 연합국 국민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결심한다.
 - 우리 일생 중에 두번이나 인류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가했던 전쟁의 참화에서 다음세대를 보존할 것.
 -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평등권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천명할 것.
 -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힘을 합할 것.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노력을 결집할 것을 결의하였다.

제 2조 - 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한다.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 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부여하지 아니 한다.

1. 유엔의 원칙과 목적은 무엇인가?

b.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이 결의는 15개국의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1441호 결의안(2002년 11월 8일)

안전보장이사회는

- 이라크에게 무장해제에 관해서 의무를 이행할 마지막 기회를 줄 것을 결정한다. 이라크가 화학무기, 생물학무기와 핵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에 관한 모든 프로그램을 정확히 밝히는데 30일을 준다.
- 유엔감시단이 즉각, 그리고 어떠한 제동도 받지 않고 모든 구역, 시설, 무기, 운송 수단 등에 접근할 것을 결정한다.
- 유엔감시단이 이야기를 듣고자하는 관리들이나 기타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을 결정한다.

1. 이라크는 어떤 의무를 따라야 하는가?

〈중4(3e) Hachette. p28〉

지면상의 관계로 모두 소개할 수 없지만, 이 사례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프랑스 교과서에서는 국제 사회의 다양한 상황과 국제관계속에서 인권을 이해시키고, 생각해보고, 이를 비판적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유럽통합에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엔이나, 국제사회, 국제인권규범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학령기에서부터 이런 국제적인 사고와 규범을 비판적으로 학습한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과의 사고의 차가 클 것이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III

집필자에 대한 제언

이상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지만, 다시 집필자들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우선 교과서 소재나 내용에 있어 자유, 평등, 인간 존엄성에 반하는 혹은 이를 반영하지 않는 사례는 아닌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반드시 인권과 관련된 내용은 아닐지라도, 앞서 보았듯이 소재나 내용 자체에 인권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신중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 해도 소재 등이 반인권적이라고 한다면, 교육효과는 높을지 모르지만, 그에 반한 역작용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인권단원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2009 사회과 개정 교육과정에 의하면 인권 단원이 법 단원과 함께 통합되어 있기는 하나, 인권의 많은 부분이 실질적으로 법과 연결되어있기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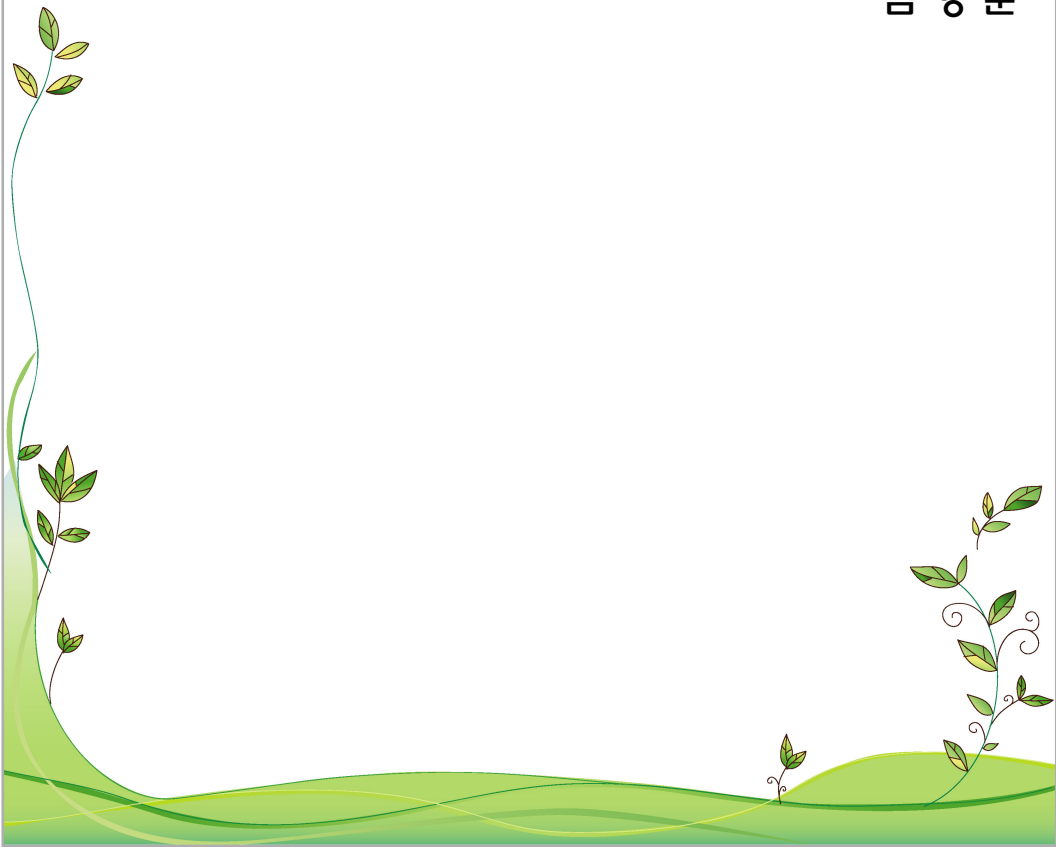
1. 우리사회의 인권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담고, 인권 내용을 다룰 때 인권 침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2. 법과 인권 단원의 내용을 가급적 국내에 한정하기보다 국제적 관계에서 거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다루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적 인권 상황이나 인권에 대한 협약이나 제도를 다루어서 국제적 인권감각을 익힐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3. 인권 내용을 다룰 때 학생 수준에서 경험하는 인권 상황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두발이나 소지품과 관련된 사안들은 학생 수준에서 경험하는 좋은 인권상황 일 것이다.
4. 인권의 다양한 목록을 충분히 고려되도록 기술하도록 한다. 시민적, 정치적 자유권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에 대해서도 고르게 기술되도록 한다.

특히 이러한 사항들을 기술하면서,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축적해오고 있는 우리나라 인권 지표라든가 주요 진정 및 결정문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인권에 관한 결정은 인권교육에 좋은 주제이고 소재가 될 수 있음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이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자체의 노력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청소년의 입장에서 바라본 교과서

다산학교 1학년
김형준



청소년의 입장에서 바라본 교과서

다산학교 1학년

김형준

I 들어가기

우리들은 학창시절을 통해 청소년기의 정석이라고까지 볼 수 있는 ‘교과서’를 공부한다. 이 교과서는 학창시절의 자아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학생들이 가장 오랜 시간 여러 번 보는 책이 바로 ‘교과서’다. 하지만 이러한 교과서를 읽다 보면 한번쯤 고개를 갸우뚱 하며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해 본적이 있을 것이다. 바로 청소년 관련 단원에서다.

도덕 교과서를 보면 ‘청소년 문화’에 관한 단원이 빠지지 않고 나온다. 동시에 그 옆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말이 있다. 바로 청소년 문제이다. 우리는 청소년에 관한 단원을 배우며 당연한 것처럼 문제점으로 가득 찬 청소년 사례들을 본다. 분명 청소년에 관한 것을 배우는 단원일 텐데 청소년 문제들만 잔뜩 적혀있다.

청소년 문제들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보는 관점이 부정적인 시선에서 서술되어 있다.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에는 청소년을 보는 관점 다섯 가지가 실려 있다. 미성숙, 비행, 저항 또는 반문화, 하위, 대안문화로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제외한 모두가 청소년을 부정적인 시선에서 보는 관점이다. 이것들이 실제로 교과서를 읽고 공부하는 우리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1)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기술

인기 가수가 출연할 때면, 방송국 녹화장의 정문 앞에는 중고등 학생들이 장사진을 이룬다. 입장이 시작되면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아우성이다. 질서나 양보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심지어는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의 경비원에게 험한 말을 하기도 한다. 녹화장 안의 풍경은 더 가관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가 나오면 과성을 지르며 이성을 잃은 듯 흥분하다가, 다른 가수가 나오면 야유를 보내거나 아예 나가버리기까지 한다. 이를 두고 어른들은 무서운 10대라고 걱정하기도 한다. 10대에겐 자기편이 아니면 모두 적인가? ‘자유분방한 10대, 개성 위주의 10대, 튀는 것이 아름답다’는 구호도 원칙과 기준이 없이 마구 외쳐대는 뻔뻔스런 10대의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위의 글은 저출판사 중학교 2학년 사회 교과서의 탐구활동 내용이다. 이 글만 놓고 본다면 교과서에 실린 글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이 글은 일부 청소년들의 행동을 전체로 일반화 시켜 10대 문화를 한꺼번에 비판한다. 더욱이 이 탐구활동의 주제는 ‘민주 시민의 역할을 알아본다’이다.

그런 동시에 위 글에서 일반화된 ‘10대들의 행동은 민주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청소년들을 미성숙 하다고 보는 관점에서 쓴 글들은 청소년이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비하의식을 갖게 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례로 인해 청소년이 교과서에 대한 분노마저 갖게 될 수 있다.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 60쪽에 보면 또 청소년 문화를 부정적인 관점에서 서술해 놓았다.

청소년의 문화 활동은 대부분 생산적인 활동이라기보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소비성 문화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다.

이것 또한 청소년 문화를 편파적이고 비판적으로 본 것이다. 기성세대가 본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그것을 모든 청소년에게 적용시켜 일반화를 한 것이다.

교과서들에서 청소년을 부정적인 시선에서 보고 그것이 그대로 서술되어 있는 경우는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고등학교 국어 1 하에 ‘청소년의 언어생활’이라는 글을 보면 청소년의 언어생활에 대해 한 전문가의 칼럼이 지문으로 실려 있는데,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

‘청소년이 말하는 태도에서 무엇보다 큰 특징의 하나는 버릇이 없고,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다.’ ‘격식을 갖추려 하지 않고 그저 나오는 대로 말한다. 그리하여 반말을 예사로 쓰고 욕설을 거침없이 내뱉는다.’ ‘공손한 말투는 찾아보기 힘들다. 어른이 부르면 “왜요”하고 볼멘 표정이고, 말을 하면 “그게 아니고요”라고 이유를 말한다.’ ‘길들여지지 않은 망아지같이 천방지축 날뛰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말버릇이다.’

이글 또한 청소년을 편파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 사실 청소년에 관한 교과서 내용의 문제점 대부분이 청소년 문화, 혹은 청소년을 너무 비판적이고 일반화 시켜서 쓴다는 것이다. 분명 학생들은 이런 글을 보며 학생들에게 이런 성향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동시에 ‘다 이런 것은 아닌데’ 라는 의구심을 품게 한다. 청소년들은 이런 글들에 깔려있는 청소년 비하의 식 같은 것을 쉽게 느낄 수 있다. 이런 것이 심해지면 아예 그 내용을 무시해버리는 결과까지 갈수 있다.

우리가 청소년에 관해 배울 때는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함께 배워야한다. 한쪽으로 치우친 청소년을 보는 관점으로 씌여진 책으로 청소년들을 배우게 하는 건 무슨 의도인지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 현재 이런 교과서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신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아무런 정보 없이 이런 교과서를 보게 되는 어른들이나 혹은 미래에 청소년들이 본다면 그때 청소년들은 무분별하고 버릇이 없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갖게 될 수도 있다.

2) 청소년을 통제하고 순응하게 하려는 기술들

다음 글을 살펴보자.

징계의 종류에는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 이수, 퇴학처분 (다만 의무 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은 제외)등이 있다. 학생에 대한 징계를 할 때,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벌은 교육 담당자가 교육 목적상 필요하며 대상 학생을 때로 때리는 등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체벌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다. 학생도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인격적 존재이다.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이나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 글은 고등학교 법과사회 교과서의 사회생활과 법, 학교생활과 법 단원에 있는 글이다. 학생의 처벌에 대한 서술이 되어 있다. 하지만 학교생활에서 학칙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만들어 지는 것인지에 대한 서술은 전혀 없다. 법에는 만들어지는 과정, 만드는 사람에 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한데 학교 교칙에 관해서는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없다.

학교에는 당연히 교칙이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 교칙은 있고 교칙은 당연히 '선생님들이 만드는 것이지' 라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수동적인 인간을 만든다. 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자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칙인데도 자신이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자각이 없다면 그것은 곧 수동적인 인간의 형성으로 간다.

간혹 경찰관들이 임의동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뭣 모르고 동행하는 경우가 대다수 인데, 우리에게 거부할 권한이 있다. 하지만 의무의 이유를 가르치지 않는 교과서가 만든 수동적 성향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 하는 것은 아닐까.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현재에 대한 순응도 가르친다. 청소년의 대표적 문화중 하나라는 입시. 이런 비이성적이고 어처구니없는 입시제도와 공부시간을 만들어낸 입시를 청소년 문화의 특징이라고 서술해 놓았다. 이는 잠재적으로 청소년에게 이런 힘든 입시문화는 청소년에게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게 한다. 이것은 청소년에게 현재 입시제도를 정당화 시키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 도덕 교과서에는 청소년은 여가생활을 주로 PC방, 노래방, 오락실을 가거나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하면서 보낸다고 기술되고 있다. 실제로 조사해보면 어른들이 원하는 도서관 같은 곳을 제외하면 청소년들이 갈수 있는 곳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밖에 남아있지 않다. 교과서는 이

러한 청소년 놀이문화의 근본적인 부분을 지적하지 않고 청소년이 현재 하고 있는 모습만 지적한다. 교과서는 현재 부정적인 모습만 지적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뤄야 한다. 청소년 자신들이 현재 놀이문화의 방향을 알고 개선방안을 찾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과서의 모습이다.

III

교과서 내용구성에 대한 제안

1) 아동·청소년에 대한 집필자의 관점 변화

우리 청소년(아동)의 권리에는 두 가지가 있다. 복지권과 자유권인데, 복지권은 아동이 아직 미성숙한 존재이고 자신의 통제하지 못하니 어른들의 통제와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자유권은 청소년이 미성숙한건 사실이지만 행동의 분야나 종류에 따라서는 일정한 능력과 성숙도가 있으므로 그 자신이 자유롭게 행동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게 한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은 복지권과 자유권 둘 모두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에 관한 단원을 공부할 때 마다 시선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느낀다.

현재 교과서를 쓰는 사람은 모두 기성세대다. 청소년 단원들에서 나오는 예시, 지문들에서 그들이 얼마나 청소년은 통제받아야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지 느낄 수 있다. 그 정도는 교과서를 쓴 사람이 개인적으로 청소년에게 악감정이 있는가 의문이 생길 정도이다. 아동권리협약에서처럼 우리는 권리를 가진 하나의 인격체이다. 교과서에서처럼 무분별한 존재가 될 수 있지만 우리들의 자율성과 특정 분야에 대한 성숙도를 인정해주어야 한다. 단순히 몇몇 사례들을 변화시키기 보다는 청소년단원을 집필하는 집필자의 관점 자체의 변화가 더 요구된다.

2) 아동·청소년의 권리 교육과 참여

다시 돌아가서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참여를 중요시 한다. 하지만 현재 교과서 발행의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다. 물론 하나의 교과서가 나올 때에는 수많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다. 하지만 그 책으로 공부하는 우리들의 의견도 존중 받아야 한다.

‘당사국 정부는 모든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해 의견을 말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아동의 견해에 정당한 비중을 두도록 해야 한다.’ 아동권리협약 12조의 내용이다. 교과서는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물론 우리도 교과서의 제정에 우리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그 의견은 존중 받아야 한다.

또한 교과서에는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언급조차 부족하다. 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으로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가진다. 유엔 청소년권리협약 42조의 내용이다. 교과서에서는 이런 우리들의 권리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는다.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졸업을 할 때 까지 아동권리협약의 내용, 혹은 그 존재조차 모를 것이다. 기본 권리도 잘 언급되어 있지 않은 교과서에는 온통 의무만 강조하고 있다. ‘학생은 이러저러하다, 그래서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게끔 만드는 것만 있지, ‘왜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 하고 권리에겐 무엇 무엇이 있다’라는 질문은 없다. 항상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해야 하는 교과서에서는 의무뿐만 아니라 권리도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3) 청소년의 특성과 문화에 대한 긍정적 사례 제시

부정적인 청소년 사례들을 넣는 만큼 긍정적인 사례를 넣는 것도 중요하다. 분명히 청소년들에게는 문제점들이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도 크다. 부정적인 면에 비해 엄청나게 조금 있는 긍정적 사례, 혹은 있지도 않은 긍정적 사례를 추가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교과서에 청소년의 무분별한 지식수용에 대해 나와 있다. 그 옆에는 청소년들이 문화를 보는 관점으로 인해 쉽고 빠른 문화 이해에 대해 쓰는 것이 적절한 사례이다. 청소년 문화의 장점은 현재 교과서에 극히 적은양만 서술되어 있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많다. 교과서에서 청소년의 인터넷 정보 공유 능력, 청소년들만의 새로운 문화 형성, 다양한 사회비판시각, 창의적인 생각들은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 청소년에 대해 배우는 단원이라면 긍정적 사례와 부정적 사례가 적절하게 조화되어야 한다.

4) 지식 중심이 아닌 능동적 참여 교육 활동

그리고 현재 교과서는 너무 지식위주의 구성이 되어있다. 교과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내용이 단순히 앉아서 듣고 주입만 받는 식이다. 우리나라 대표적 문제점인 주입식 교육

을 교과서에서부터 바뀌나가야 한다. 단순히 앉아서 듣기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닌 우리가 능동적인 자세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중심의 내용들이 있는 교과서가 필요하다. 고1 국어 교과서에 보면 ‘국어’와 생활에 관련된 현장감 있는 글들이 나와야 하는데 대부분이 따분한 내용들이다.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문법들과 옛 고전들로 가득 차 있는 국어 교과서, 물론 이러한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능동적인 자세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도 필요하다.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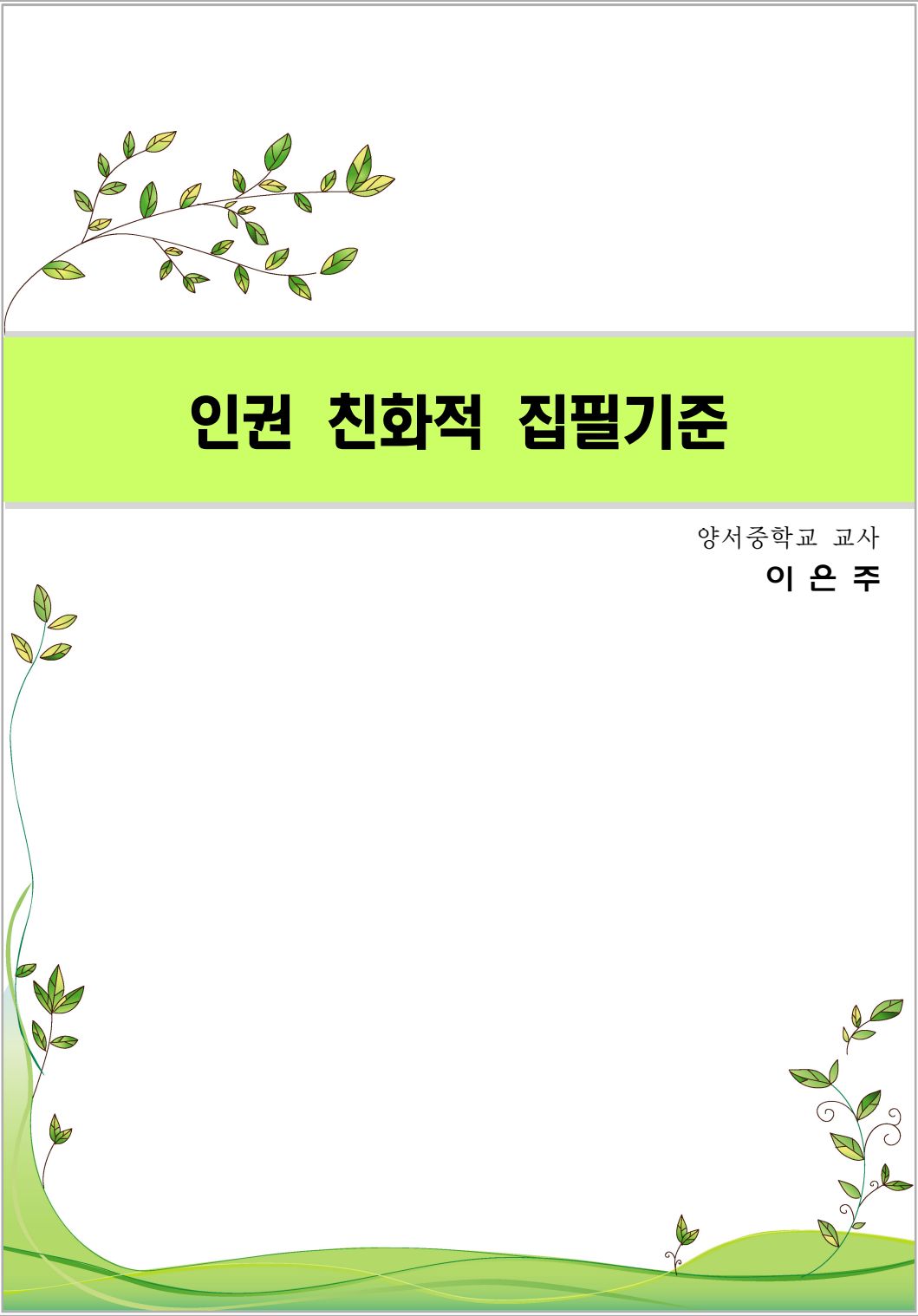
마치면서-교과서 제작에 청소년 참여의 필요성

아직 정신적으로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문제점을 지적해 주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런 편파적인 관점으로는 아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적절히 조화시켜주어야 한다. 한 가지 시선으로만 서술된 현재 교과서는 청소년이 반감을 가지거나 고정관념을 갖게 할 수 있다. 청소년 문제대신 청소년의 긍정적 영향만 잔뜩 서술되어 있는 교과서는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교육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학생 입장에서 본 교과서의 입시제도 정당화는 학생들에게 교과서에 대한 반감만 사게 한다.

또한 일방적인 주입식으로 구성되어있는 교과서의 짜임도 수정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교육과 능동적인 참여 태도를 위해서는 더욱 활동위주의 내용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청소년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알맞은 교과서를 만들려면 교과서 제작 자체에 청소년이 참여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에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그것을 어른은 존중해야하는 청소년 권리협약 12조에 따라 학창시절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교과서의 제작에 청소년은 참여할 권리가 있다. 배울 것을 스스로 채택하는 능동적인 태도의 청소년의 모습과 그것을 도와주는 어른들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인권 친화적 집필기준

양서중학교 교사
이 은 주

인권 친화적 집필기준

양서중학교 교사
이 은 주

I 들어가기

교과수업의 중요한 관점: 인권의 관점

이번 교사모니터링 작업을 하면서 나의 살림 밑천이며 너무나 익숙한, 손 때가 묻어 있는 교과서를 낯설게 바라보게 되었다. 또한 교사는 수업으로 산다고 믿고 나름 씩 괜찮은 수업을 한다고 생각했던 수업의 장면들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되었다.

교과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텍스트다.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을 반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현실과 유리된 죽어버린 텍스트라 평가받고 교과서가 담고 있는 지식의 중요도와는 상관없이 일단은 짜증스러운 암기의 텍스트로 여겨진다. 정말 실력을 키우려면 교과서 수준을 뛰어넘는 무엇인가의 내용을 더 배워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이러한 교과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들 때문에 대안적인 교과서류(살아있는 교과서, 교실 밖 등)의 제목을 단 도서들이 인기가 많게 된 것 같다. 그렇다면 나는 어떨까?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잘 구조화된 지식체계라고 인정하고 학교밖에서 사람들이 교과서를 욕하면 불끈 화를 내다가도 나 역시 나름 좋은 수업을 하기위해서는 교과서에 크게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내 수업은 그야말로 생각대로 하면 되었던 것이다. 내 수업에서는 내가 중요하다고 믿고 있는 관점에서 지식, 개념들을 다시 바라볼 수 있으니까 사실 교과서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내가 중요하다고 믿고 있는 관점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던 것일까? 학생들이 다양한 교과를 공부하면서 무엇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각 교과목의 교육목표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정말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자신이 행복하려면 먼저 자신이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수업시간들을 통해서 나는 소중하고 나는 행복할 수 있다는 이런 느낌을 계속 받게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같은 반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나아가 더불어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역시 소중하다

는 것을 느끼고 이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다양한 교과를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의 진정한 의미는 나와 더불어 다른 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살아가게 해주며 모두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결국 내가 중요하다 믿고 있는 수업의 관점이 바로 인권의 관점이다. 그래서 인권의 관점에서 지식이나 교과 개념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해야 하고 인권적 관점에서의 지식의 의미를 학생들이 알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렇게 우쭐하며 거창하게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모든 인간은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행복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내용이며 모든 교과를 아우르며 학생들에게 가르쳐져 하는 중요한 교육목표가 이와 관련된 지식과 가치, 태도라 생각한다.

왜 인권 친화적 교과서일까?

이제 왜 인권적 관점에서 교과서가 집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해보려고 한다. 교사들은 주어진 교육과정안에서 나름의 관점으로 지식이나 개념을 재구성할 수 있고 그렇게 수업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교과 수업 중 교사의 눈 뿐만 아니라 교과서를 통해서도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요즘의 교실 장면을 돌이켜보건대 교사의 의도 보다는 교과서를 토해 더 많이 배울 것이라 짐작 할 수 있다. 교과서는 세상의 모습과 살아가는데 중요한 가치와 지녀야하는 태도를 담고 있는 것이다. 교과서가 어떻게 집필되느냐에 따라 학생들이 세상을 보는 눈은 달라질 것이다. 진실과 거짓을 판단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따른 행동도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삽화하나 단어하나의 사용도 신중하게 선택해서 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교과서 집필에서의 인권적 관점을 갖는다는 것은 이미 상식의 이야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인권교육의 목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배우고 이를 태도로 갖는 것이야말로 학교 교육의 소중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의 대부분은 학생들이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 전반에 인권은 중요한 가치나 내용으로 연관을 맺고 있다. 특히 정규 교과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인권 관련 내용은 자신을 포함한 타인에 대한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 국가, 상호의존적인 사계에서 활동적인 시민이 되도록 하는데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²⁾ 좀 더 많은 인권적 내용과 인권적 가치와 태도를 담고 있는 교과서가 각 교과가 목표로 하는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꿈꿀 수 있고 이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시민을 키워내는 것이 상식이라면 교과서는 좀 더 인권적으로 집필되어야 한다.

2)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국가인권위원회, 31쪽 중에서

먼저 이번 교과서 모니터링의 기준이 되어 작업을 진행하게 했던 '인권적 관점에서의 교과서 모니터링의 기준'을 먼저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기준들은 이 작업 외에도 교과서 집필과 검토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이미 앞의 선생님들이 발표하신 내용이지만, 모니터링 활동 후 회의를 거쳐 합의한 교과서 집필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다시 정리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인권 친화적 교과서 집필의 기준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생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인권적 관점에서의 교과서 모니터링 기준 3)

교과서 모니터링에서 고려해야 할 인권적 관점	
영역	인권적 관점
내용 구성	<p>내용 선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 존엄의 가치를 담고 있는가? - 자유, 평등, 인간 존엄성 등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가? - 인권에 대한 협약이나 제도를 중요하게 다루는가? - 우리사회의 인권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담고 있는가? - 인권 내용을 다룰 때 인권 침해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가? - 인권 내용을 다룰 때 학생 수준에서 경험하는 인권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가? - 인권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사회참여를 강조하고 있는가? - 인권의 다양한 목록을 충분히 고려하는가? -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을 견지하는가?
	<p>내용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내용을 다룰 때 학생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가? - 인권에 관하여 문제해결을 논의할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가? - 인권에 관하여 학생들 간에 토론하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가? - 인권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사회참여 방법을 논의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가? - 관례화된 만인권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가? - 소수집단을 비하하는 용어나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는가?
서술과 삽화 제시 방식	<p>포괄적 고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현상에 대하여 인권을 고려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인권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가? - 인권 침해를 당하는 사회적 현상을 서술하고 있는가? - 인권 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 사회적 약자의 관점을 이해하고 접근하고 있는가? - 사회 주류적 관점만 다루어서 다양성을 훼손하지 않는가? - 전 지구적인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p>세부적 고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 집단이나 사회적 약자를 다루는 내용에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없는가? - 소수 집단이나 사회적 약자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가? - 소수 집단이나 사회적 약자를 주인공이나 역할 모델로 나타낼 때 현저히 적은 비율로 등장하지 않는가? - 종교를 다루는 내용에서 편견이나 고정관념 없이 다양성을 인정하는가?

3) 교과서 모니터링기준과 사례, 강명숙, 교과서모니터단 자료집, 29쪽 중에서

2. 인권 친화적 교과서 집필에 대한 몇 가지 원칙 : 모니터링 결과 정리

<p>1)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따른 정형화된 내용이나 삽화로 구성하지 않는다. 성차별적 서술이 있는지, 남녀 성역할이나 장애인등의 사회적 약자,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고정관념과 편견을 줄 수 있는 용어나 언어, 내용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p>
<p>2)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편견을 갖지 않고 올바른 관점을 갖도록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폄하하는 관점이나 시혜적 관점은 옳지 않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사회문제를 파악하는데 있어서도 개인에게서만 원인을 찾는 등의 관점이 부족하지 않는지 검토해야 한다.</p>
<p>3) 사회적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이 나타나게 한다. 학습내용에 따라 사회적 사건을 제시할 때 어느 한쪽의 입장만 나타나거나 강조될 경우, 어느 한쪽의 입장만이 옳다고 나타날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회적 사건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나타나게 해야 한다.</p>
<p>4) 삽화를 구성할 때 남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인 내용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하며 지금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 이주 아동이나 코시안들, 다양한 나라의 외국인들, 장애인 등- 이 삽화 속에 담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p>5) 사례나 예화를 제시할 경우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체의 존귀함이 가볍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사례이지만 인권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사례의 제시는 지양되어야 한다.</p>

3. 인권 친화적 교과서 집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가. 진짜 소수자의 인권을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

여성의 인권, 장애인의 인권, 노동자의 인권 등 참으로 소중하지만 사회에서 이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상식을 넘어 행동 선택의 기준,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진짜 소수자의 인권에 대해서도 섬세하게 접근하고 존중해야 한다. 왼손잡이들, 성적 소수자들, 에이즈 같은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 등 이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이들의 문제를 바라 볼 수 있다. 이런 편견은 이들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다. 특히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성취도가 떨어지는 것은 노력 부족이라 생각하고 그들에 대한 차별을 정의롭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취도

의 불평등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문제라기 보다 기회의 불평등 등의 다른 접근이 필요하며 성취도가 떨어지는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약자를 존중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상식적인 수준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넘어서 정말 실제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진짜 소수자의 인권에서도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인권적 관점에서 교과서를 집필하게 될 때 이해부족으로 존중하지 못하는, 혹은 일상생활 속에서 차별이 상식이 되어 버린, 이런 진짜 소수자의 인권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나. 교과서가 놓치고 있는 인권적 내용을 검토한다.

교과서가 말로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합의하는 상식의 결정체이다. 누구도 토를 달지 않는,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 내용들만 실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학생들은 교과서는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교과서에 실린 내용들은 상식을 넘어 진리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교과서에 기술되어 상식이 된 내용이 정말 진리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혹시 상식이라고,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에서 놓치고 있는 인권은 없는지 다시 교과서를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검토는 어떤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교과서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가능하며 놓치고 있는 그 부분은 충분히 교과서안에서 답을 수 있다.

1) 정치 단원에 있어서 인권적 관점 반영 사례


중3 사회교과서에서 첫 단원은 민주정치와 시민참여다. 제목에서 예상할 수 있지만 이 사회의 주인은 시민이며 시민들의 참여가 민주주의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물론 시민참여의 역기능도 제시하고 있다. 역기능의 사례는 주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시민참여를 제시하고 있고 그래서 내리게 되는 결론은 준법 안에서의 참여다. 법의 테두리안에서의 정치참여라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사실일 것이다. 시민참여의 순기능과 함께 역기능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다양한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게 해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준법 안에서의 참여만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시민불복종이나 저항권에 대한 내용도 실려 있어야 맞다는 생각이다. 왜냐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시민참여가 결코 준법의 테두리에서만 설명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정치참여라는 것은 이견이 없는 사실이지만 저항권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답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아야 한다.

시민 참여, 어떻게 해야 할까?
시민 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파악하고, 역기능의 해소 방법과 올바른 시민의 자세를 생각해 보자.

다음 시민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문제 1 최근 우리나라는 자살이 속한 집단이 서서히 보충되기 위해 집단 행위로 시민들이 참여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 나라 시민들의 30%가 자살을 위해 자살을 위한 집단이 이익을 얻어 준다는 생각이 있다고 한다. 지금 ○○ 지역에서 벌어지는 주 모 공원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 행동에서 이러한 경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집단 행동은 기본적으로 사회 정의를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대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결이 아니라 타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시민 대다수가 ○○ 지역이 주모 공원 건립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결정할 이상 공원력을 동원해서라도 그 결정을 시행해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 2 민주주의 국가에서 구성원들이 상반되는 의견 때문에 서로 갈등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따라서 집단 행동은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표출하는 한 방법이며, 민주 사회의 기본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이다. 그러므로 집단 행동을 집단 이기주의라고 해도 될 것이 아니라 다른 집단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일단은 존중해야 한다. △△시는 ○○ 지역 주민들의 주장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대책을 마련한 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화하며 설득해야 한다. ○○ 지역 주민들도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나름대로의 대안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1 위의 견해를 참고하여 시민 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정리해 보자.

2 주모 공원 건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 ○○ 지역 주민, 우리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발표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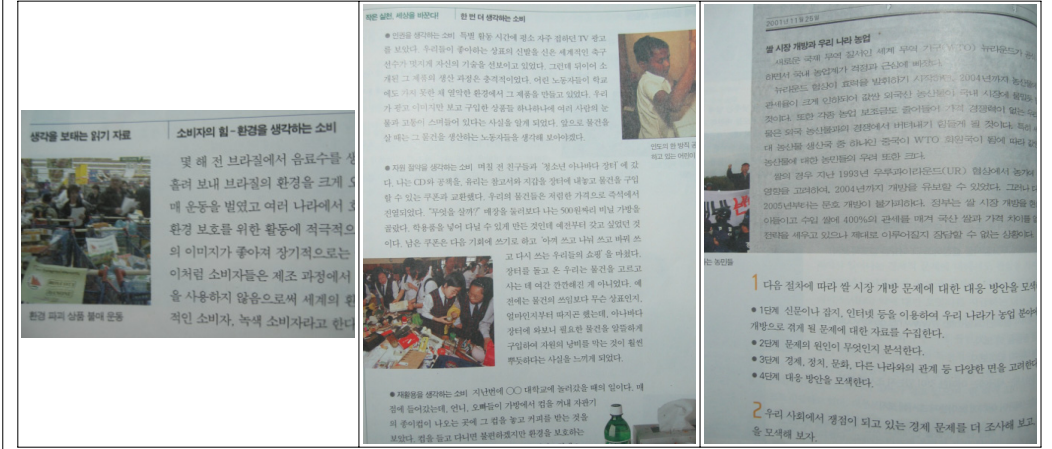
- 디딤돌, 중3사회, 35쪽
- 시민참여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며 타 교과서가 시민참여의 역기능을 위법성으로 접근한 반면 여기에서는 집단이기주의로 접근하고 있어서 저항권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2) 경제단원에 있어서 인권적 관점 반영 사례

사회교과서의 경제단원에서는 사회과 전체를 아우르며 그려지고 있는 민주 시민의 모습- 즉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연대, 평화의 가치를 알고 이를 위해 행동할 수 있는 다분히 이타적인 시민-은 약해지고 자신의 만족을 행동의 최고의 기준으로 삼게 되는 이기적이며 합리적인 시민의 모습을 담아내게 된다. 선한 행위조차 자신의 행복이라는 이기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동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그 전의 시민의 모습과는 대단한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제활동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는 상식일 수 있다. 그러나 인권적 시각으로 본다면 효율성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많은 선택과 행동들이 옳지 않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사람답게 살 권리를 위해서, 지구 저편 어느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지구 환경을 위해서 손해 보는 선택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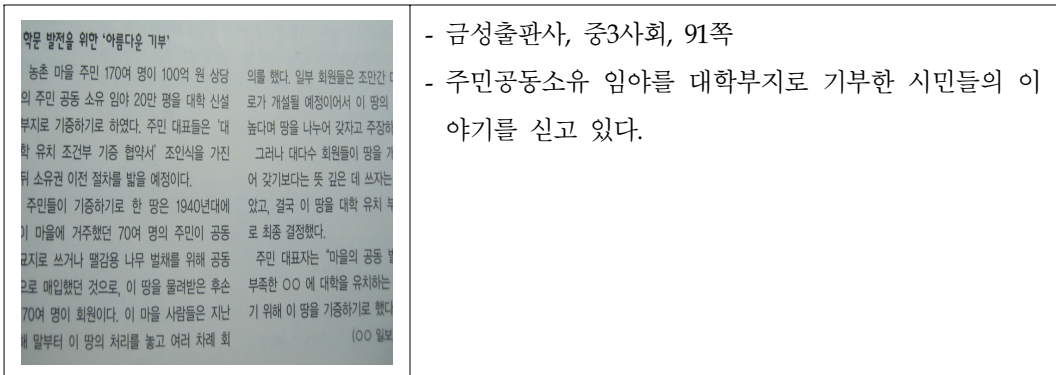
가) 인권과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

- 디딤돌, 증3사회, 62쪽, 65쪽, 72쪽
- 환경을 생각하는 녹색소비자의 사례가 있고 소비자권리 찾기 뿐만 아니라 인권과 자원 절약, 재활용을 생각하는 소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쌀시장 개방과 관련된 현실에 대해 다양하게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고 하고 있다.



나) 사익 추구를 넘은 선택과 행동

교육과정에서 시장경제의 발전과제로 과도한 사익추구를 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과도한 사익추구가 '비효율적' 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경제학자가 아닌 시민을 기르기 위한 학습내용이라면 이 문제는 효율성의 여부 보다는 연대의식, 공동체 의식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교과서에서는 기부나 자원봉사 등을 공동체 의식 발현의 사례로 담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이나 대안기업가들의 대한 사례가 아쉽다.





① 소년 소녀 가장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기업
최근 기업들 사이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윤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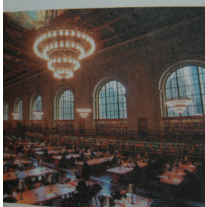


② 기업의 자원 봉사 활동
오늘날 기업은 물질적 자산을 넘어 시간과 노력을 업무 외 봉사 활동에 직접 투입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공동체 의식 실현에 앞장 서기도 한다.

- 동화사, 중3사회, 96쪽
- 기업의 자원봉사나 이윤의 사회환원 운동에 대한 자료가 있다.

생각을 보태는 읽기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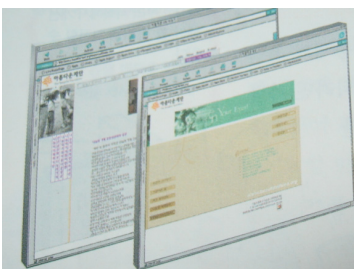
부의 사회 환원



캐네기 기부금을 낸 뉴욕 공공 도서관

강철로 재빨리 된
한번은 피츠버그 시
두 번이나 거절하였
을 지어 달라고 요청
기증했다. 이런 사정
다음과 같이 말하였
민들을 위해서 돈을
때문에 그 사람들을

- 디딤돌, 중3사회, 67쪽, 102쪽
- 카네기의 사례로 기업가의 '부의 사회 환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 기업매출의 1% 나누기 운동에 대한 자료가 있다.



기업 매출의 1% 나누기 운동. 개
인의 재산을 공동체를 위해 아낌
답게 쓸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탐구 활동

- 중앙교육, 중3사회, 88쪽
- 일반 시민들의 금모으기 사례를 공동체의식에 대한 자료로 쓰고 있다. 기업가의 활동에 대한 사례가 아쉽다.



금모으기 운동. 우리 국민은 외환 위기 때
모두 하나가 되어 경제 위기 극복에 동참하
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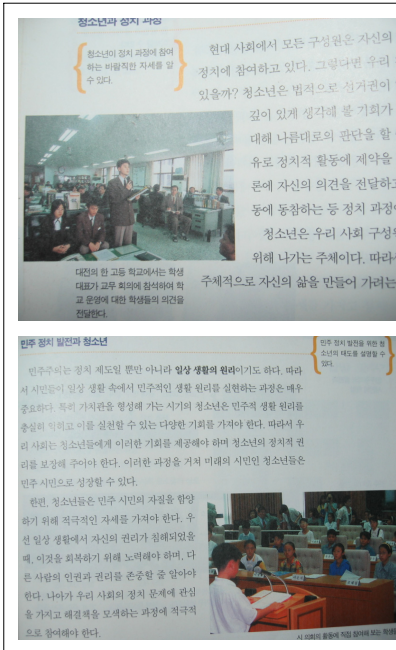
다. 청소년(학생)을 미숙한 존재가 아닌 배움의 주체로 존중한다.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지식들을 잘 구조화시킨 것이 교육과정이고 이러한 교육 과정을 충실히 반영하여 만들어진 것이 교과서이다. 아무리 중요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배움의 주체인 청소년들을 성숙한 존재로 존중하며 내용이 구성되어야 교육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청소년(학생)들을 존중하는 내용이란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소년(학생)수준에서 경험 가능한 사례나 자료를 넣어 학생들 수준에서 이해하기 쉽게 교과서를 구성하는 것 이상을 말한다. 지식과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한 방법 차원에서의 접근을 넘어서 구체적인 학습목표가 청소년(학생)을 미숙한 존재가 아닌 배움의 주체로 하여 제시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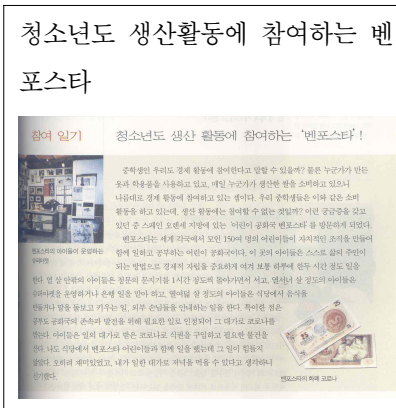
모두가 동의하는 학교 교육의 목표를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라 한다면 학생들은 어른이 되어서 훌륭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식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학생 자신들이 바로 시민이고 지금 지녀야 하는 가치들이 있고 지금 움직일 수 있는 태도를 배워야 한다. 알게 모르게 교과서는 청소년은 미성숙한 존재이며 어른이 되어서야 아름다운 가치를 지니고 행동할 수 있는 시민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 같다. 성취수준이 아무리 높더라도 공부한 내용들이 자신들과는 거리가 먼 어른들의 이야기, 어른들 사회의 이야기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진정한 성취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만약 정치참여 단원이라면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청소년도 참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가의 모든 권력은 시민에게 위임된 것이고 그 바탕에는 인간의 존엄성이 있다는 것을 즐기차게 배우면서도 그 시민은 자신들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공부를 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을 미성숙하고 무력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고 배우고 있는 내용들이 현재의 자신들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경제단원에서도 소극적인 소비자로서의 청소년의 역할이 아닌 생산활동을 포함하여 시민으로서 적극적인 청소년의 경제활동을 다룰 수 있다. 청소년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적극적인 시민으로서 소비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청소년에게도 일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경제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교과서의 사례이다.



- 디딤돌, 중3사회, 34쪽과 41쪽
-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청소년과 정치발전’을 작은 단원으로 구성해 설명하고 있다. 교무회의에 참석하는 학생과 시의회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사진자료가 있다.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보장과 정치발전을 위한 청소년들의 노력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 디딤돌, 중3사회, 47쪽
- 경제활동에서 소비자로서의 청소년 역할 외에도 생산 활동을 하는 청소년의 모습을 사례로 담고 있다.

라. 수업방법도 인권 친화적으로 제시한다.

교육의 내용과 형식은 분리될 수 없다. 그런데 실제 수업장면에서는 분리된다. 인간존중을 배우면서도 강압적이고 지시적인 수업분위기에서 공부하기도 한다. 궁극적으로 자신의 행복은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기 위해 공부하고 이러한 지식의 진정한 의미를 학생들과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교사가 주도하는 일방적인 수업방식이 유지될 때가 많다. 아무리 훌륭한 교육내용이라 할지라도 수업 장면에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서로 존

중하지 않는다면 내용은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담긴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수업에서 어떤 방식으로 교육하느냐는 수업 방식의 문제일 것이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배워야 하는 중요한 것은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상대방 역시 자신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모둠활동을 통해 서로 협동하고 그 속에서 대화하고 협의하고 토론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학생이 수업의 중심이 되는 수업방법, 학생 상호간, 교사 학생 사이의 소통과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배울 수 있는 수업방법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서로의 인권을 무시하는 방법으로는 인권을 가르칠 수 없을 뿐 아니라 인권을 무시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교육도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믿는다.

Ⅲ

나가면서

2% 부족한 그 무엇이 채워지기를 바라며

대충 수업을 해치울 때도 있으나 때때로 괜찮은 수업을 하는 교사라 생각하는 지극히 평범한 교사다. 교육전문가라고 자신할 순 없지만 그래도 교과서에 대한 아쉬움은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과서 만큼 학생들이 알아야 할 지식을 잘 구조화해 놓은 책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엇인가 부족해 자꾸 교과서를 뒤적이게 된다. 그러다 못찾으면 나름 재구성 작업에 들어가기도 한다. 무엇이였을까? 교사모니터링 작업을 하면서 인권적 관점에서 교과서를 바라보니 뒤적이게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그리고 그 관점이 옳다고 확신이 든다.

학생은 왜 공부를 하는가? 거창하게 다시 의미를 찾아보고,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즐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램에서 생각해봐도 교과서는 좀 더 인권친화적 이어야 한다. 나와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나의 행복 뿐 아니라 다른 이의 행복을 위해서도 행동할 수 있는 학생들을 키우기 위해서,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서로 존중하고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여 공부하기 위해서 좀 더 인권적 관점에서 집필된 교과서가 필요한 것이다.

교과서 집필도 적극적인 선택이며 행동이다.

모두 알다시피 교과서에는 많은 재량이 없다. 교육과정에 맞추어 교과서를 구성하다보면 검인정 교과서가 별 반 차이가 없다. 그 만큼 교육과정이 자세하다. 그렇다고 교과서 집필의 관점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어떤 교과서든지 교과서를 구성하고 여러 가지 기준으로 검토할 것이고 인권적 관점에서도 검토될 것이다. 그런데 인권의 관점이 검토기준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 집필의 적극적인 기준으로서 작용하길 바란다. 학생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교육과정 전문가들 뿐 만 아니라 현장의 교사들도 해야 하는 일이다. 학생들에게 학습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교과서의 집필을 맡고 계신 분들이라면 고민은 더 깊을 것이라 생각된다. 현장 교사가 느끼기에 이런 고민들이 많이 담긴 교과서는 분명 있다. 교과서 집필도 적극적인 선택이며 행동이다.



부록

교과서 모니터링 사례집

- 비추천 사례 -






● 비추천 사례

I.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사례


- 1) 남녀 성역할
- 2) 인종이나 문화
- 3) 가정, 빈부, 사회적 신분





학교급	초등 1-1	교과목	슬기로운 생활
단원명	1. 즐거운 학교생활	쪽수	카드
교과서 내용			
비추천 사유	<p>‘슬기로운 생활’ 맨 뒷부분의 교통안전 놀이를 위한 카드로 탈 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모두 남성, 의상도 남성은 바지, 여성은 치마를 착용하고 있어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p>		
개선안	<p>탈 것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적절한 성비를 고려하며, 의상착용에 있어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표현한다.</p>		


학교급	초등 1-2	교과목	바른 생활
단원명	3. 함께하는 한가위	쪽수	28
교과서 내용			
비추천 사유	<p>한가위 음식 준비를 하는 삽화에서 여성들만 차례 음식을 만드는 모습으로 표현된 삽화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로 하여금 차례 음식 준비는 여성만 하는 일이라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p>		
개선안	<p>한가위 음식을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함께 준비하는 삽화로 표현한다.</p>		


학교급	초등 1-2	교과목	바른 생활
단원명	6. 사랑해요, 우리나라	쪽수	76
교과서 내 용			
비추천 사유	<p>무궁화나무를 심는 삽화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힘을 쓰면서 나무 심는데 적극적으로 심는데 반해 어머니와 딸은 구경만 하는 것으로 그려져,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로 ‘힘쓰는 일은 남성’이 혹은 ‘남성=힘’이라는 성차별적 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p>		
개선안	<p>남자와 여자가 함께 나무를 심는 삽화로 표현한다. - 아래 앉아있는 여자 어린이가 나무를 잡고 있거나, 삽을 엄마가 들고 있는 방식으로 삽화를 수정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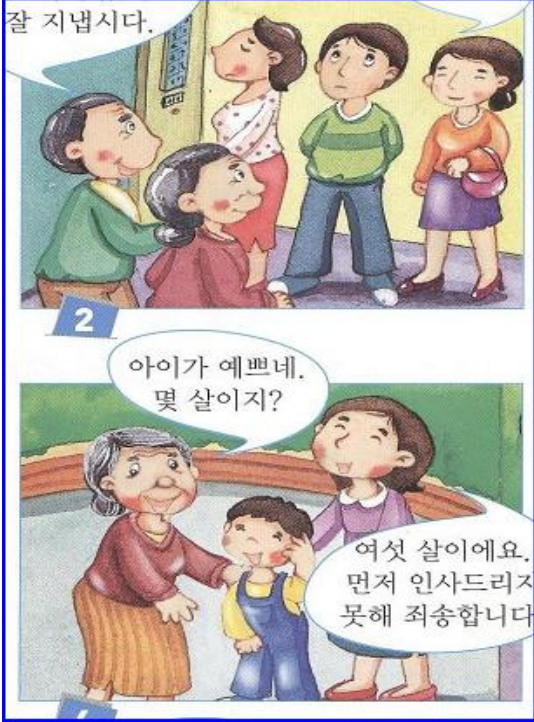
학교급	초등 1-2	교과목	바른 생활
단원명	6. 사랑해요, 우리나라	쪽수	81
교과서 내 용			
비추천 사유	<p>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삽화에서 남성은 바지, 여성의 치마로만 표현된 삽화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로 하여금 특정한 성의 옷이 지정되어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할 수 있다.</p>		
개선안	<p>여성들의 치마를 바지로도 표현한 삽화를 제시 하며, 또한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의 가족구성원도 섞일 수 있도록 시도해본다.</p>		

학교급	초등 1-2	교과목	바른 생활
단원명	7. 겨울 방학을 알차게	쪽수	96
교과서 내 용			
비추천 사유	<p>겨울 방학을 알차게 보내기 위한 계획 중 축구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삽화에서 남학생만 축구를 하고, 여학생은 한 명도 없게 표현된 삽화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로 하여금 축구는 남학생만의 전유물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p>		
개선안	<p>모든 운동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구별 없이 함께 운동하는 삽화로 표현한다.</p>		


학교급	초등 1-2	교과목	국어 : 듣기 말하기
단원명	2. 꼼꼼히 살펴보아요	쪽수	17
교과서 내용			
비추천 사유	<p>장난감을 가지고 소개하는 삽화에서 남학생은 로봇과 자동차 장난감을 여학생은 인형과 동화책만을 가지고 놀고 있는 삽화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로 하여금 장난감에 대한 성별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학습시킬 소지가 있으며, 이는 향후 성차별과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고착될 우려가 있다.</p>		
개선안	<p>모든 장난감을 함께 가지고 노는 삽화로 표현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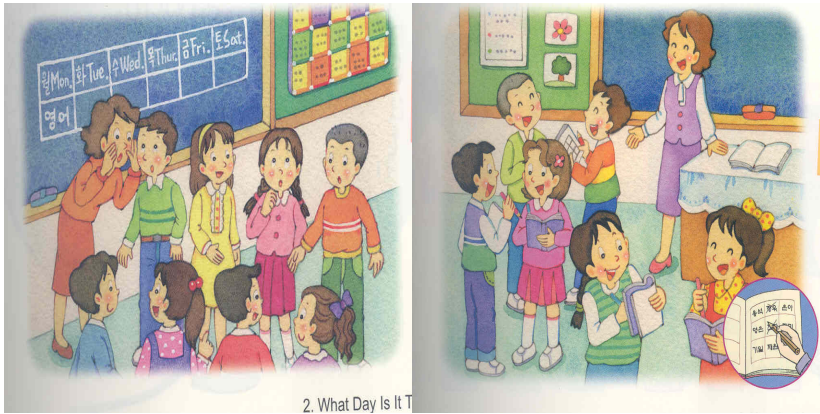
학교급	초등 1-2	교과목	국어 : 읽기
단원명	5. 더 알고 싶어요	쪽수	79
교과서 내용			
비추천 사유	<p>이런 인사, 저런 인사를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삽화에서 남성만을 나타내어 초등 저학년에게 인사는 남성의 전유물 혹은 사회생활은 남성 중심이라는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p>		
개선안	<p>모든 사회활동을 표현하는 삽화에 적절하게 성비를 고려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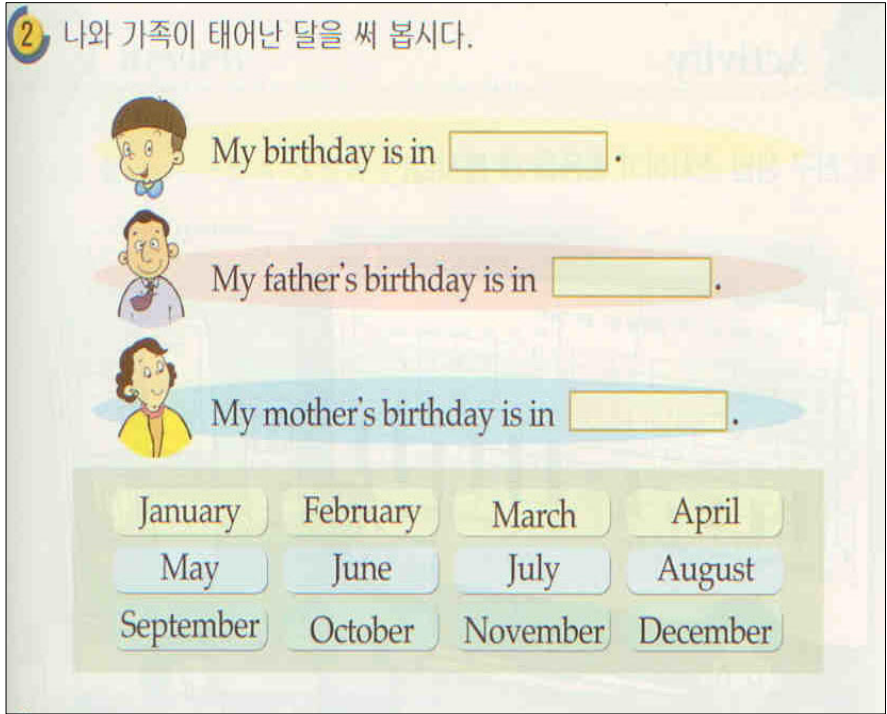
학교급	초등 1-2	교과목	국어 : 읽기
단원명	7. 상상의 날개를 펴고	쪽수	103
교과서 내용			
비추천 사유	<p>김장하는 날의 장면에서 여성만이 등장하고 있어 김장은 꼭 여성만 해야 하는 일로 여겨질 소지가 크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로 하여금 향후 성차별과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p>		
개선안	<p>김장하는 삽화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일하는 모습으로 표현 한다.</p>		


학교급	초등 2-1	교과목	바른 생활
단원명	전 단원	쪽수	
교과서 내용			
비추천 사유	<p>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엄마 또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고 의복에서도 치마보다는 바지를 선호하고 많이 입고 있음에도 우리 교과서 속의 여성은 모두 중년이면서, 차분한 곱슬머리와(심지어 커트 헤어스타일도 없음) 치마를 입은 여성으로 대변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여성, 엄마의 상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다.</p>		
개선안	<p>여성 상화를 다양한 의상과 헤어스타일로 표현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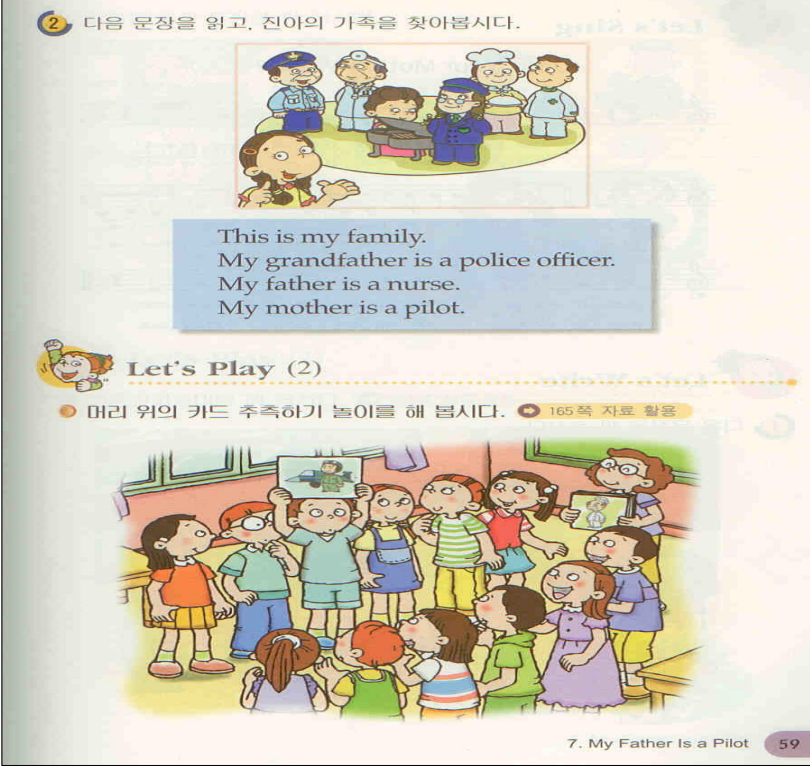
학교급	초등 3-1	교과목	슬기로운 생활
단원명	7. 동물과 식물은 내 친구	쪽수	84
교과서 내용	집에서 동물과 식물을 길러본 경험을 이야기 하도록 유도하는 4장의 사진 중 여자 아동들의 경우 식물을 매만지는 장면을, 남자 아동들의 경우 동물과 노는 장면을 각 2장씩 게재하고 있다.		
비추천 사유	여성의 경우 정적이다, 남성의 경우 동적이라는 오래된 편견을 이어받은 결과로 오해될 수 있다.		
개선안	적절한 성비를 고려하여 표현한다.		

학교급	초등 4-1	교과목	도덕
단원명	1. 바른 몸가짐	쪽수	8
교과서 내용	 <p>어른에게 칼을 내밀 때는 손잡이 부분을 어른을 향하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장면</p>		
비추천 사유	<p>심부름을 시키는 엄마와 심부름을 하는 여자아동의 삼화는 자칫 ‘부엌일 혹은 부엌 심부름은 여성’이라는 인식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p>		
개선안	<p>심부름에 대한 삼화를 다양하게 표현한다. - 좀 더 다양한 활동에서의 여자/남자 아동의 심부름 삼화</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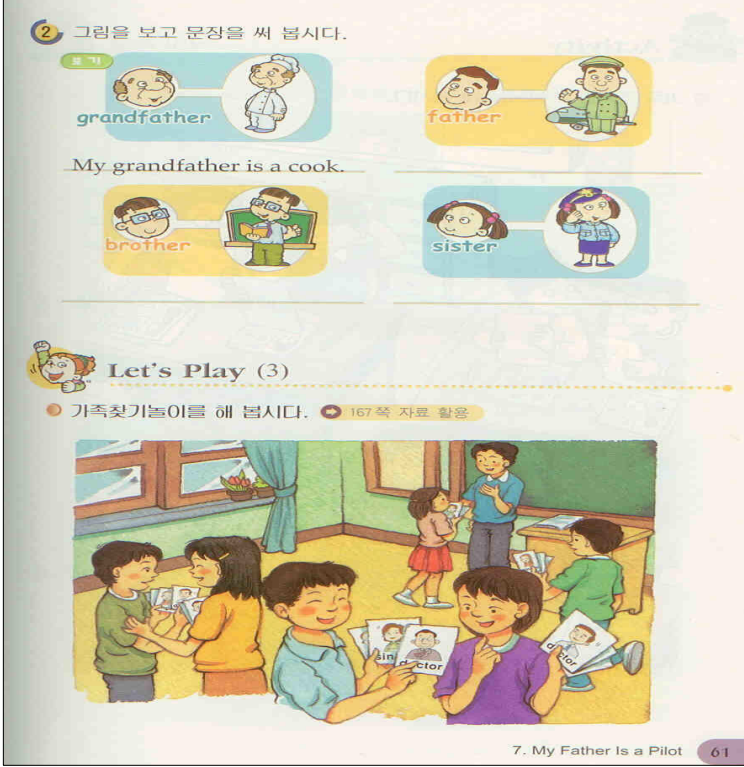
학교급	초등 5	교과목	영어
단원명	전 단원	쪽수	
교과서 내용	 <p>2. What Day Is It?</p> <p>교과서 전부 선생님의 등장은 모두 여자 선생님이다. (Lesson 1,2, 3, 4, 5, 6, 7, 8, 9, 10, 11,12,13,14,15,16)</p> <p>남자선생님은 단 두 컷 (p27 숨은 물건 찾기, p86 뒷짐 지고 계신 선생님)</p>		
비추천 사유	<p>초등학교 교사의 대부분이 여성인 것이 현실이지만, 교과서까지 전부 여성인 것을 초등 저학년에 있어서는 ‘교사는 여성’이라는 직업적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p>		
개선안	<p>현실을 떠나 전체적으로 남녀 성비를 조절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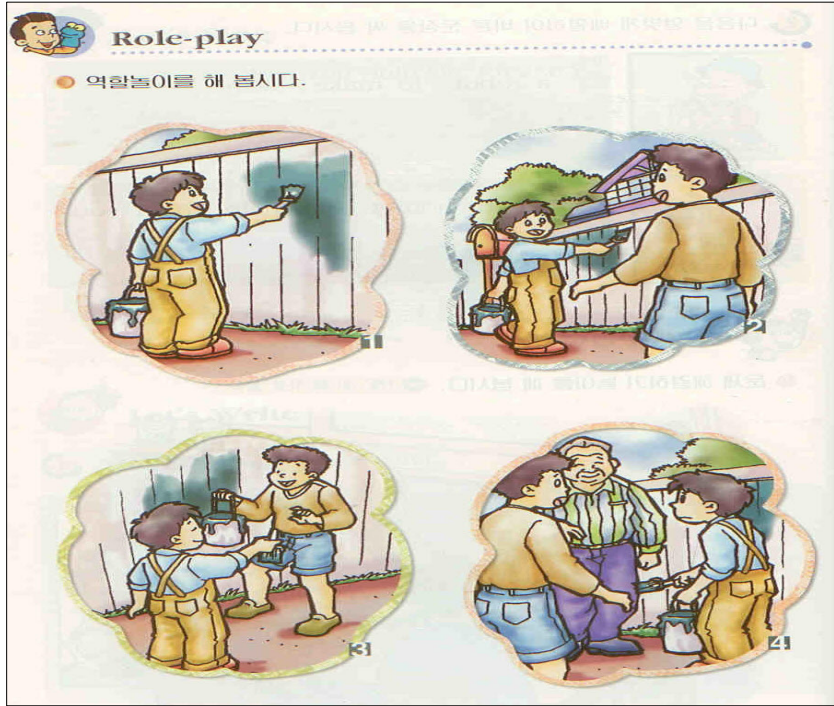
학교급	초등 6	교과목	영어
단원명	3. When Is Your Birthday?	쪽수	37
교과서 내용			
	나와 가족이 태어난 달을 써보는 내용이다.		
비추천 사유	<p>나(1)를 나타내는 그림(이모티콘)이 남자아동으로 그려져 있는데 남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한 가지 성별만 그려져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6학년 영어의 경우 내용보다 그림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그림만으로도 많은 것이 내포되고 있기 때문에 삽화그림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p>		
개선안	그림(이모티콘)에 여자아동 그림도 함께 제시하도록 한다.		

학교급	초등 6	교과목	영어
단원명	7. My Father is a Pilot.	쪽수	57
교과서 내 용	 <p>Let's Play (1)</p> <p>빙고놀이를 해 봅시다.</p> <p>teacher, nurse, pianist, doctor, pilot, cook, bus driver, police officer, singer</p> <p>7. My Father Is a Pilot 57</p>		
	<p>직업에 관한 그림과 단어를 보고 빙고게임을 하는 부분이다.</p>		
비추천 사유	<p>직업에 관한 단어를 배우는 것인데, 위의 교과서 삽화에서는 의사와 버스운전사 등은 남성의 직업, 간호사, 피아니스트 등은 여성의 직업인 것 같이 그려져 있다.</p>		
개선안	<p>직업별로 여성, 남성을 함께 표현한다.</p>		


학교급	초등 6	교과목	영어
단원명	7. My Father is a Pilot.	쪽수	57
교과서 내 용			
비추천 사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처음 활동은 어머니는 파일럿, 아버지는 요리사로 친인권적으로 내용이 만들어져 있으나, 파일럿인 어머니가 버스운전사처럼 우스꽝스럽게 그려져 있어서 의도와 다르게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비웃는 경우가 많았다. 2. 게임활동 그림에서 학생 머리위의 카드와 선생님이 들고 계신 카드가 앞에서 지적인 특정한 성의 직업인 것처럼 그려져 있다. 		
개선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그림은 좀 더 사실적으로 변경하여, 아이들이 내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수정했으면 한다. 2. 직업별로 남녀를 함께 그린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학교급	초등 6	교과목	영어
단원명	7. My Father is a Pilot.	쪽수	165
교과서 내용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 padding-right: 10px;">7 단원 그림 카드 ①</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div> </div>		
비추천 사유	<p>직업에 관한 단어를 배우면서 특정한 성의 직업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면 안되는데 여기의 그림은 의사와 버스운전사 등은 남성의 직업, 간호사, 피아니스트 등은 여성의 직업인 것 같이 그려져 있다.</p>		
개선안	<p>직업별로 남녀를 함께 그린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p>		

학교급	초등 6	교과목	영어
단원명	7. My Father is a Pilot.	쪽수	61
교과서 내용	 <p>2 그림을 보고 문장을 써 봅시다.</p> <p>grandfather father</p> <p>My grandfather is a cook.</p> <p>brother sister</p> <p>Let's Play (3)</p> <p>가족찾기 놀이를 해 봅시다. 167쪽 자료 활용</p> <p>7. My Father Is a Pilot 61</p>		
비추천 사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첫 번째 활동에서 나의 여동생을 경찰이라고 설정한 것은 친인권적이라 생각된다. 2. 두 번째 가족 찾기 놀이에서는 그림 카드에서 doctor를 모두 남성으로만 그린 것은 무의식적으로 의사는 남성의 직업이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 		
개선안	<p>직업카드를 여성, 남성의 그림으로 함께 제시한다.</p>		


학교급	초등 6	교과목	영어
단원명	12. Will You Help Me, Please?	쪽수	102
교과서 내 용	 <p>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서의 역할놀이를 하는 장면이다.</p>		
비추천 사유	<p>도움을 요청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역할 놀이를 하는 장면이다. 그런데 이 장면에는 남자들만 등장한다. 6학년 어린이들은 성역할이 뚜렷하여 이런 경우 여자아이들은 자신들이 역할놀이를 하는 것을 꺼려하게 된다.</p>		
개선안	<p>상황에 맞게 역할놀이를 설정하되 여성과 남성이 모두 등장하는 역할놀이로 재구성해서 표현한다.</p>		

학교급	중등	교과목	체육	출판사	보진재
중단원		소단원		쪽수	64-73
교과서 내용	<p>태권도에는 분명히 남성 선수들도 있고 여성 선수들도 있는데 중1 체육 교과서에는 태권도라는 종목에 설명이 다 남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축구와 스키는 모두 남성이고, 무용은 모두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p>				
비추천 사유	<p>이와 같은 구별은 체육종목에 여성이 할 수 있는 것과 남성이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는 것과 같다.</p>				
개선안	<p>여성들이 태권도 하는 모습도 좋으며, 태권도가 국제사회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종목이므로 외국인들도 태권도를 배우는 모습을 넣는 것도 좋다.</p>				


학교급	중등 1	교과목	도덕	출판사	교과부
중단원	1. 삶의 의미와 도덕	소단원	(2)양심과 도덕	쪽수	16쪽
교과서 내용	 <p>여성도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데, 삽화에서 남성들은 모두 서류가방을 들고 있어 직장인임을 암시하고 있는 반면, 여성들은 모두 치마만을 입고, 특별하게 직장인임을 암시하지 못하고 있다</p>				
비추천 사유	<p>여성들이 치마를 입은 것이 모두 차별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만큼 활동성을 느낄 수 없다. 이러한 삽화는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역할에 있어 선입견을 줄 수 있다.</p>				
개선안	<p>여성의 의상이나 헤어스타일을 다양하게 하여 여성의 사회참여활동의 활발함을 반영한다.</p>				



학교급	중등 1	교과목	도덕	출판사	
중단원	3. 이웃간의 예절	소단원	(4) 이웃 생활에서 지켜야할 예절들	쪽수	255쪽
교과서 내용	 <p>위 사진은 여학생들이 봉사를 하러 온 사진임을 알 수 있으나, 봉사활동의 주인공들이 모두 여학생들이다.</p>				
비추천 사유	<p>우연히 여학생들만 봉사를 하러 갈 수도 있지만, 요즘래는 남학생 봉사자도 많은데, 유독 여학생들만의 사진으로 여성에게 은연중에 봉사, 희생, 박애를 강요하는 듯하다.</p> <p>실제 도덕이나 윤리교과서에서는 대다수 활동적 영역에는 남성을, 봉사활동에는 여성을 쉽게 찾을 수 있다.</p>				
개선안	<p>교과서 재개발 시 이러한 관점을 고려한다.</p>				

학교급	중등1	교과목	도덕	출판사	
중단원	3. 인간다운 삶의 자세	소단원	(4)감사하는 생활	쪽수	108
교과서 내용	 <p>사치에 대한 부분이 제시되는 사진인데, 사치의 대표물로 밍크코트를 소개하고 있다.</p>				
비추천 사유	<p>밍크코트가 사치임은 분명하지만, 밍크코트하면 여성용품을 연상시키고, 이것은 곧 ‘여성=사치’라는 오해와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p>				
개선안	<p>교과서 재개발 시 이러한 관점을 고려</p>				



학교급	중등 1	교과목	영어	출판사	두산(김덕기)
대단원	Lesson12 본책	중단원	Before you Begin	쪽수	167
교과서 내용					
비추천 사유	<p>여성은 멋을 의식하는 존재로만 그려져 있으며, 책은 남성만 보고 있다.</p>				
개선안	<p>성별안배를 통한 균형 있는 삽화</p>				


학교급	중등 2-1	교과목	국어	출판사	
대단원	Ⅲ. 우리 고전의 맛과 멋	중단원	단원의 길잡이	쪽수	96
교과서 내용	<p>만약 이 작품을 지금부터 천 년 정도가 지난 후에 우리 후손들이 읽는다면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다음의 대화 내용은 그 때를 상상하여 꾸며 본 것이다.</p> <p>남 : 2002년도에 씌어진 소설 한 편이 오늘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약 천 년 전에 쓰인 작품인 셈이지.</p> <p>여 : 꽤 오래 되었네! 그래, 어떤 내용이라?</p> <p>남 : 그 시대 청소년들의 생활에 관한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재미있게 많다. 응……. 그 중에서 기억나는 건 그 당시 청소년들의 학교 생활이야. 그 당시 청소년들은 글썽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 이 공부 때문에 그 당시 청소년들은 고민이 많았나 봐.</p> <p>여 : 그렇구나. 그 밖에 또 무슨 내용이 있었어? 혹시 더 기억나는 것 없어?</p> <p>남 : 나도 들은 거라 자세히는 몰라. 그래서 나도 한 번 읽어 보려고 해. 그 작품을 읽으면 천 년 전 우리 조상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p>				
비추천 사유	<p>굳이 남과 여로 구분하여 대화를 할 필요가 있을까? 또한 남자 대화의 양과 여자 대화의 양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어 은연중에 남녀차별을 드러낼 소지가 있다.</p>				
개선안	<p>‘남, 여’가 아니라 ‘철수, 영희’ 혹은 ‘준희, 지혜’ 등으로 기록하는 게 바람직</p>				

학교급	중등 3	교과목	도덕	출판사	
중단원	2. 가정·친척·이웃 생활과 도덕문제	소단원	(1) 가정 생활에서의 도덕 문제와 해결	쪽수	138
교과서 내용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p>그리고 형제 자매 간에도 부모의 사랑을 서로 더 많이 받으려 하거나, 유산을 더 많이 받으려고 다투는 등의 불화가 생기기도 한다. 다음 이야기를 통해 부모 부양 문제로 인해 자식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p> <p>김 노인에게는 결혼한 아들 셋과 출가한 막내딸이 있다. 김 노인은 이제 늙어 자식들 중에서 누가 모셔야 하는데, 모두들 난색을 표하기만 한다. 첫째 아들은 뚜렷한 직업이 없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 모실 수 없다고 하고, 둘째는 가게를 하기 때문에 보살펴드릴 시간이 없다고 하며, 셋째는 사업상의 이유로 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주</p> </div> </div> <p>위 사례에서 “김 노인에게는 ‘결혼’한 아들 셋과 ‘출가’한 막내딸이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p>				
비추천 사유	아들에 비해 딸은 출가라고 기술하고 있어 딸은 ‘출가외인’ “딸은 키워도 소용없다” 이런 말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개선안	김노인에게는 결혼한 아들 셋과 막내딸이 있다.				


학교급	중등 3	교과목	도덕	출판사	
중단원	2. 가정·친척·이웃 생활과 도덕문	소단원	(2)친척간의 도덕문제와 해결	쪽수	146~148쪽
교과서 내용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 style="font-size: small;">과다한 음식 준비는 부담을 준다.</p> </div> <div style="width: 45%;"> <p>할아버지: 요즘 젊은이들은 조상에 대한 예의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큰 일이다. 제사를 지내는 데 정성이 없고, 객지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제사에 참석조차 않으니…….</p> <p>손자: 할아버지께서 보시기에는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그 형식과 절차는 필요에 따라 간소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p> <p>할아버지: 조상들을 공경하는 마음과 그분들을 모시는 형식이 따로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야. 열 마디 말 보다는 한 번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것이 더 낫지.</p> <p>손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예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잖아요? 할아버지,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p>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small;">제례는 조상에게 감사할 드리는 의식이다.</p> </div> </div> <p>우리의 전통문화를 소개하면서 제사문화를 소개하는 것도 좋으나, 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남자의 모습들만 보이고 있다.</p>				
비추천 사유	<p>좌측 상단 사진은 ‘제사문화는 남자 중심’이라는 고정관념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꼭 남자만 절하고, 여자는 있을 곳이 아니라는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하단 사진 역시 여성은 음식준비, 차례 상에 음식을 올리는 것은 남자의 몫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다.</p> <p>우측(147쪽) 글에서도 ‘손자’와 ‘할아버지’ 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사가 오직 남성들만의 것이라는 걸 무의식 중에 강조하는 격이 된다고 할 수 있다.</p>				
개선안	달라지고 있는 제사문화를 보여주는 사진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학교급	중등 3	교과목	사회	출판사	금성
중단원	2. 민주시민과 경제 생활	소단원	2-3 민주 시민의 경제적 구실	쪽수	61쪽
교과서 내용					
비추천 사유	<p>아래 사례는 소비자의 권리를 삽화로 조목조목 제시하고 있어 바람직하지만, 소비자 캐릭터가 여성으로만 등장되어 흔히 소비는 '여성', 생산은 '남성'이라는 고정관념을 반영한다.</p>				
개선안	<p>소비자에 남성 캐릭터도 삽입한다.</p>				

학교급	고등 1	교과목	사 회	출판사	(주)두산															
대단원	VIII . 국 민 경 제 와 합 리 적 선 택	중단원	2. 현대의 경제문 제와 해결방안	쪽수	224															
교과서 내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 style="text-align: center;">보충</p> <h3 style="text-align: center;">지식 기반 경제의 특성</h3> <p>지식 기반 경제는 산업 사회의 경제와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며 경제 활동이 가상 공간에까지도 확대되는 특징을 지닌다. 다음 표를 참고로 제조업과 벤처 형태의 기업이 생산, 판매, 자금 조달 등과 같은 활동에서 어떻게 다른 특징을 보이는지를 비교하여 생각해 보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th> <th>20세기 산업 사회</th> <th>21세기 지식 기반 경제</th> </tr> </thead> <tbody> <tr> <td>핵심 생산 요소(기반 기술)</td> <td>산업 자본(산업 기술)</td> <td>인적·자식 자본(정보 통신 기술)</td> </tr> <tr> <td>경쟁 내용</td> <td>· 품질 · 정보 기술의 독점</td> <td>· 정보 기술의 공유 · 선발자 우선(winner takes all)</td> </tr> <tr> <td>경제 활동 공간</td> <td>· 선·후발자 간 경쟁 가능</td> <td>· 세계 경제 가상 공간으로 확대</td> </tr> <tr> <td>경제 운영 체제</td> <td>· 국가 경제 중심 · 국가와 기업 중심 · 수직적 경영 체제</td> <td>· 개인과 기업 주도 · 협조적 경영 체제</td> </tr> </tbody> </table>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제조업</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첨단 산업</p> </div> </div> </div>						20세기 산업 사회	21세기 지식 기반 경제	핵심 생산 요소(기반 기술)	산업 자본(산업 기술)	인적·자식 자본(정보 통신 기술)	경쟁 내용	· 품질 · 정보 기술의 독점	· 정보 기술의 공유 · 선발자 우선(winner takes all)	경제 활동 공간	· 선·후발자 간 경쟁 가능	· 세계 경제 가상 공간으로 확대	경제 운영 체제	· 국가 경제 중심 · 국가와 기업 중심 · 수직적 경영 체제	· 개인과 기업 주도 · 협조적 경영 체제
	20세기 산업 사회	21세기 지식 기반 경제																		
핵심 생산 요소(기반 기술)	산업 자본(산업 기술)	인적·자식 자본(정보 통신 기술)																		
경쟁 내용	· 품질 · 정보 기술의 독점	· 정보 기술의 공유 · 선발자 우선(winner takes all)																		
경제 활동 공간	· 선·후발자 간 경쟁 가능	· 세계 경제 가상 공간으로 확대																		
경제 운영 체제	· 국가 경제 중심 · 국가와 기업 중심 · 수직적 경영 체제	· 개인과 기업 주도 · 협조적 경영 체제																		
비추천 사유	<p>제조업에 여성들을 중심으로 사진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여성들은 산업 사회에서나 지식기반사회에서도 단순 서비스직 및 노동직에만 종사한다는 인식을 줄 가능성이 있다.</p>																			
개선안	<p>남녀가 공히 종사하는 제조업 직종이나 여성이 리드하는 지식기반 직종으로 사진을 교체한다.</p>																			

학교급	고등	교과목	국어(상)	출판사	
대단원	2. 짜임새 있는 말과 글	중단원	준비학습	쪽수	68-69
교과서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식탁에 느림의 물결</p> <p>● 진행자: <u>패스트 푸드</u>로 상징되는 바쁜 현대 사회에서도 음식만은 느긋하고 건강하게 즐기자는 <u>슬로우 푸드 운동이 주부들 사이에서 확산되고</u> 있습니다. 패스트 푸드 대신 손이 많이 가는 전통 음식을 식탁에 올리고 채소 등을 손수 재배하는 <u>주부들도</u> 늘고 있습니다. 취재에 ○○○ 기자입니다.</p> <p>● 기자: 3층집 옥상이 텃밭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부 박용인 씨는 해질 녘이면 옥상에 올라와 저녁 식탁에 올릴 채소의 일을 맡니다. 밭고 먹음직한 채소를 구할 수 없을까 생각한 끝에 상추며 쪽갓, 고추 등 20여 가지 채소를 길러 온 지 3년째입니다.</p> <p>● 박용인: 저희는 진짜 일 년 열두 달 병원을 모르고 사는 정도예요.</p>   <p>텔레비전 방송 기사로서 ‘식탁에 느림의 물결’이라는 표제의 뉴스 기사 대본과 삽화이다.</p>				
비추천 사유	<p>웰빙(Well-being)신드롬이 일면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여성에게만 치우쳐져 보도되고 있다. 뉴스 주제가 식탁문화와 먹거리에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주부만 인터뷰할 필요는 없다. 또한 기사문 내용 중에 식품 영양학 교수의,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발효 식품을 즐겨 먹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많이 애쓰셔야 한다’는 인터뷰 내용도 나오므로 남성과 여성이 함께 다루어져야 함에도, 주부들 사이에서만 느린 식탁을 위한 모임도 생겨나고 있다는 서술만 나오고 있다.</p>				
개선안	<p>아버지가 직접 채소를 재배하는 모습이나 음식을 만드는 장면도 충분히 뉴스 내용에 들어가도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뿐만 아니라 남성들 사이에서도 ‘슬로우 푸드’바람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례나 인터뷰 자료도 첨부한다.</p>				







학교급	고등	교과목	체육	출판사	금성
대단원	10단원	중단원		쪽수	170~213
교과서 내용	<p>10단원은 구기 운동으로, 축구-농구-배구-핸드볼-야구 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p> <p>그런데, 10단원의 첫 소단원, 즉 축구에 대한 소단원 안의 캐릭터들 중 여자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를 찾기 힘들다. 농구도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캐릭터가 남자로 그려져 있다.</p> <p>배구는 그나마 188쪽 좌측 하단에 배구공을 치는 각도에 대한 그림에서 여캐릭터가 작게 두 명 그려져 있긴 하지만, 나머지는 역시 모두 남자이다.</p> <p>그에 반해 핸드볼은 모든 캐릭터가 여자이다. 200쪽이나 202 하단의 작은 그림들에는 남자로 그려져 있기는 하나, 누구나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핸드볼 소단원에만 여캐릭터가 집중되어 있다. 끝으로 마치 일부러 한 듯, 야구 소단원은 모든 캐릭터가 남자이다.</p>				
비추천 사유	<p>이렇게 볼 때, 이 교과서에서 의도한 바는 마치 축구, 농구, 배구, 야구는 남자의 종목이고 핸드볼은 여자의 종목이라는 것을 드러낸다.</p>				
개선안	<p>체육종목에 있어 성별 안배로 남성만, 여성만을 위한 종목 등에 대한 편견이 배제되도록 한다.</p>				

학교급	고등	교과목	사회	출판사	교학사
중단원	1. 장소의 인식과 입지 결정	소단원	1. 장소의 인식과 입지	쪽수	70쪽
교과서 내용	 <p>◆ 사람마다 나이와 생활 경험,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다.</p> <p>본 단원은 장소의 인식과 입지 결정의 단원에 나오는 삽화로, 장소 인식에 있어 개인차를 삽화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하는 장면이다. 삽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남성은 체육하고 있는 모습, 여성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있는 모습, 남성이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 등을 묘사하고 있다</p>				
비추천 사유	<p>이 삽화는 마치 여성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있는 폐쇄적이고 가정적인 모습으로 일하는데 반해, 남성만이 외부활동을 하는 존재로 인식시킬 우려가 있다.</p> <p>또한 남학생은 “우리 동네 체육공원이 있고 학교도 가까이 있어 참 좋아요”라고 하고 있으며, 한 성인 남성은 “지하철역이 가까이 있고 산이 멀지 않은 곳에 있어 그런대로 만족할 만한 동네이지요”라고 자신이 입지를 결정한 것을 언급하고 있다. 그에 반해 여성은 “시장이나 대형 할인매장이 없을 뿐 아니라 은행도 가깝지 않아 살기 불편한 동네입니다”라고 하고 있다. 남학생은 체육활동을, 남성은 출퇴근이나 이동에 있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 여성은 가정살림살이와 관련해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p> <p>즉, 삽화뿐만 아니라 글에서도 남성은 외부적인 존재, 여성은 가정에 내조적인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다.</p>				
개선안	적절한 성별 안배로 성별역할에 대한 차별이 조장되지 않도록 한다.				

학교급	고등	교과목	사회	출판사	교학사
중단원	2. 현대 경제 문제와 해결 방안	소단원	2. 실업과 물가불안	쪽수	228쪽
교과서 내용	<p>이 삽화를 보면 남성은 밖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가정에 보태는 입장으로, 여성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으며(가정살림을 대표하는), 그런 남성에게 소위 바가지를 긁는 역할로 표현되고 있다.</p>				
비추천 사유	남성이 돈을 벌어오는, 여성은 그 돈을 받아서 쓰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는 사례이다.				
개선안	사회적으로 성별 역할이 고정화되어 있다고 생각되지 않도록 수정한다. 예를 들어 부부 모두를 직업인으로 변경하면서 물가상승을 걱정하는 모습으로 수정한다.				


학교급	고등	교과목	사회문화	출판사	대한교과서
대단원		중단원		쪽수	66쪽
교과서 내용	<p>오후 8시 오늘은 무척 바쁜 날이다. 두 달에 한 번씩 있는 고등 학교 정기 동창 모임에 참석하여 친구들과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p> <p>밤 11시 집으로 돌아오니 먼저 퇴근한 아내가 따뜻하게 맞아 준다. 아~ 역시 집이 최고야.</p> <p>새벽 5시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스포츠 센터로 갔다. 아침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p> <p>오전 8시 간단히 아침을 먹고 회사에 출근을 했다. 아침부터 부장에게 서류에 오류가 있다며 야단을 들었다. 아~ 고달픈 직장 생활</p> <p>오전 12시 동료들과 식사를 하고 나서 회사 근처 장소에 둘러 대충 필요한 민원 서류를 받았다.</p> <p>오후 5시 오늘은 사내 불링 동아리의 정기 운영 회의가 있다.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사내 불링 대회 개최를 위해 준비해야 할 일이 많다.</p> <p>오후 6시 나는 시민 환경 단체에서 자원 봉사자로 활동한다. 퇴근 후에 잠깐 둘러서 상근 간사들과 해야 할 일을 논의하였다.</p> <p>오후 5시 오늘은 사내 불링 동아리의 정기 운영 회의가 있다.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사내 불링 대회 개최를 위해 준비해야 할 일이 많다.</p>				
비추천 사유	그림과 함께 여성은 남성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을 맞아주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으며, 남성을 주체적으로 여성을 수동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개선안	늦은 시간이니, 가족 모두가 쉬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한다.				

학교급	고등	교과목	사회문화	출판사	대한교과서
대단원		중단원		쪽수	56쪽
교과서 내용					
비추천 사유	<p>선거 유세 장면을 삽화와 하고, 그 가운데 유권자가 어떤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양당 후보자가 모두 남성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여성은 지지자로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이 일반화 되고 있는 요즘, 정치의 남성의 전유물이라는 사고를 심어줄 수 있다.</p>				
개선안	<p>정치적 활동에서 성적 비율을 고려한다.</p>				

학교급	고등	교과목	생태와 환경	출판사	대한교과서
대단원	중단원			쪽수	189
교과서 내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5px; border-radius: 1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조사 활동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h3 style="margin: 0;">내분비 장애 물질로부터 피해 줄이기</h3> <p style="margin: 0; font-size: small;">아래의 그림을 보고, 내분비계 장애 물질의 노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자.</p> </div> </div> <div style="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1fr 1fr; gap: 10px; margin-top: 10px;"> <!-- Top Left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 style="font-size: x-small;">뜨거운 음식이나 물은 되도록 유리 그 릇을 이용하여 담는 다.</p> </div> <div style="width: 45%; 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width: 45%;"> <p style="font-size: x-small;">인스턴트 식품이나 깎수입 될 수 있는 식품에는 보존제나 첨가물이 있을 수 있으 므로 주의한다.</p> </div> <div style="width: 45%; text-align: center;">  </div> <!-- Middle Left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 style="font-size: x-small;">플라스틱 봉기나 비닐 봉지 등을 한부 도 터지지 않고 분 리, 배출을 한다.</p> </div> <div style="width: 45%; 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width: 45%;"> <p style="font-size: x-small;">전사 과정에서 음식을 데울 때에는 랩을 사용하지 말고 우리 덮개를 사용하 다.</p> </div> <div style="width: 45%; text-align: center;">  </div> <!-- Bottom Left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 style="font-size: x-small;">유아의 젖병이 수 품용인지 확인하고 끓는 물에서 오랫동안 안 수증기 지 않는다.</p> </div> <div style="width: 45%; 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width: 45%;"> <p style="font-size: x-small;">아이들이 플라스틱 장난감이나 장우가를 빨지 못하게 한다.</p> </div> <div style="width: 45%; text-align: center;">  </div> </div> <div style="margin-top: 10px; text-align: center;"> <p>아래 사례를 볼 경우 여성은 모두 가사 일을 도맡아 하고, 남성은 음식 먹는 것과 물건 사는 것의 일을 하고 있다.</p> </div> </div> </div></div></div>				
비추천 사유	요즘 가정에서도 부모가 역할을 나눠서 잘하고 있는데, 요즘 세대에 맞지 않는 삽화이다.				
개선안	가사와 양육을 분담하고 있는 남성을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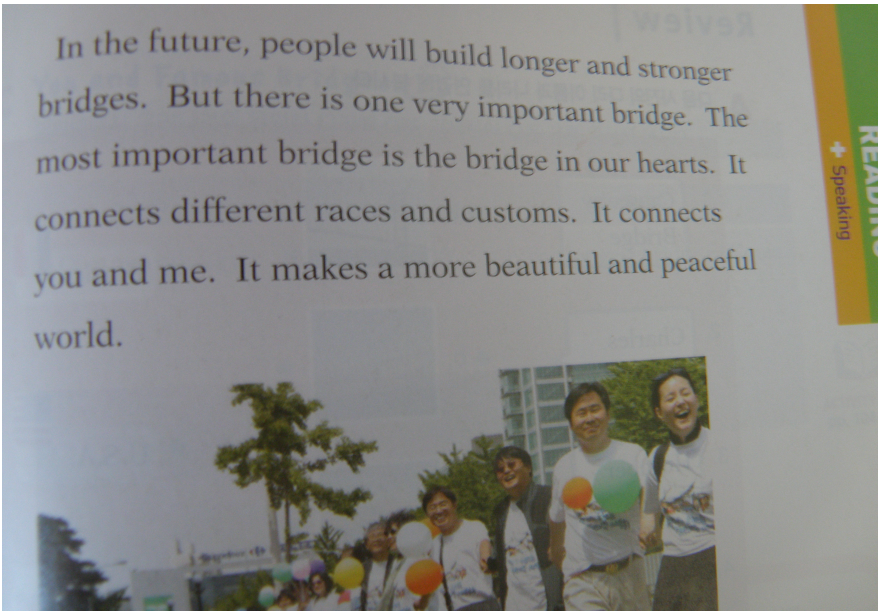
학교급	고등	교과목	중국어	출판사	시사출판사
대단원		중단원		쪽수	172쪽
교과서 내용	<div style="text-align: center;"> <p>5 各行各业 다양한 직업</p> <p>172 부록 主妇 zhǔfù</p> </div> <p>아래 삽화는 직업에 대한 단어를 익히는 것인데, 너무도 분명하게 여자와 남자의 직업을 구분해 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매표원, 점원, 간호사는 여자로 그리고 대통령, 의사, 회사원, 군인, 정치인 같이 남자들의 직업이라는 고정관념이 오래전부터 박혀 있었던 직업들은 역시나 남자들로 표현되고 있다.</p>				
비추천 사유	<p>이런 삽화는 ‘이런 것은 여자들의 직업’, ‘이런 것은 남자들의 직업’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게 할 수 있다. 고정관념이 아니더라도 사회에서 높게 대우받는 직업들은 모두 남성들의 전유물로만 표현해 여성을 배제하고 있다.</p>				
개선안	<p>직업에 있어 성별로 구분 짓지 않도록 수정·표현한다.</p>				

학교급	고등 1	교과목	영어	출판사	중앙교육
대단원		중단원		쪽수	42쪽
교과서 내용					
비추천 사유	<p>영어교과서에서조차 여성인 어머니가 앞치마를 매고 요리를 혼자 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어 성역할 고정관념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p>				
개선안	<p>가사 일이 어머니, 여성의 전유물로 보이지 않도록 가족 일부 구성원이나 온 가족이 참여하는 것으로 삽화를 수정·표현한다.</p>				

학교급	고등	교과목	과학	출판사	지학사
대단원		중단원		쪽수	198
교과서 내용	<p>다음 그림은 어느 가족의 단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p>  <p>정리</p>				
비추천 사유	<p>어머니가 음식을 나르고, 아버지는 쇼파에 편히 앉아서 TV를 보고 있습니다. 흔히들 가정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역할/어머니의 역할 곧, 양성평등에 어긋난다.</p>				
개선안	<p>아버지, 어머니 함께 가사 일이나 양육을 함께 하는 모습으로 수정·표현한다.</p>				


학교급	고등	교과목	사회	출판사	지학사
대단원		중단원		쪽수	249
교과서 내용					
비추천 사유	<p>‘결손가정’, ‘정상 가정’이란 용어는 부적절하다.</p>				
개선안	<p>결손가정이라고 지칭하기보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필요 ‘한 부모, 조손 가정 등’으로, ‘정상가정’은 ‘양부모가정’ 등으로 수정한다.</p>				

학교급	초등 5	교과목	생활의 길잡이
단원명	5. 서로 존중하는 태도	쪽수	66
교과서 내용	<p>▶ 다음 만화를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p>  <p>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염소들이 서로 길을 비켜주지 않아서 모두 떨어져 버리고 만다는 이야기를 만화로 나타내고 있다.</p>		
비추천 사유	<p>학생들 중 일부는 이 만화를 흑백의 싸움으로 연상 짓는 경우들이 있었다. 인종적으로 백인과 흑인의 대립이라고 생각하고, 흰 염소가 먼저 왔고, 늦게 온 검은 염소가 비켜주지 않는다고 여기는 학생들은 흑색(흑인)은 나쁘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p> <p>즉 교육적 목적과 달리 검은색과 흰색의 대비로 자칫 인종적 대립을 연상시키고, 흑색은 나쁘다는 편견과 차별을 조장시킬 우려가 있었다.</p>		
개선안	<p>꼭 흰색, 검은색 염소가 아니어도 이 이야기의 의도는 충분히 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서로 다른 동물로 대처해도 좋을 것 같고 같은 색의 염소 두 마리라도 상관없을 것 같으니 이를 수정하면 될 것 같다.</p>		

학교급	중등 1	교과목	영어	출판사	능률
대단원	Lesson7 본책	중단원	Reading	쪽수	105
교과서 내용					
비추천 사유	<p>우리의 마음에 다양한 인종과 관습을 연결하는 가교를 만들자라는 교과서 지문과 달리 하단 사진에는 동양인들만 보인다.</p>				
개선안	<p>피부색, 국적, 민족을 초월한 사람들의 사진으로 교체한다.</p>				

학교급	고등	교과목	사회	출판사	교학사
대단원		중단원		쪽수	108
교과서 내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 style="text-align: center;">세상 잇보기 개발이나 보전이나</p> <p style="text-align: center;">국제 협약에 대한 각국의 대표들의 입장</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중국</p> <p>오늘날의 환경 위기는 선진국들이 초래했으니 선진국들이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p> <p>미국</p> <p>온실 가스의 발생을 막기 위해 무역 제재도 불사해야 합니다. 오염 물질을 배출시키는 상품은 세금을 더 높여야 하며, 개발도상국들도 환경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p> <p>유럽 연합(EU)</p> <p>우리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환경 문제는 발생 지역이 어디든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의 문제입니다.</p> <p>브라질</p> <p>우리는 빛이 많소. 우리는 삼림 밖에 없으니까 빛을 갉으려면 개발 할 수밖에 없소.</p> <p>아프리카 연합</p> <p>환경 기준을 지키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비싸군요.</p> <p>일본</p> <p>지구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오염 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자연 환경 보호에 동참해야 합니다. 브라질도 더 이상 삼림을 벌채해서는 안됩니다.</p> </div> <div style="width: 45%;"> <p>✓ 국제 협약에 대해 비슷한 입장의 국가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진 국가들인가? 입장이 다른 국가들은 무엇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는가?</p> </div> </div> </div> <p>유럽연합은 인식을 개선하자는 좋은 취지의 내용을 말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일본은 마찬가지로 개선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해 반해 중국은 선진국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아프리카연합은 돈만 따지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브라질은 빛이 많고 삼림밖에 없다는 식으로 표현되고 있다.</p>				
비추천 사유	<p>누가 보아도 '중국, 아프리카, 브라질은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다, 유럽연합, 미국, 일본은 환경보존을 생각하는 좋은 나라이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어느 국제 환경단체의 발표를 보면, 미국이 온실 가스를 많이 내는 나라중의 하나인데 그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p> <p>결국 이 사례는 후진국은 무지하고 비인간적인데 반해, 선진국은 환경 보호, 환경친화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소 후진국과 선진국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p>				
개선안	<p>삼화에 있어 좀 더 인종을 고려하고, 그 나라에 대한 말주머니를 조금 개선하거나, 차라리 K국, A국..식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p>				

학교급	고등	교과목	영어	출판사	능률교육
대단원		중단원		쪽수	전체적
교과서 내용	<p>B. Act It Out 👤</p> <p>다음 인물의 소망을 보기에서 찾아 빈칸에</p> <p>1.  Tom</p> <p>2.  Jina</p> <p>3.  John</p>				
비추천 사유	<p>영어교과서에 삽화나 사진에 외국인이 자주 등장하기는 하지만, 백인이 ‘영어를 쓰는 외국인’으로 거의 대부분의 삽화를 차지할 거라는고 까지 생각하진 못했다.</p> <p>자세히 살펴보면 아프리카계 인종 ‘흑인’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 중에는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상당한데 말이다. 백인중심주의를 은연 중 드러내고 있다.</p>				
개선안	<p>전 인종 모두가 골고루 삽화나 사진에 실릴 수 있도록 하여 인종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한다.</p>				

학교급	고등 1	교과목	사회	출판사	법문사
대단원	IX. 공동체 생활과 사회발전	중단원	1. 공동체 생활의 여러 문제	쪽수	293
교과서 내용	<p>세계 시민이 되는 길</p> <p>이전에는 공동체가 가족이나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한 작은 규모의 집단을 의미하였으나, 세계화 시대에 이르러서는 민족과 세계 인류까지를 포함하는 폭넓은 의미를 갖는다. 오늘날 지구상의 어느 지역도 지구 전체의 자연 환경의 영향을 벗어나 살 수 없다. 또한, 정치·경제적으로도 다른 나라의 영향을 벗어나 독자적으로 사는 공간을 만들 수 없다.</p> <p>이제 지구상의 모든 국가와 집단 및 개인은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동시에 그에 따르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폭력과 불평을 배제하면서 평화와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피부 색깔, 인종, 성별, 연령, 종교, 경제적 지위, 출신 및 거주 공간 등의 차이로 인하여 사람을 차별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 무분별한 육구 총족, 이윤 추구, 생명 경시를 중단하고 인간과 지구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통성을 넓히는 동시에 개별성과 다양성을 보존하며, 상호 이해의 바탕 위에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할 때에 바담직한 인류 공동체는 형성되고 발전해 나갈 것이다.</p> 				
비추천 사유	<p>민족, 인종, 종교 등을 초월하여 모두가 하나가 되는 세계시민으로 가는 과정을 표현하면서 유독 흑인만 입을 과장되게 표현하여 흑인을 혐오스럽고 차별화시킨다.</p>				
개선안	<p>다른 사람들과 같이 피부색만 다르게 표현한다.</p>				

학교급	고등	교과목	사회·문화	출판사	법문사
대단원	V. 현대 사회와 사회 문제	중단원	3. 가치관과 사회 발전	쪽수	204
교과서 내용	PRE-STUDY 문제아 투성이 흑인 학교에서 헌신적으로 교사생활을 하던 조너선 레빈의 사례				
비추천 사유	<p>사회·문화 교과서를 포함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 중에 미국의 인종 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흑인 빈민가’, ‘흑인 고등학교’라는 단어는 학생들에게 ‘흑인은 가난하고 흑인 청소년은 문제아’라는 인종에 대한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p> <p>지문에서처럼 ‘총기 사고가 너무 잦아서 아예 학교 입구에 금속 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문제아 투성이 흑인 학교’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왜 미국 사회에 그러한 문화가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사회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p> <p>지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문을 표현한 삽화에서 조너선 레빈이 백인으로 등장하여 ‘부자이고 천사 같은 백인이 가난한 문제아 흑인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이것 역시 흑-백 인종간 편견을 높인다.</p> <p>또한 조너선 레빈이 타임-워너 회장 제럴드 레빈의 아들임을 학급에서 밝힌 후, 그가 부자일 것으로 오인한 학생이 그를 살해했기 때문에 사례 자체의 적절성 및 설명의 정확성에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p>				
개선안	<p>PRE-STUDY의 내용을 전면 교체한다.</p> <p>질문은 ‘우리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가치관은 무엇일까?’이며, 이후 제시되는 단원은 ‘사회 변동과 가치관의 혼란’이다. 현재 교과서에 실린 조너선 레빈의 사례는 ‘우리 사회 발전에 필요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제시하려 했던 의도로 보이나 적절하지 않다.</p> <p>같은 주제로 테레사 수녀와 같이 인류를 위한 봉사에 헌신한 인물들을 인종 문제가 부각되지 않게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찾을 수 있다면 행려병 환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의사 단체 등 국내에서 사례를 찾는 것도 좋을 것이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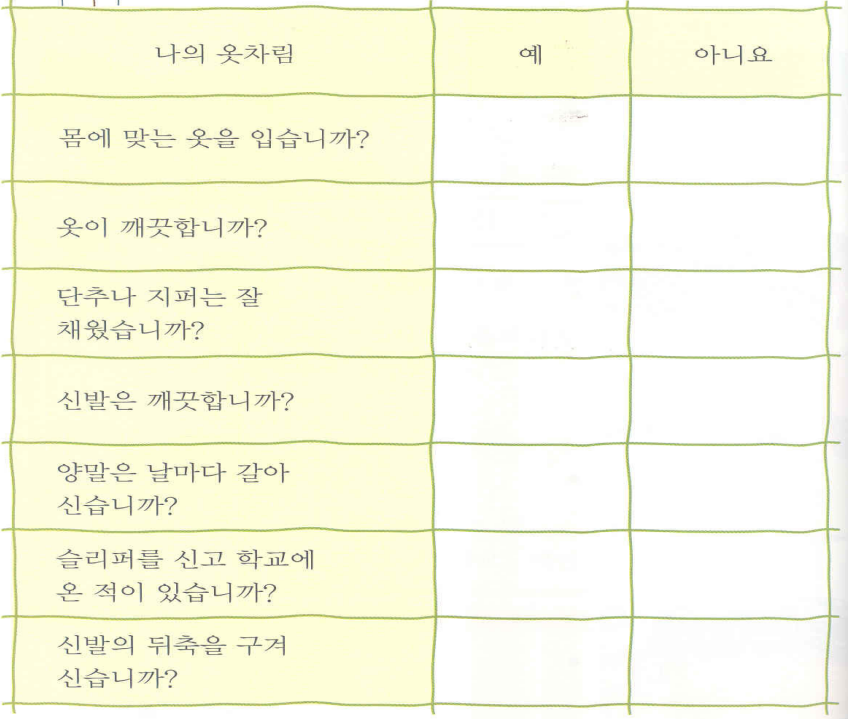
학교급	고등	교과목	사회·문화	출판사	법문사
대단원	V. 현대 사회와 사회 문제	중단원	2. 현대 사회 문제와 대책	쪽수	191
교과서 내용	<p>사례 탐구- 청년 실업 문제, 개인의 문제인가 사회의 문제인가 정모(23)씨는 지난 4년여 동안 주변에 자신을 ‘미국유학생’이라고 소개하였지만 1년의 대부분을 서울에서 보낸다. 사람들이 학교 이름을 물으면 몇몇 대학 이름을 주워섬기지만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 그는 의류사업을 하는 아버지 덕분에 별 부족한 것 없이 ‘백수’생활을 즐기고 있다. 집에 있는 벤츠와 그랜저를 번갈아 몰고 다니는 정씨는 요즘 ‘유학생 노릇’도 시들해졌는지 벤처 사업을 구상중이라고 한다. 서울 가리봉동에 사는 고교 중퇴자 박모(23)씨, 마음 내키면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으로 돈을 벌기도 하지만, 한 달 소득이 전무할 때가 많다. 변변한 기술을 배운 적도 없다. 매일 해가 중천에 뜰 때쯤 일어나 저녁 무렵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PC방, 만화방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술을 마시곤 하는 박씨는 막노동을 하는 아버지(49)에게서 용돈을 얻어 쓴다.(○○신문, 2001.5.10)</p>				
비추천 사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문제인 청년실업에 대해 알아보는 지문인데, 그러한 교육목적과 달리 사례는 모두 자발적 실업자 혹은 니트족을 등장시킴으로서 청년 실업을 사회적 문제로 파악하기보다 무능과 게으름 등의 개인적 성향으로 혼동하기 쉽게 기술해두었다. 2. 또한 청년실업이라는 똑같은 상황에 부딪힌 정모씨와 박모씨 사례에서 빈부를 드러냄으로써 ‘가진 사람’의 처지가 나은 것처럼 기술하고 있어, 부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빈부에 의한 차별을 조장할 수 있으며, 박모씨처럼 비슷한 가정환경을 가진 학생에게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개선안	<p>청소년 비행이나 이혼 문제와 같이, 개인의 문제인지 사회의 문제인지 고민해볼 여지가 많은 다른 사례를 제시한다. 사례를 제시할 때, 부정적인 개인의 모습을 강조하여 사회적 문제보다는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회 문제로 제시된 사례가 같은 배경을 가진 학생에게 수치심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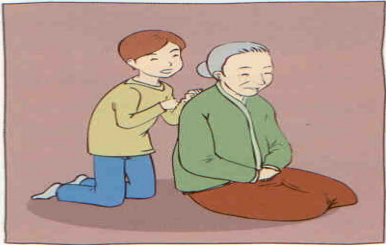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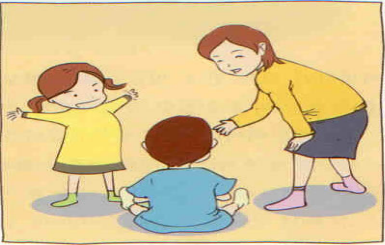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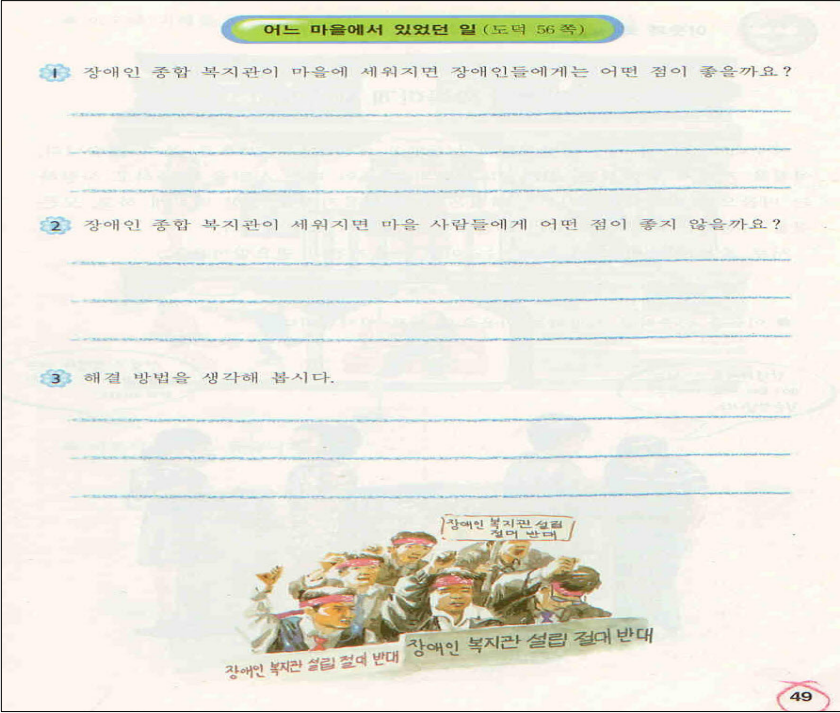
● 비추천 사례

Ⅱ.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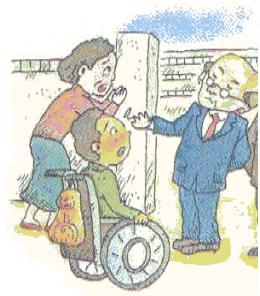
학교급	초등 2-1	교과목	생활의 길잡이
단원명	3. 단정한 모습	쪽수	28
교과서 내용			
비추천 사유	<p>이 체크리스트에는 이 연령의 아동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기보다 가정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예, 몸에 맞는 옷을 입습니까?, 옷이 깨끗합니까?). 또한 이러한 체크 결과가 아동들의 유능, 무능 또는 모범, 불량으로 귀결 될 우려도 있다.</p>		
개선안	<p>아이들 스스로가 지킬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단정한 옷차림' 또는 '상황에 맞는 옷차림'이 지도되어야 한다.</p>		






학교급	초등 5	교과목	도덕
단원명	3.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	쪽수	48
교과서 내용	<div data-bbox="372 329 1196 1074"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서로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p> <p>선택 활동 1 다음 활동 중에서 한 가지를 정하여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봅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purple;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활동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자 사시거나 양로원에 계시는 노인을 방문하여 말동무 되어 드리기 • 몸이 불편한 아이와 놀아주기 • 소년 소녀 가정의 집을 찾아가 도와주기 • 고아원을 방문하여 도와주기 • 혼혈인 친구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알아보기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 10px 0;">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orange; padding: 5px; margin: 10px 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려웠던 점이나 보람 있었던 점을 말해 봅시다. 2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왜 필요한지 말해 봅시다. </div> </div> <p>서로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해보는 선택활동이다.</p>		
비추천 사유	<p>이 활동은 공경과 사랑의 마음을 실천해볼 수 있는 활동들이기는 하나 상대방의 배려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우선 몸이 불편한 아이와 놀아주기나 소년소녀 가정도와주기 등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나 어떻게 놀아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나누기 활동이 전혀 없고 상대방에게 도움이나 나의 사랑이 필요한지 전혀 묻지 않고 하는 활동이라 실제로 실천하기 어렵다. 혼혈인 친구들이 겪는 어려움을 알아보는 활동도 알아본 후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하는지 생각해 보고 실천해보는 추후 활동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서 의미 없는 활동이 될 수 있다.</p>		
개선안	<p>학생들이 진심으로 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활동에 필요한 계획을 세우는 단계, 상대방에게 어떤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단계, 실천단계, 추후 학습 단계로 나누어 활동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활동시의 유의사항도 반드시 넣어 상대방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일방적이지 않도록 유도한다.</p>		

학교급	초등 5	교과목	도덕	출판사	
단원명	3.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	소단원	생활의 길잡이	쪽수	57
교과서 내용	 <p>어느 마을에서 있었던 일 (도덕 56쪽)</p> <p>1 장애인 종합 복지관이 마을에 세워지면 장애인들에게는 어떤 점이 좋을까요?</p> <p>2 장애인 종합 복지관이 세워지면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점이 좋지 않을까요?</p> <p>3 해결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p> <p>장애인 복지관 설립 절대 반대</p> <p>장애인 복지관 설립 절대 반대</p> <p>49</p>				
비추천 사유	<p>장애인 복지관이 세워지면 마을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진다고 반대한다. 참 현실적인 이야기다. 하지만 초등학생 5학년에게는 집값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반대하는 것들을 이해하기 어렵다. 경제적 이유로 인권이 존중될 수 없음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p> <p>밑의 그림도 반대하는 사람들만 나와서 아이들에게 반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p>				
개선안	<p>같은 내용이라도 조금 더 희망적으로 접근하면 좋을 수 있다. “장애인 복지관이 생겼을 때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점은 없을까요?” 등을 물어보는 것이다. 장애인들도 지역주민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더욱 강조하고 학생들에게 집값이 떨어져서 반대하는 현실(학생들은 잘 이해 못함)보다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활동일 것이다.</p>				





학교급	중등1	교과목	도덕
대단원		쪽수	248
교과서 내용	<p>함께 하기 3 이웃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p> <p>● 다음 글을 읽고, 이웃 간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지 내 생각과 그 이유를 써 보도록 하자.</p>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10px; margin: 10px 0;"> <p>오늘은 오랜만에 열리는 가족 회의날이다. 보통 때 가족 회의 시간에는 가족 문제나 집안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오늘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어머니께서 우리 마을에 장애인과 고아들을 위한 사회 복지 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라고 하셨다. 이 문제로 며칠 전에는 임시 반상회도 열렸다고 하셨다. 반상회에서 대다수의 주민이 사회 복지 시설 건립을 반대하였는데, 그런 시설이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지고, 아이들의 교육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더 모아 마을 전체의 공식적 입장을 나타낼 것이라고 하셨다. 어머니께서는 먼저 우리 가족의 생각을 듣고 난 후에 반상회에 가서 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생각 : ● 이 유 : </div>		
비추천 사유	<p>역시 장애인시설 건립에 대한 찬·반 관련 사례가 님비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사례, 혹은 지역사회 갈등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 설치로 지역사회 찬반 갈등이 형성되는 것은 사실이나 거의 대부분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사례로 제시되고 있음으로 해서 ‘시설=혐오시설’임을 확인시키는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 지역에 복지시설을 건립될 경우 그 혜택도 지역주민이 보게 되는 것이며, 지역주민 중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임에도 지역사회에 함께 살고 있는 지역주민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마치 외지의 사람들 혹은 완전히 별개의 사람들이 설립한다는 관점으로 사례를 기술하는 경향이 있다. 		
개선안	<p>혐오시설로 인한 지역갈등 사례에 복지시설 설립을 가급적 최소화하며, 사례로 제시할 때에는 건립해야 된다는 취지에 지역주민 중 장애를 가진 사람들, 지역주민의 복지와 편리를 위해서라는 논리를 함께 병행해줌</p>		


학교급	고등	교과목	사회	출판사	지학사
대단원		중단원		쪽수	267
교과서 내용	<p>○ 탐구 활동 개인의 권리와 공익</p> <p>집 근처에 장애인 학교가 생기지 못하도록 소송을 낸 서울의 한 아파트 주민들에 대해 대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우리 사회 도처에서 기승을 부리는 님비(NIMBY) 현상에 쫓겨를 박은 셈이다.</p> <p>장애인일수록 정상인보다 더 많은 교육과 훈련을 필요로 하는데, 국내에서는 장애인의 70% 이상이 의무 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p> <p>턱없이 부족한 교육 시설 때문에 정부가 운영하는 특수 학교는 물론이고, 값비싼 민간 기관에 들어가는 데도 한참씩 기다려야 한다. 더 이상 장애인 교육 기관의 설립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민과 지방 자치 단체의 반대에 밀려 제때 설립이 안 되는 실정이다.</p> <p>과제1 이러한 님비 현상의 사례를 찾아서 서로 대립되는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자.</p> <p>과제2 자신이 장애인이거나 그 가족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장애인 학교 설립 반대에 대한 항의문을 작성해 보자.</p>				
비추천 사유	<p>본 탐구활동은 개인의 권리보다 장애인 학교라는 공익이 우선될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하기 위한 좋은 탐구 활동이라 평가될 수 있다.</p> <p>그러나 지문에서 장애인의 반대용어로 ‘정상인’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실책을 범하고 있다.</p>				
개선안	<p>- ‘정상인’보다 → ‘비장애인’보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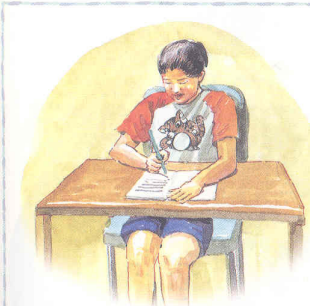
학교급	초등6	교과목	도덕
대단원		쪽수	163
교과서 내용	<p>선택 활동  카드놀이를 해 봅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놀이 방법</p> <p>우리 주변이나 세계의 불행한 어린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적어 온 카드를 모둠별로 모아 토의하고, 실제로 실천해 봅시다.</p> <p>카드 1. 국내의 지도자에게 지역이나 세계 문제에 대해 호소하는 편지 쓰기 (예 : 대통령께 '어려운 소녀 가정을 도와 주세요'라는 편지 쓰기, 신문사나 방송사에 편지 쓰기)</p> <p>카드 2. 어려운 이웃을 찾아 봉사하기(고아, 장애아, 노인 돕기)</p> <p>카드 3. 지역의 환경 보호에 참여하기(거리 청소, 나무심기)</p> <p>카드 4.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기금 모으기에 참여하기(용돈 아껴쓰기)</p>    		
비추천 사유	<p>불행한 어린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라 기술하면서 하단 어려운 이웃에 고아, 장애아, 노인을 포함하고 있는데, 고아, 장애아=불행이라는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p>		
개선안	<p>세계의 불행한 어린이를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의 어린이 카드1. '어려운 소녀가장' →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카드2. 어려운 이웃을 찾아 봉사하기(고아, 장애아, 노인돕기) →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주기적으로 봉사하기</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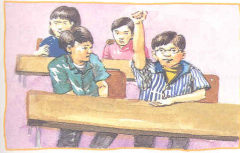
학교급	고등	교과목	도덕	출판사	교과부
대단원	도덕 공동체의 구현과 공동선의 추구	중단원	도덕공동체의 구현을 저해하는 요인들	쪽수	80
교과서 내용	 <p>도덕 공동체는 사회 구성원 모두 잘 사는 사회이다.</p> <p>도덕 공동체의 악화요인으로 집단이기주의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한 사례로 장애인 학교건립 반대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 덧붙여있는 사진이다.</p>				
비추천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이기주의 사례로 장애인 학교 건립반대 사례가 활용되고 있는데, 유사사례 반복사용으로 '장애인시설=협오시설'이라는 역효과를 조장하고 있으며, - 사용된 사진이 본 단원이 요청하는 집단 이기주의를 극복한 '도덕공동체' 사진이라 보고 어렵다. 사진은 분명 장애인들과 봉사자들의 모습이다. 				
개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 교체가 필요하다. 				


학교급	초등6학년	교과목	도덕
대단원	쪽수		93
교과서 내용	<div data-bbox="368 341 1130 1093"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10px;"> <p style="text-align: center;"> 내가 할 수 있는 배려와 봉사 활동 계획을 세워 실천해 봅시다.</p> <p>선택 활동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은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는 일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여러 장애인의 어려움을 체험해 보고, 그들을 위해 배려하여야 할 점을 찾아 실천해 봅시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ata-bbox="392 531 729 1054"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상황 1 : 팔이 불편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와 짝을 이룹니다. ● 압박 붕대를 준비하여 한 팔을 묶습니다. ● 친구의 도움 없이 학교에 옵니다. ● 친구의 도움을 받아 학교에 옵니다. ● 역할을 바꾸어서 합니다.  </div> <div data-bbox="772 531 1109 1054"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상황 2 : 말을 할 수 없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와 짝을 이룹니다. ● 가게에서 손짓, 몸짓으로 뜻을 전달하며 물건을 사 봅니다. ● 친구의 도움 없이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갑니다. ● 친구의 도움을 받아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갑니다. ● 역할을 바꾸어서 합니다.  </div> </div> <p style="text-align: right;">93</p> </div>		
비추천 사유	<p>장애이해 교육의 일환으로 장애체험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단순히 장애에 대한 어려움을 체험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p>		
개선안	<p>장애체험과 체험을 통해 생각해 보는 것은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저학년에는 불편을 이해하고 배려하도록 하는 것이 중심이라면, 고학년은 장애인을 불편하게 하는 사회 환경에 대해 인식하도록 하는 활동까지 이어질 수 있다.</p>		


학교급	중등1	교과목	도덕	출판사	
대단원	삶과 도덕	중단원	인물학습	쪽수	151
교과서 내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margin-bottom: 10px;"> 함께 하기 장애 체험하기 </div> <p>● 헬렌 켈러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3종의 장애인이었다. 학급 친구들과 장애인 체험 활동을 간단히 해 보고, 헬렌 켈러에 대하여 더 깊게 생각해 보자.</p> <p>①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장애인 체험 활동을 해 보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모두들 교실 뒤쪽으로 모인다. ② 저마다 눈가리개로 눈을 가리고 혼자서 장애물을 지나 교실 앞쪽으로 갔다가 돌아온다. ③ 말은 절대로 하지 말고, 손으로 천천히 더듬어 가면서 걷는다. ④ 장애물을 통과하여 돌아온 다음에는 두 사람이 서로 손을 잡고 다시 가 본다. ⑤ 다음에는 두 사람씩 짝을 지어, 한 사람은 눈을 가리고 시각 장애인이 되고, 한 사람은 입을 가리고 청각 장애인이 되어, 청각 장애인이 시각 장애인을 안내해 본다. 시각 장애인이 장애물을 벗어나서 그냥 통과할 때에는, 청각 장애인은 시각 장애인이 장애물을 손으로 만져 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보살피 준다. <p>② 장애인 체험 활동을 하고 나서, 혼자 걸어갈 때, 안내자와 함께 갈 때, 안내자의 역할을 할 때의 느낌을 말해 보자.</p> <p>③ 장애인 체험 활동을 하고 나서, 헬렌 켈러의 훌륭한 점에 대해서 새롭게 느낀 점이 있다면 써 보자.</p>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div> </div>				
비추천 사유	장애체험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단순히 장애에 대한 어려움을 체험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장애를 극복한 위인을 통해 장애를 개인의 극복기로 인식하게 할 소지가 크다.				
개선안	중등의 장애체험은 단순히 장애를 경험하는 것에 그치기보다 장애인을 불편하게 하는 사회 환경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되게 할 수 있을지 까지 확대할 수 있다.				

학교급	중등2	교과목	도덕	출판사	
대단원		중단원		쪽수	79
교과서 내용					
비추천 사유	<p>장애체험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단순히 장애에 대한 어려움을 체험하는 것에 그치고 있음- 사회적 환경에 대한 관심까지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p>				
개선안	<p>중등의 장애체험은 단순히 장애를 경험하는 것에 그치기보다 장애인을 불편하게 하는 사회 환경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되게 할 수 있을지 까지 확대할 수 있다.</p>				

학교급	초등 5	교과목	도덕	출판사	
대단원	4. 이웃사촌	중단원		쪽수	59
교과서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선이의 일기</p> <p style="text-align: right;">200○년 ○월 ○일 ○요일</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div> <div style="width: 50%;"> <p>나와 동생은 현장 체험 학습이나 운동회 때가 가장 싫었다. 친구들은 현장 체험 학습 때에 어머니가 따라오시기도 하고, 운동회 때에는 가족끼리 둘러앉아 맛있게 음식을 먹지만, 우리는 어머니가 오시기는커녕 김밥이나 과자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p> <p>생일에 미역국도 못 먹었고, 선물도 받아 보지 못했다. 친구들이 생일 잔치를 했다거나 선물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때면 몹시 부러웠다.</p> <p>또,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명절에 가족과 친척들이 모이는 것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방학이 되면 친구들이 외가에 간다고 자랑할 때에도 그랬다.</p> <p>학교 생활은 쓸쓸하기 짝이 없었다. 전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할 때에는 학교가기가 싫고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다. 그러나 지금은 괜찮다.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내 나름대로 거짓 없이 깨끗하게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p> </div> </div>				
비추천 사유	<p>소녀 가장의 학교생활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원인이 해결되거나, 친구들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지금은 괜찮다’라고 하며, ‘스스로 정직하게 살아가면 된다’고 쓰고 있는 것 등이 개연성이 부족하다.</p>				
개선안	<p>학교생활이 부정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극복해나가는 과정(예, 친구들과 과의 갈등해결, 우정 등)이 추가될 수 있도록 수정한다.</p>				

학교급	초등 5	교과목	도덕	출판사	
대단원	5. 서로 존중하는 태도	중단원		쪽수	69
교과서 내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10px;"> <p>☞ 다른 사람의 처지가 되어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해 봅시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div> <div style="width: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를 따돌리는 경우 ● 별명을 마구 부르거나 겉모양을 보고 놀려 내는 경우 ● 다른 사람이 질문할 때 비웃거나 놀리는 경우 </div> </div> <p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orange; padding: 5px; margin-top: 10px;">만일, 내가 위와 같은 경우를 당한다면 어떻게 하여야 좋을지 발표해 봅시다.</p> </div>				
선정 이유	<p>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말할 때 비슷한 경험을 가진 학생의 경우, 지난 상처를 되살리게 되며, 이러한 경험이 없더라도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았다.</p>				
개선안	<p>세 가지 경우를 다른 경우로 바꾸거나 읽기 사례를 제시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하다.</p>				

학교급	초등 6	교과목	도덕	출판사	
대단원	6. 아름다운 사람들	중단원		쪽수	88
교과서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젓갈 파는 할머니</p> <p>수산 시장에서 젓갈을 파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 할머니는 허름한 옷차림으로 매일 새벽 3시에 시장에 나와서 저녁 9시가 넘도록 일을 하십니다.</p> <p>할머니는 유일한 가족이자 말벗이던 외동딸이 교통 사고로 장애인인 된 후, 새우젓, 오징어젓을 팔아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재활원이나 고아원에 전해 주는 생활을 해 왔습니다.</p> <p>어느 해에는 등록금이 없어서 애태우던 중학생에게 장학금을 보낸 일도 있었습니다. 인사하러 찾아온 그 학교 교감 선생님은 혼자서 힘들게 일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돈을 돌려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p> <p>“돈 많은 사람만 남을 돕는 게 아니지요.”</p> <p>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딸이 대학에 들어가면 쓰려고 들었던 교육 보험을 해약하여 교육용 영어 만화책 3400여 권을 사서 복지 시설에 보냈습니다. 이렇듯 할머니의 봉사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p> 				
비추천 사유	<p>위 사례는 딸이 장애인이 되어 딸을 위하여 모아두었던 보험을 해약하여 남을 도와주는 선행을 베푸는 할머니 사례이나, 타인 이전에 할머니 자신의 딸에 대한 애정이 없는 행동으로 보여 진다.</p>				
개선안	<p>장애인이 된 딸과 상의한 끝에 이러한 봉사활동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정한다.</p>				

학교급	중등1	교과목	도덕	출판사	
대단원		중단원			쪽수
교과서 내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 style="text-align: center;">장애인에 대한 예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역시 인격을 지닌 존재라는 점을 인식한다. ●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장애인이기 전에 사람이다. 불구자, 장애자라는 용어는 삼간다. ● 장애인을 처음 볼 때 주춤하거나 괜히 쳐다보지 않는다. ● 장애인이라고 무조건 동정하거나 자선을 베풀지 않는다. ● 장애인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도와드릴까요?”라고 먼저 묻는다. ● 걷거나 이야기할 때 장애인이 원하는 대로 돕는다. ● 정신 지체 장애인에게 반말을 하거나 어린 사람 대하듯 하지 말고 실제 나이에 맞게 높임말을 사용한다. ● 시각 장애인의 지팡이는 그들의 눈이므로 지팡이를 쥐고 있는 손을 잡지 않도록 한다. ● 지체 장애인이 출입문 등을 무사히 통행하도록 먼저 배려한다.  </div>				
비추천 사유	<p><장애인에 대한 예절> 중 첫 번째로 “장애인 역시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점을 인식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예절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다른 예절과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다.</p>				
개선안	<p>다른 예절과 동순위로 취급하기보다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기본임을 조금 분명히 할 필요 있음</p> <p>예, 장애인 역시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점을 인식하고, 아래와 같이 태도나 행동에 예절을 지킨다.</p>				

학교급	중등2	교과목	도덕	출판사	
대단원		중단원		쪽수	91
교과서 내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10px;"> <p>함께 하기 2 참된 봉사 활동이란?</p> <p>● 다음 글을 읽고, 자기가 해 온 봉사 활동과 비교하여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right;">(2학년 1반 ○○○○)</p> <p>그 곳에서 일하면서 그들에게 너무나 미안했고, 나 자신이 너무나 미워졌다.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나보다 조금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그들을 무시했던 나의 모습. 그들은 자기 몸을 가누지 못했지만, 비록 말을 못 하거나 걷지 못했지만 모두들 천사였다. 걷지 못하는 사람에겐 서로 다리가 되어 주고, 말을 못 하는 사람에겐 서로 입이 되어 주는 그런 천사들이었다. 그 곳에는 자원 봉사자들도 많았다. 수녀님들을 비롯하여 병원의 의사 선생님, 또는 회사에서 실직당하신 분들조차 <u>그 곳에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계셨던 것이다.</u> - ■ ■ 중학교 봉사 활동 소감문집 『그 곳에 가면 꽃이 된다』 중에서</p> </div> <p>① 위의 글에 가장 알맞은 제목을 붙여 보자.</p> <p>② 내가 한 봉사 활동과 비교하여 다른 점은 무엇인가?</p> </div>				
비추천 사유	<p>참된 봉사활동에 관한 한 학생의 소감문을 소개하고 있으나 그 문구 중 “ ~ 그곳에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계셨던 것이다” 라는 문구는 부적절한 표현이다.</p>				
개선안	<p>그 곳에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계셨던 것이다 → 그 곳에서 <u>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u> 위해 봉사하고 계셨던 것이다</p>				


학교급	중학2	교과목	도덕	출판사	
대단원		중단원		쪽수	58
교과서 내용	<div data-bbox="362 446 1205 1113" data-label="Image"> <p>함께 하기 2 우리는 친구</p> <p>● 다음 사진을 보고, 느낀 점을 써 보자. 그리고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자.</p> <p>느낀 점</p> <p>우리가 할 수 있는 일</p> </div>				
비추천 사유	<p>생명을 존중하는 정신 아래 있는 ‘함께 하기 활동’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기아에 허덕이는 어린이 외에 다른 사진은 없어 인종이나 지역에 대한 편중적 사고를 가질 우려가 있다.</p>				
개선안	<p>- 생명을 존중하는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기아를 겪고 있는 어린이, 난민 어린이, 병마와 씨름하는 어린이 등 생명에 위협을 받는 여러 케이스를 함께 제시한다.</p>				

학교급	중등3	교과목	도덕	출판사																																																							
대단원		중단원		쪽수	143																																																						
교과서 내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10px;"> <p>함께 하기 4 우리 가족은 얼마나 건강한가?</p> <p>● 다음 각 문항을 읽고, 자신의 가족과 일치하는 정도를 1~5 중 알맞은 번호에 V표를 해 보자. 그리하여 각 문항에서 얻은 점수의 합계를 통해 우리 가족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p> <p>1 전혀 아니다. 2 대체로 아니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그렇다. 5 매우 그렇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body> <tr> <td style="width: 60%;">1. 함께 시간을 보내고 활동을 같이 한다.</td> <td>1</td><td>2</td><td>3</td><td>4</td><td>5</td> </tr> <tr> <td>2. 서로를 신뢰하며 현신적이다.</td> <td>1</td><td>2</td><td>3</td><td>4</td><td>5</td> </tr> <tr> <td>3. 가족들이 자주 대화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 주며, 각자의 느낌을 나누는 긍정적인 의사 소통을 한다.</td> <td>1</td><td>2</td><td>3</td><td>4</td><td>5</td> </tr> <tr> <td>4. 가족의 위기에 긍정적으로 대처한다.</td> <td>1</td><td>2</td><td>3</td><td>4</td><td>5</td> </tr> <tr> <td>5. 서로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td> <td>1</td><td>2</td><td>3</td><td>4</td><td>5</td> </tr> <tr> <td>6. 부부 관계가 친밀하다.</td> <td>1</td><td>2</td><td>3</td><td>4</td><td>5</td> </tr> <tr> <td>7. 부모 자녀 관계가 친밀하다.</td> <td>1</td><td>2</td><td>3</td><td>4</td><td>5</td> </tr> <tr> <td>8. 부부는 서로에게 자신감, 자존감, 행복감을 느끼도록 도와 준다.</td> <td>1</td><td>2</td><td>3</td><td>4</td><td>5</td> </tr> <tr> <td>9. 부모는 자녀가 자신감, 자존감, 행복감을 느끼도록 도와 준다.</td> <td>1</td><td>2</td><td>3</td><td>4</td><td>5</td> </tr> </tbody> </table> </div>					1. 함께 시간을 보내고 활동을 같이 한다.	1	2	3	4	5	2. 서로를 신뢰하며 현신적이다.	1	2	3	4	5	3. 가족들이 자주 대화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 주며, 각자의 느낌을 나누는 긍정적인 의사 소통을 한다.	1	2	3	4	5	4. 가족의 위기에 긍정적으로 대처한다.	1	2	3	4	5	5. 서로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	1	2	3	4	5	6. 부부 관계가 친밀하다.	1	2	3	4	5	7. 부모 자녀 관계가 친밀하다.	1	2	3	4	5	8. 부부는 서로에게 자신감, 자존감, 행복감을 느끼도록 도와 준다.	1	2	3	4	5	9. 부모는 자녀가 자신감, 자존감, 행복감을 느끼도록 도와 준다.	1	2	3	4	5
1. 함께 시간을 보내고 활동을 같이 한다.	1	2	3	4	5																																																						
2. 서로를 신뢰하며 현신적이다.	1	2	3	4	5																																																						
3. 가족들이 자주 대화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 주며, 각자의 느낌을 나누는 긍정적인 의사 소통을 한다.	1	2	3	4	5																																																						
4. 가족의 위기에 긍정적으로 대처한다.	1	2	3	4	5																																																						
5. 서로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	1	2	3	4	5																																																						
6. 부부 관계가 친밀하다.	1	2	3	4	5																																																						
7. 부모 자녀 관계가 친밀하다.	1	2	3	4	5																																																						
8. 부부는 서로에게 자신감, 자존감, 행복감을 느끼도록 도와 준다.	1	2	3	4	5																																																						
9. 부모는 자녀가 자신감, 자존감, 행복감을 느끼도록 도와 준다.	1	2	3	4	5																																																						
비추천 사유	<p>부부 관계가 친밀하다. 부부는 서로에게 자신감, 자존감, 행복감을 느끼도록 도와준다. 등의 항목이 있는데, 최근 이혼가정이 급증하면서 한부모 가정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할 때, 이와 같은 설문은 적절치 않다. 또한 답변을 못하는 가정은 건강한 가정의 범주에서 벗어난다는 편견을 불러올 수 있다.</p>																																																										
개선안	<p>부부 관계와 관련된 것을 가족 구성원 상호간(가족구성원이 누구이던)의 관계 체크하는 것으로 교체한다.</p>																																																										

학교급	중등	교과목	기술가정	출판사	두산
대단원		중단원		쪽수	15쪽
교과서 내용	<p><해보기> 역할극을 해 보자. 학교 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집단 따돌림 상황을 설정하고, 5인 1조가 되어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따돌림을 당하는 대상이 되어본다. 그리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서로 이야기해 보자.</p> <p>*하나 더 알기*</p> <p>따돌림을 극복하는 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내가 왜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지 그 원인을 찾는다. ② 따돌리는 친구가 놀리거나 욕을 하며 괴롭힐 때 울거나 힘들어하는 표정을 짓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말고 ‘하지마’ ‘싫어’라고 자기 표현을 분명히 한다. ③ 친구들에게 쪽지 편지 등을 통해 지금의 힘든 상황을 잘 전달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한다. ④ 따돌림으로 인해 자포자기하지 말고, 부모님이나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비추천 사유	<p>집단 따돌림에 있어 학생 스스로의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에 앞서 “내가 왜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는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 따돌림 당하는 학생에게 그 원인이 있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어서 힘들어 하는 친구를 더 자책하게 할 수 있다.</p>				
개선안	<p>설혹 따돌림의 원인이 개인적 요소가 일부 있다하더라도 이러한 역할극에 있어 원인을 본인에게 찾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삭제한다.</p>				

학교급	고등	교과목	사회	출판사	천재교육					
대단원		중단원		쪽수	268					
교과서 내용	<p>1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의 특징과 집단 따돌림의 유형에 대해 조사해 보자.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해 보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집단 따돌림 당하는 학생의 특징</th> <th style="width: 50%;">집단 따돌림의 유형</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자랑을 많이 한다. •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 •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활동에 함께 하지 않기 •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 가하기 • • </td> </tr> </tbody> </table> <p style="margin-top: 10px;"> <input type="button" value="검색"/> 한국 청소년 상담원 www.kyci.or.kr 한국 청소년 개발원 www.kiydre.kr 한국 청소년 문화 연구소 www.youth.re.kr </p>					집단 따돌림 당하는 학생의 특징	집단 따돌림의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자랑을 많이 한다. •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활동에 함께 하지 않기 •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 가하기 • • 	
	집단 따돌림 당하는 학생의 특징	집단 따돌림의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자랑을 많이 한다. •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활동에 함께 하지 않기 •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 가하기 • • 									
<p>2 집단 따돌림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사회적·교육적·가정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style="width: 30%;">사회적 요인</td> <td></td> </tr> <tr> <td>교육적 요인</td> <td></td> </tr> <tr> <td>가정적 요인</td> <td></td> </tr> </tbody> </table>					사회적 요인		교육적 요인		가정적 요인	
사회적 요인										
교육적 요인										
가정적 요인										

| 비추천 사유 | 이와 유사한 사례로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도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의 특징을 적어보게 하는 내용이 있다. 이는 따돌림 현상을 개인적 원인을 찾게 함으로써 피해 당사자 학생에게 자책하게 하여 상처를 더 크게 하거나, 자아 존중감을 상실할 수 있다. 또한 다른 학생들에게는 이를 정당화하게 할 소지가 있다. | | | | |
| 개선안 | 집단따돌림의 원인이나 유형을 알아보기보다, 집단따돌림이 무엇인지, 어떤 피해나 문제가 발생하는지 등을 기술하는 형식이 적절하다. | | | | |


학교급	고등	교과목	사회·문화	출판사	법문사
대단원	VI. 미래 사회의 전망과 대응	중단원	2. 민주 복지 사회의 이상과 전망	쪽수	238
교과서 내용	 <p>자료 VI-6 1981년 장애인 복지 제도가 정식으로 시행되어 장애인들의 복지가 향상되었다.</p>				
비추천 사유	<p>1981년 장애인복지법 제정으로 장애인복지가 향상되었다는 것을 상징적 의미의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으나, 장애인복지 향상이 장애인들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의미가 아니라, ‘특별한 이벤트’ 즉, 비장애인이 장애인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p>				
개선안	<p>사진을 교체한다. 예) 장애인 취업 서비스, 창업 지원 등 고용 관련 활동 모습 공공주택의 장애인 편의시설 휠체어 이동을 고려한 버스나 지하철 등의 장애인 교통수단 장애인 체육시설과 체육활동 모습 장애인 의료시설</p>				





● 비추천 사례

Ⅲ. 사회적 갈등에 중립적이거나 공정하지 못한 사례




학교급	초등 6	교과목	도덕	출판사	
대단원	4. 우리 학교, 우리 고장	중단원		쪽수	52-53
교과서 내용	 <p>이것을 보고 계시던 인호 할아버지께서 마을 사람들을 마을 회관에 급히 불러모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이자, 인호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p> <p>“여러분,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개울과 논이 높이가 비슷한 우리 마을은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p> <p>영식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p> <p>“저마다 자기 논이 높이를 조금 더 높이 쌓아올리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p> <p>그러자 혜경이 아버지께서 반대 의견을 내셨습니다.</p> <p>“아닙니다. 앞으로 비가 계속 온다면 개울둑이 넘쳐 논 전체가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도 자기 집 논둑만 높인다면, 힘이 더 들 뿐만 아니라, 논둑이 낮은 집은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p> <p>학교와 고장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해야 하는 까닭을 알아보는 내용으로 개울둑과 논둑 쌓기에 대하여 마을 사람들 간에 대화하고 있다.</p>				
비추천 사유	<p>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할 때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또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있어 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논둑을 높이는 것은 이기적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혜경이 아버지가 “자기 집 논둑만 높인다면”이라고 말함에 따라 자기 논둑만을 높인 집들이 이기적인 사람들로 보여 질 수 있다.</p>				
개선안	<p>혜경이 아버지의 의견 서두에 ‘논둑을 높인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각자 자기 논둑만 높인다면, 힘이 더 들 뿐만 아니라, 논둑이 낮은 집은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p>				


학교급	중등1	교과목	사회	출판사	중앙교육
대단원		중단원		쪽수	32
교과서 내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10px;"> <p>탐구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자료는 혐오 시설과 관련된 지역 사회 주민들과 지방 자치 단체 간의 갈등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고 아래의 활동을 해 보자.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width: 45%;"> <p>우리 동네에 쓰레기 처리장이 들어서면 집값과 땅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p>  </div> <div style="width: 45%;"> <p>모두가 자신의 동네에는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 수 없다고 한다면, 매일 집집마다 나오는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p>  </div> </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위 그림에서 문제가 되는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중 위와 같은 사례들이 있는지 조사해 보자. 만일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위와 같은 문제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토의해 보자. </div>				
비추천 사유	<p>- 혐오시설을 거부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그로 인한 건강, 환경상의 문제도 있다. 그림에도 삽화에서는 혐오시설 거부 자체가 자칫 집값과 땅값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만으로 표현하고 있어 오해될 소지가 있다</p>				
개선안	<p>- 쓰레기 처리장이 들어서면 공기도 나빠지고, 집값과 땅값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p>				

학교급	중등3	교과목	사회	출판사	교학사
대단원		중단원		쪽수	105
교과서 내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 style="text-align: right;">탐구활동</p> <p>집단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p> <p>다음 사례들을 보고 제시된 질문에 답해 보자.</p> <p>■ 사례 1 이문동 차량 기지 건설 공사</p> <p>철도청이 1997년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국유지에 전동차 1천여 대를 고칠 수 있는 차량 기지를 건설하려 하자 이 지역 주민들은 즉각 반대 운동에 들어갔다. 시민 반대 위원회가 차량 기지가 땅값을 떨어뜨리는 시설이라고 주장하자 근접 지역 주민들까지 함께 반대 운동에 참여했다. 철도청 관계자들은 2년간 주민과 동대문구청, 구의회측과 81 차례나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합의를 보려고 노력했지만 주민들의 반대 운동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은 쉽지 않았다. 철도청은 협상을 이끌어 내기 위해 끊임없는 대화를 하고 건설 부지로 책정된 토지의 일부를 동대문구 내의 학교와 공원 같은 공공 시설을 짓는데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많은 보상 비용을 들이고서야 반대 운동은 잠잠해졌다.</p> </div>				
비추천 사유	<p>기지건설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철도청과의 협상을 기술하였으나 맨 하단 “이렇게 많은 보상비용을 들이고서야 반대 운동은 잠잠해졌다”라고 기술함으로써 중립적이기 보다 철도청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p>				
개선안	<p>“이렇게 상호간의 오랜 노력 끝에 이문차량 기지 건설이 매듭지어졌다.” 등 갈등협상 과정을 중심으로 기술한다.</p>				

학교급	고등 1	교과목	사 회	출판사	(주)두산
대단원	VI. 시 민 사 회 의 발 전 과 민 주 시 민	중단원	3. 사 회 적 쟁 점 과 합 리 적 의 사 결 정	쪽 수	181
교과서 내용	<p>4. 지역간대립</p> <p>총선 지역 감정 자극 절정</p> <p>이번 선거에서 …… 각 당의 지역 정서 호소는 전례를 보기 드물다. 지역 감정 발언이 극에 달하자 총선 참여 연대가 9일 각 당에 쳐들어가 …… 지역 감정 자극을 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강제로 받아 내는 준 폭력 행위도 벌어졌다. OO당, △△당 등 공당이 울며 겨자먹기로 서명하는 꼴 사나운 풍경을 연출했다.</p> <p style="text-align: right;">-××일보, 2000년 3월 17일자(수정 인용)</p>				
비추천 사유	<p>언급된 기사는 지역간 대립을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사례를 예시로 든 것 이며, 그 가운데 총선 참여연대가 이런 정당의 행태에 문제 제기를 하여 지역감정자극을 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아낸 것인데, 부적절한 언어로 표현하여 오히려 이러한 시민운동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다.</p>				
개선안	<p>총선 지역 감정 자극 결정</p> <p>이번 선거에서 …… 각 당의 지역 정서 호소는 전례를 보기 드물다. 지역감정 발언이 극에 달하자 총선 참여연대가 9일 각 당의 <u>대표들을 만나</u> …… 지역감정 자극을 하지 않겠다는 <u>약속을 받아내는 상황까지</u> 발생하였다. ……</p>				

학교급	고등 1	교과목	사 회	출판사	(주)두산
대단원	Ⅶ. 정치생활 과 국가	중단원	1. 현대정치의 과제	쪽수	188
교과서 내용	<p>- 탐구활동(사진)</p> 				
비추천 사유	<p>노사갈등을 표현하면서 노동자 집단의 정의행위만 부각시켜 노동자 집단의 정의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심어줄 우려가 있다.</p>				
개선안	<p>갈등이 발생하는 대립되는 세력들을 형평성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p>				

학교급	고등 1	교과목	사 회	출판사	대 한 교 과 서
대단원	Ⅶ. 정치생활 과 국가	중단원	2. 사회적 쟁점의 정치적 해결과정	쪽수	200
교과서 내용	<p><하단 마지막 줄> 마지막으로 중재 위원회를 통해 중재하는 등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u>적극 개입한다.</u></p>				
비추천 사유	<p>제시된 내용은 중재의 방법 중 강제중재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 현재 강제중재는 폐지되었다. - 노사양측의 자율적 판단이 무시된 채 기본적 권리를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재단할 소지가 크다.</p>				
개선안	<p>마지막으로는 중재 위원회를 통해 중재하는 등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개입한다.</p>				

학교급	고등	교과목	시민윤리	출판사	
대단원		중단원		쪽수	20
교과서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 남비 현상의 예 핀피 현상의 예 </p>				
인권 반인권 무인권적 이유	<p>- 주민 공공도서관 확충은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기에 경제적 이익을 지향하는 핏피현상이라 보기 어렵다.</p>				
개선안	<p>피켓의 내용이 '첨단산업단지 유치' 등 경제적 이익이 되는 것으로 바꾼다.</p>				






● 비추천 사례


IV. 인권적 관점이 부족한 사례




학교급	초등 4-1	교과목	도덕	출판사	
대단원		중단원		쪽수	24-25
교과서 내용	<p>자주적인 생활이 필요한 까닭을 알아봅시다.</p> <p>굶어 죽은 갈매기</p> <p>어느 바닷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많은 갈매기가 갑자기 굶어 죽었습니다. 그 곳에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p> <p>그 마을의 바닷가는 많은 새우잡이배가 들어와서 머무르는 곳이었습니다. 어부들은 그 곳에서 그물을 털고, 망가진 그물을 손질했습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털 때마다 많은 새우가 떨어졌습니다. 갈매기들은 그 새우를 힘들이지 않고 주워 먹기만 하면 되었습니다.</p> <p>그런데 기후 변화로 새우들의 서식지가 바뀌자, 새우잡이배들도 새우를 찾아 멀리 떨어진 남쪽 지방으로 옮겨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갈매기들</p> <p>은 더 이상 먹이를 주워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털 때마다 맛있는 새우를 쉽게 주워 먹던 갈매기들은,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먹이를 구할 줄 몰라서 굶어 죽게 된 것입니다.</p> <p>1 갈매기들이 왜 굶어 죽게 되었습니까? 2 남에게 의지하는 생활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 봅시다.</p>				
비추천 사유	<p>자주적 삶을 일깨우기 위함이라지만, 죽음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사례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예화에서 갈매기가 굶어죽게 되는 것은 갈매기 스스로 자주적 삶을 포기해서이기보다 인간의 새우잡이 때문이었기에 사례로 적절치 않다.</p>				
개선안	<p>제시된 예화 전체를 교체한다.</p>				

학교급	초등6	교과목	도덕	출판사	
대단원		중단원		쪽수	74~75
교과서 내용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 법과 규칙을 잘 지키려는 마음을 다져 봅시다.</p> <h3 style="text-align: center;">모두가 교통스럽구나</h3> <p>“끼익!” 귀를 찢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과제 자료를 찾고 있던 제록이는 은몸에 소름이 끼치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이고, 또 사고 났구나!’ 창문을 열고 사고가 난 쪽을 바라보니 사람들이 몰려들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사이렌을 울리며 119 구급차가 오고 경찰차도 왔습니다.</p>  </div> <div style="width: 50%;"> <p>그 때, ‘딩동’ 하고 초인종 소리가 났습니다. 제록이는 어머니임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 드렸습니다. “제록아, 집에 있었구나. 아이고! 가슴 떨려.” 얼굴이 창백해진 어머니께서는 가슴을 쓸어 내리더니, 제록이를 꼬옥 껴안으며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제록이 너만 한 남자 아이 들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실려 갔다는데, 얼굴을 많이 다쳐서 누구네 집 아이인지 알 수가 없다는구나. 놀라서 뛰어오는데, 다리가 떨어져 잘 걸을 수도 없고 말도 잘 안 나오더라. 키포드를 타고 내려오다 옆길에서 급하게 달려나오던 차에 치였다는구나. 누구네 아이일까?” 어머니께서 긴 한숨을 내쉬면서 부엌 쪽으로 향하시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옆집 경찰이 어머니였습니다. “우리 경찰이 여기 안 왔나요?” 경찰이 어머니는 경찰이도 안 보이고 키포드도 없어졌다며 창백해진 얼굴로 돌아가셨습니다. 제록이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어머니께서는 얼굴이 파랗게 되었습니다. “제록아, 골목길에서 사고를 당한 아이가 경찰이라는구나!” 어머니께서는 급히 나가시더니, 잠시 후에 경찰이 여동생 경연이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제록아, 가까운 병원 응급실에 있단데, 같이 가 보자.” “네. 그런데 경연이도 같이 가나요?” “함께 가자지.” 경연이는 영문도 모른 채 눈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밖에서 경찰이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너무 많이 다쳐서 의사 선생님이 걱정이에요.” 경찰이 어머니는 경연이를 안고 응급실로 갔습니다.</p> </div> </div>				
비추천 사유	<p>교통법규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나, 법규를 지키지 않아서 아동이 사고를 당하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교통스럽다는 식의 예화는 너무 극단적인 상황을 통한 교육(인권적이지 못한 사례를 통한 교육)이라 판단된다.</p>				
개선안	<p>다른 예화로 교체</p>				

학교급	중등2	교과목	사회	출판사	지학사
대단원		중단원		쪽수	156
교과서 내용	<div style="text-align: center;"> <h2>2 인간의 사회 생활</h2>  <p>영화 '타이타닉'의 한 장면</p> <p>1912년 4월 14일 일요일 밤,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 호는 치너 항해 도중 유럽과 아메리카를 연결하는 북대서양 항로에서 빙산에 부딪혀 침몰했다. 이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하여 전체 인원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700여 명 정도였다. 이 때, 선장, 갑판원, 항해사, 승객 등이 보여 준 다양한 행동에 대해, 후세 사람들은 영웅이라고 칭찬하기도 하고 비겁한 행동이라고 비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칭찬과 비난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일까? 그리고 1등석 승객은 2등석과 3등석 승객에 비해 훨씬 생존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현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margin-bottom: 5px;">이 단원에서는</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위와 역할, 사회 조직과 관료제, 사회적 불평등 현상 등 사회 생활의 원리와 현상을 인식하는 데 기본이 되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사회 구성원과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div>				
비추천 사유	역시 삶과 죽음을 사례로 채택하는 것은 부적절한 소재라 판단되며, 이 사례는 사회적 불평등을 알게하기 보다 사회적 불평등이 삶과 죽음까지 좌우할 수 있구나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개선안	사례 교체 필요				

학교급	고등 1	교과목	사 회	출판사	(주)두산
대단원	Ⅶ. 정치생활 과 국가	중단원	1. 현대정치의 과제	쪽수	191
교과서 내용	<p>사진</p> 				
비추천 사유	<p>사회갈등을 표현한 장면이기는 하나 불법과 폭력을 조장할 수 있는 장면이다(반인권적)</p>				
개선안	<p>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양 당사자를 심판이 모아놓고 조정하는 장면이 바람직할 듯</p>				

학교급	고등 1	교과목	사 회	출판사	대한교과서(주)
대단원	VII. 정치 생활 과 국가	중단원	2. 사회적쟁점의 정치적 해결과정	쪽수	211
교과서 내용	<p><그림-부적격 정치인 가려내기></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3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 활동</p> <p>2000년 1월 12일, “부패·무능 정치인을 몰갈이해 모든 사회 개혁의 걸림돌이 되는 정치를 개혁하겠다.”라는 이념으로 ○○ 시민 연대가 발족하였다. 이 연대에는 정치, 환경, 여성, 교육, 소비자 등 각 분야 사회 단체와 종교계 등 전국의 412개 시민 단체가 참여하여 전국적인 유권자 운동 단체로 출발하였다.</p> <p>○○ 시민 연대는 부정 부패, 비리 관련 등 일곱 가지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전국의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부적격자를 골라 내어 공개하였다. 4·13 총선 결과, 낙선 운동 대상자 86명 중의 68.6%인 59명이 낙선하였으며, 집중 낙선 대상자 22명 중의 68.2%인</p> </div> <div style="width: 45%; text-align: right;"> <p>4 부적격 정치인 가려내기</p>  </div> </div>				
비추천 사유	<p>마치 사람을 물건과 같이 물건 뽑기로 부적격 정치인을 비유-사람을 물건으로 취급하였으므로 반인권적이다.</p>				
개선안	<p>부적격 정치인에 대한 경고카드 및 퇴장카드 등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p>				

학교급	고등	교과목	윤리와 사상	출판사	
대단원		중단원		쪽수	40
교과서 내용	<p>많은 사람들이 남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공정하지 못하며, 준법 정신이나 책임감이 약하고, 정직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들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장에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하면, 이것이 나중에는 더욱 큰 손해를 가져다 주게 된다. 그 결과, 사회가 더욱더 무질서하고 살기 힘들게 되며, 마침내 모든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p>				
비추천 사례	<p>많은 사람들이 ~ 라는 일반 대중을 구체적 근거 제시 없이 폄하하고 비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은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기보다는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거나 무책임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p>				
개선안	어떤 사람들은...어떤 경우에는...				


학교급	중등2	교과목	도덕	출판사	
대단원		중단원		쪽수	137
교과서 내용	<p>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로자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이것은 바로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부단히 계발하고 직업생활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현대 사회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을 가진 후에도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직업생활에서의 게으름은 단순히 나쁜 습관일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에 임해야 할 것이다.</p> <p>또 근로자는 직업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적 역할을 분담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직업생활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 삶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성공적인 직업생활은 그 자체만으로도 자신의 삶을 보람 있고 의미 있게 가꾸어 줄 수 있다. 그것은 마치, 지금의 나 자신이 학교 공부가 잘 되고, 가족이나 친구 관계가 원만하며, 취미생활도 만족스럽게 이루어질 때에 느끼는 행복감과 같은 것이다.</p>				
비추천 사유	<p>성실하게 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이러한 기술로 휴식의 권리, 쉼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지게 할 소지가 크다. 적절한 일과 쉼은 인간의 권리이다.</p>				
개선안	<p>~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하 문장은 삭제되어야 한다.</p>				



● 비추천 사례

V. 학생 및 청소년을 평가절하 하는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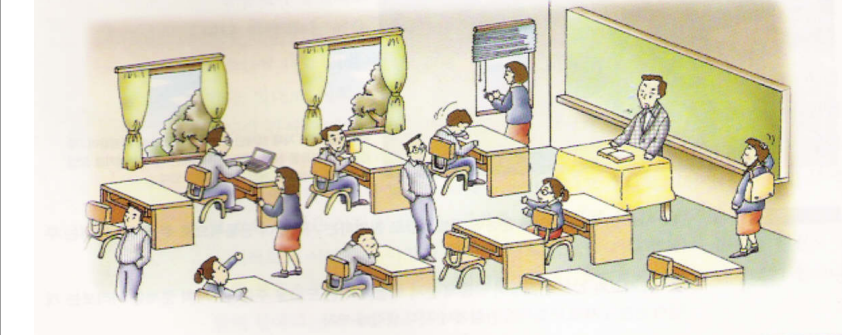



학교급	중등2	교과목	사회	출판사	지학사
대단원		중단원		쪽수	143
교과서 내용	<div style="text-align: center;">  <h3>탐구 활동</h3> </div> <p>● 일상 생활에서 나타나는 민주 시민의 역할을 알아본다.</p> <p>인기 가수가 출연할 때면, 방송국 녹화장의 정문 앞에는 중·고등 학생들이 장사진을 이룬다. 입장이 시작되면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아우성이다. 질서나 양보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심지어는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의 경비원에게 험한 말을 하기도 한다.</p> <p>녹화장 안의 풍경은 더 가관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가 나오면 괴성을 지르며 이성을 잃은 듯이 흥분하다가, 다른 가수가 나오면 야유를 보내거나 아예 나가 버리기까지 한다.</p> <p>이를 두고 어른들은 무서운 10대라고 걱정하기도 한다. 10대에겐 자기 편이 아니면 모두 적인가? '자유 분방한 10대, 개성 위주의 10대, 튀는 것이 아름답다'는 구호도 원칙과 기준이 없이 마구 외쳐대는 뻔뻔스런 10대의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9년 5월 31일, ○○ 일보-</p> <p>과 제 1 윗글에 나타난 10대들의 문제점은 무엇인가?</p> <p>과 제 2 윗글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민주 시민으로서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자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발표해 보자.</p>				
비추천 사유	<p>‘녹화장 안의 풍경은 더 가관이다’ ‘뻔뻔스런 10대’ 등의 부적절한 언어 사용과 일부 청소년들의 행동을 전체 청소년 문화로 해석하여 전체적으로 10대 문화에 대해 폄하하는 경향이 짙다.</p>				
개선안	<p>기사 내용을 전면 교체한다.</p>				



자료 Ⅳ-18 방송국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학생들

-1999년 5월 31일, ○○ 일보-

학교급	고등 1	교과목	사 회	출판사	대한교과서
대단원	IX. 공동 체 생 활과 사회 발전	중단원	1. 공 동 체 생 활 의 제문제	쪽수	262
교과서 내용	<p><그림></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수업 중에 발견할 수 있는 '교실 붕괴' 현상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상에 엎드려 잔다. • 선생님의 주의를 무시한 채 앉아서 잔다. • 무기력, 무표정, 무감동한 모습을 나타낸다. • 편지를 쓴다. • 만화책이나 잡지를 본다. • 휴대용 오락기로 게임을 한다. • 잠담을 하면서 떠든다. •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다닌다. • 급우를 괴롭히거나 난폭한 행동을 한다. • 수업 시간에 늦는 것에 대해 잘못된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 화장실 가는 것 등을 이유로 내보내 달라고 한다. • 수업 도중에 허락 없이 빠져 나간다. • 책, 공책, 필기구, 준비물 등을 가지오지 않는다.  </div>				
비추천 사유	<p>학생들 모두가 기본적인 책임의식 없이 방종의 상태로 표현- 일부 학생들의 현상을 한 만화적 요소를 살려 한 삽화 안에 담으려고 한 뜻은 이해되나, 자칫 교실 전체 모습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교실현장에 대해 너무 과도하게 비관적인 모습이다.</p>				
개선안	<p>교실에서의 실제 장면(사례)를 제시하여 일반화하여 교실붕괴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p>				

학교급	고등	교과목	법과사회		
대단원	Ⅲ. 사회 생활 과 법	중단원	1. 학교생활과 법	쪽수	86
교과서 내용	 <p>교내 봉사 징계의 하나로서 유리창닦기, 청소 등을 시킬 수 있다.</p> <p>징계의 종류에는 학교 내의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퇴학 처분(다만, 의무 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은 제외) 등이 있다. 학생에 대한 징계를 할 때,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p> <p>체벌은 교육 담당자가 교육 목적상 필요하여 대상 학생을 매로 때리는 등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체벌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다. 학생도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인격적 존재이다.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訓育)이나 훈계(訓戒)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p>				
	<p>탐/구//할/중</p> <p>①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 시골에 있는 ○○ 중학교 2학년 담임 K 교사는 결석이 잦은 A군 때문에 애를 태우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A군이 빈 집에 들어가 돈 10,000원을 훔치다가 붙잡혔다는 연락이 학교로 왔다. K 교사는 생활 지도부장과 함께 경찰서로 달려가 담당 경찰관에게 학교에서 처리할 것을 약속하고 A가 풀려나게 하였다. 학교에서는 공식적인 징계 절차를 밟기보다는 A가 자퇴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학교나 A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A를 자퇴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가? 2.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를 모둠별로 토론하고 발표해 보자. <p>② 학생의 징계와 처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학생 징계와 처벌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해 보자. 2. 학생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 학생의 기본권과 서로 대립하는 사례를 찾아보고, 바람직한 해결 방법을 토론해 보자. </p> <p>86 Ⅲ. 사회 생활과 법</p> <p>학생의 권리와 의무 내용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앞페이지에서는 학생의 권리에 대하여 나열식으로 설명하고 있고, 86페이지에서는 학생의 의무 내용에서 징계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p>				
비추천 사유	<p>학생의 권리와 의무를 기술하면서 학칙 상의 징계와 처벌의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지만, 실제 학칙이 왜 필요한지, 어떤 절차를 통해 마련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부재하다.</p>				
개선안	<p>학칙의 필요성, 학칙 제·개정 과정들이 추가되어야 한다.</p>				

학교급	고등	교과목	도덕	출판사	
대단원	1. 현대 사회와 도덕 문제	중단원	2. 청소년 문제와 청소년 문화	쪽수	55~66
교과서 내용	<p>청소년 문화에 대한 관점 - 미성숙, 비행, 저항 또는 반문화, 하위, 대안문화</p> <p>청소년 문화의 특징 - 입시, 소외, 감각지향, 디지털 문화</p>				
비추천 사유	<p>청소년 문화에 대한 관점 5가지 중 한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는 부정적 입장으로 청소년 문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강조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스스로의 문화에 대한 자부감을 느낄 수 없게 한다.</p> <p>또한, 기성세대와 어른들의 시각으로 저술되어 있어 정작 청소년인 학생들에게는 공감을 얻기 어려우며,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에 대한 일방적 비판과 강요를 할 뿐이다. 또한 학생들의 인권과 관련한 문화의 특징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p>				
개선안	<p>학생들의 인권과 관련한 문화의 특징에 대한 내용 첨부한다.</p> <p>청소년 문화에 대한 긍정적 입장과 사례에 대한 폭넓은 제시가 필요하다.</p>				

학교급	고등	교과목	도덕		
대단원		중단원		쪽수	60
교과서 내용	<p>마지막으로, 청소년의 문화 활동은 대부분 생산적인 활동이라기보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소비성 문화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다.</p>				
비추천 사유	<p>청소년 문화의 특징 부분에서 아래의 내용이 기술되어있는데, 이러한 시선은 청소년문화에 대한 객관적 사실 없이 너무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시선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청소년 문화의 단원에서 청소년 문화는 주체적인 창의성 없이 대중문화에 종속되고, 따르기만 하는 수동적인 문화인 양 서술되어 있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p> <p>이러한 기술은 청소년들에게 더 창의적인 문화를 양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시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p>				
개선안	<p>위와 동일한 방향으로 개선 필요</p>				

학교급	고등 1	교과목	국어 하	출판사	
대단원		중단원		쪽수	148
교과서 내용	<p>요즘 젊은이들의 말버릇, 곧 지켜야 할 언어 예절은 어떠한가? 언어 예절은 격식을 갖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은 이와 같은 격식을 갖춘 언어를 사용하는 세대가 아니다. 오히려 평상의 말을 즐겨 쓰는 세대이다. 그러기에 그들의 말 속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말버릇이 많이 나타난다.</p> <p>청소년이 말하는 태도에서 무엇보다 큰 특징의 하나는 버릇이 없고,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격식을 갖추려 하지 않는다. 그저 나오는 대로 말한다. 그리하여 반말을 예사로 쓰고, 비어나 욕설을 거침없이 내뱉는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격식을 갖춘 말은 소원한 사이에서 쓰인다. 따라서 친숙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반말을 쓰는 것이다. 비어나 욕설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다. 공손한 말투는 찾아보기 힘들다. 어른이 부르면 “왜요?” 하고 불뉘 표정이고, 말을 하면 “그게 아니지요.”라고 이유를 댈다. 길들여지지 않은 망아지같이 천방지축 날뛰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말버릇이다. 혹시 격식을 갖추어 높임말을 써야 할 경우에도 격식체인 ‘하십시오’체가 아닌, 비격식체인 ‘해요’체를 즐겨 쓴다. 그리고 일인칭의 겸양어인 ‘저’를 쓰지 않는다. ‘나’를 쓴다. 이들은 높임법을 제대로 배워 익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써야 바로 쓰는 것인지조차 모르는 실정이다. 그러기에 이들의 말버릇은 더욱 엉망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 박갑수, ‘한국 방송 언어론’</p> <p>‘어느날 심장이 말했다’라는 작품의 주인공인 “흥수”라는 아이와 자신의 언어생활에 대해서 비교해보는 활동에 삽입된 지문이다.</p>				
비추천 사유	<p>글을 보면 “청소년이 말하는 태도는 버릇이 없다. 반말을.. 비속어나 욕설을 거침없이 내뱉는다. 길들여지지 않은 망아지같이 천방지축 날뛰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말버릇이다.”라고 기술되어있다.</p> <p>자칫 요즘 청소년들은 모두 어른에게 반말, 비속어, 욕설을 거침없이 내뱉는 버릇없는 세대로 오해받기 쉽다. 일부 청소년이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체 청소년들이 모두 망아지같이 보여지고 있어서 청소년으로서 억울하다.</p> <p>누군가 이글을 보면 요새 청소년은 모두 버릇없다. 이런 식의 생각이 고정관념으로 박히지 않을까?</p>				
개선안	위 내용 전체 삭제				



● 비추천 사례

Ⅵ. 기타



학교급	고등 1	교과목	사회	출판사	대한교과서
대단원	Ⅶ. 정치 생활 과 국가	중단원	2. 사회적쟁점의 정치적 해결과정	쪽수	202
교과서 내용	<p><6번째 줄> 이런 점에서 쓰레기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며 정치적 해결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u>정부는 물론 시민단체와 시민 개개인 등</u> 다양한 참여자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p>				
비추천 사유	<p>쓰레기 문제의 해결 주체로서 책임 있는 기업이 제시되지 않았다. 많은 책임을 소비자에게만 돌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며, 기업의 책임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p>				
개선안	<p>이런 점에서 쓰레기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며 정치적 해결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u>정부는 물론 기업, 시민단체와 시민 개개인 등</u> 다양한 참여자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p>				

학교급	고등	교과목	윤리와 사상	출판사	
대단원		중단원		쪽수	71
교과서 내용	<p>(2) 이상 사회의 지향과 이데올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데올로기란, 현실 사회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이상 사회를 이룩하는 데 필요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관념이나 이상으로서 일종의 세계관·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다. ● 근대의 주요 이데올로기는 프랑스 혁명 이후 이상 사회에 대한 다양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출현하였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 보수주의 등을 들 수 있다. ● 이데올로기의 순기능으로는 역사의 진보에 대한 믿음과 실천 의지의 주입, 일반 대중들의 정치적 각성, 민주주의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공헌 등을 들 수 있다. ● 이데올로기의 역기능으로는 정치적 무관심과 급진적 이념에 빠지는 오류, 획일적 세계 인식으로 인한 비타협적·독선적 태도의 고양, 총체적 성격과 극단주의 및 폭력성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 이데올로기는 근대의 산물로서 역사적 미래상과 함께 구체적인 수단이나 투쟁 방법 등을 제시하지만, 이상 사회는 전통 시대의 산물로서 현실 사회를 풍자적 방법으로 비판하고 초역사적 미래상을 제시한다. 				
비추천 사유	<p>단원 맨 끝의 요약부분</p> <p>이데올로기의 역기능에 있어 총체적 성격과 극단주의 및 폭력성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폭력성의 문제는 이데올로기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본문에서도 폭력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p>				
개선안	<p>폭력성의 문제는 삭제되어야 한다.</p>				

학교급	중등2	교과목	도덕	출판사	
대단원		중단원		쪽수	123
교과서 내용	<p>선진국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u>선진국의 소비 형태는 크게 유럽형과 미국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u></p> <p>유럽형 소비 형태는 오래 된 가구나 식기 또는 가옥 등에서 보듯이, 비교적 낮은 지출로 검소한 소비를 하는 것이 특색이다. 반면에 미국형의 소비 형태는 자동차, 모터보트 등이 상징하듯이, 고소득에 고소비를 하는 것이 특색이다. 우리나라의 소비 형태는 미국형에 가깝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득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지출이 크기 때문에, 마치 기초는 부실한데 외양만 그럴듯한 건물을 짓는 위험한 공사와 같다고 하겠다.</p>				
비추천 사유	<p>선진국의 소비형태를 유럽형과 미국형으로 나누고, 우리나라의 소비형태를 미국형으로 분류하여 비판하고 있다.</p> <p>소비형태를 미국형과 유럽형으로 나눈 근거도 미약할 뿐 아니라, 소비형태는 개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음에도 우리 소비형태를 무조건 미국형이라고 단정하고 폄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p>				
개선안					








부록
교과서 모니터링 사례집


- 추천 사례 -





학교급	초등 1-2	교과목	수학 익힘책
단원명	3. 10을 가르기와 모으기	쪽수	35
교과서 내용 삽 화			
추 사 추 유	<p>남학생과 여학생이 공평하게 딱지치기 놀이를 하는 모습의 삽화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로 하여금 모든 놀이에서는 남녀가 평등하다는 인식을 하게 해준 친인권적 내용이라 생각된다.</p>		

학교급	초등 1-2	교과목	슬기로운 생활
단원명	2. 병원놀이	쪽수	17
교과서 내용 삽 화			
추천 사유	<p>병원 삽화에서 여의사와 남의사를 동시에 그림으로 표현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로 하여금 양성평등에 입각한 성차별과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게 해준 친인권적 내용이라 생각된다.</p>		


학교급	초등 1-2	교과목	슬기로운 생활
단원명	3. 함께하는 한가위	쪽수	32
교과서 내용 삽 화			
추천 사유	<p>친척들이 모두 모여 화목하게 음식을 만드는 삽화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음식을 함께 만드는 모습으로 표현된 삽화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로 하여금 음식을 조리하는 일은 여성만 하는 일이라는 성차별과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게 해준 친 인권적 내용이라 생각된다.</p>		


학교급	초등 1-2	교과목	슬기로운 생활
단원명	6. 우리의 겨울맞이	쪽수	68
교과서 내용 삽 화			
추천 사유	<p>겨울나기 준비에서 온 가족이 화목하게 김장을 만드는 삽화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 모두 함께 김장을 만드는 모습으로 표현된 삽화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로 하여금 김장은 여성만 하는 일이라는 성차별과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게 해준 친인권적 내용이라 생각된다.</p>		


학교급	초등 1-2	교과목	바른 생활
단원명	2. 차례를 지켜요	쪽수	14
교과서 내용 삽 화			
추천 사유	<p>차례를 지키는 삽화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 활동 모습으로 표현된 삽화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로 하여금 비장애인들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게 해준 친인권적 내용이라 생각된다.</p>		


학교급	초등 1-2	교과목	바른 생활
단원명	4. 함께 쓰는 물건	쪽수	53
교과서 내용 삽 화			
추천 사유	<p>공공장소인 공원을 함께 산책하는 삽화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모습으로 표현된 삽화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로 하여금 비장애인들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게 해준 친인권적 내용이라 생각된다.</p>		


학교급	초등 1-2	교과목	바른 생활
단원명	7. 겨울 방학을 알차게	쪽수	88
교과서 내용 삽 화			
추 천 사 유	<p>겨울 방학 중 집 앞에 쌓인 눈을 온 가족이 협동하여 함께 치우는 삽화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로 하여금 어려운 일은 남자만 한다는 성차별과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게 해준 친인권적 내용이라 생각된다.</p>		


학교급	초등 1- 2	교과목	바른 생활
단원명	7. 겨울 방학을 알차게	쪽수	92
교과서 내용 삽 화			
주 사 유	<p>겨울 방학을 알차게 보내기 위한 계획 중 태권도 운동을 배우기로 한 삽화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함께 태권도 운동을 하는 모습으로 표현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로 하여금 태권도는 남학생만 한다는 성차별과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게 해준 친인권적 내용이라 생각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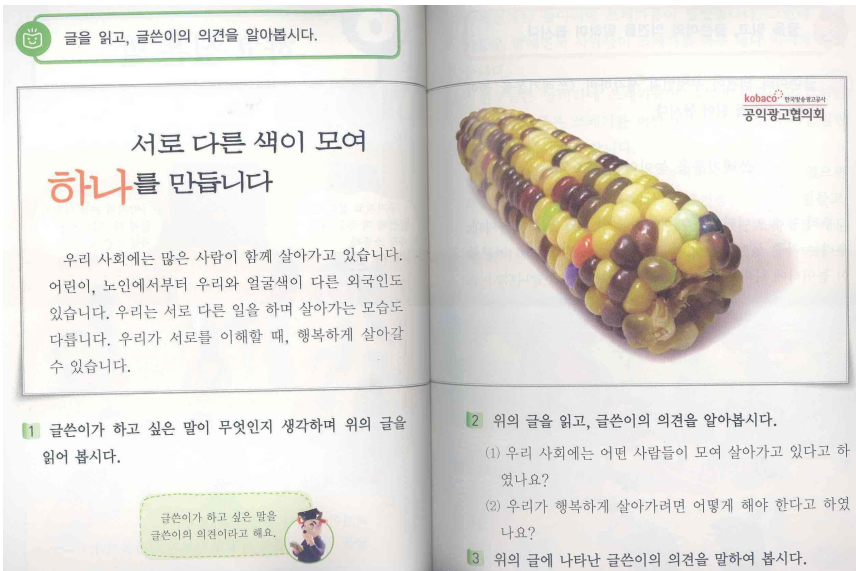
학교급	초등 1- 2	교과목	즐거운 생활
단원명	2. 신 나는 놀이	쪽수	33
교과서 내용 삽 화			
추 천 사 유	<p>운동장 놀이 시설에서 놀임봉과 늑목 운동을 하는 사진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함께 운동을 하는 모습으로 표현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로 하여금 위험한 운동은 남학생만 한다는 성차별과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게 해준 친인권적 내용이라 생각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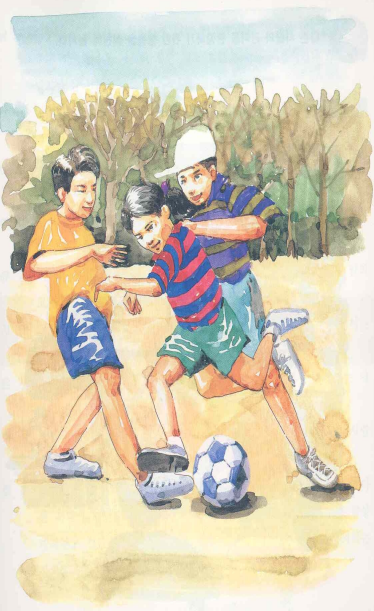

학교급	초등 1-2	교과목	즐거운 생활
단원명	6. 흐름걸을 느껴요	쪽수	102
교과서 내용 삽 화			
추 천 사 유	<p>리듬 합주를 하는 삽화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리듬합주 활동을 하는 모습으로 표현된 삽화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로 하여금 비장애인들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게 해준 친인권적 내용이라 생각된다.</p>		

학교급	초등 1-2	교과목	국어 : 쓰기
단원명	5. 더 알고 싶어요	쪽수	63
교과서 내용 삽 화			
추 사 유	<p>소개할 내용을 선택하는 토론 모습을 나타내는 삽화에서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공평하게 토론하는 모습의 삽화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로 하여금 남녀평등을 인식하게 해준 친인권적 내용이라 생각된다.</p>		


학교급	초등 1-2	교과목	국어 : 듣기 말하기
단원명	3. 생각을 전해요	쪽수	33
교과서 내용 삽 화			
추 천 사 유	<p>발을 다쳐 목발에 의지한 친구가 걸음을 잘 걸을 수 없자 옆의 친구가 도움을 주는 삽화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로 하여금 도움이 필요하고 아픈 친구에게는 도움을 베풀어 준다는 친인권적 내용이라 생각된다.</p>		


학교급	초등 1- 2	교과목	국어 : 읽기
단원명	2. 꼼꼼히 살펴보아요	쪽수	24
교과서 내용 삽 화			
추 천 사 유	<p>추석 명절에 송편을 빚는 사진에서 온가족(아빠, 엄마, 딸, 아들) 이 송편을 빚는 행복한 모습을 표현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로 하여금 차례 음식 준비는 여성만 하는 일이 아니라 온가족이 함께 해야 한다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게 해준 친인권적 내용이라 생각된다.</p>		


학교급	초등 2-2	학년	읽기
대단원	6. 하고 싶은 말	쪽수	90~91
교과서 내용	 <p>‘글을 읽고, 글쓴이의 의견을 알아봅시다.’ 학습목표와 관련한 내용으로 ‘서로 다른 색이 모여 하나를 만듭니다.’라는 공익광고협회의 광고가 제시되어 있는 글쓴이의 의견을 알아봄으로써 우리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이해할 때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학습자가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p>		
추 사 추 기 유	<p>우리 사회에는 많은 사람들이(어린이, 노인, 외국인)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옥수수의 다양한 색깔로 상징화하고 있다. 교육내용도 인권 친화적이지만, 소재도 인권 친화적으로 잘 설계되어 있다.</p>		


학교급	초등5	교과목	도덕
대단원	5. 서로 존중하는 태도	쪽수	71
교과서 내용	<div data-bbox="344 407 1215 1123"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 다른 사람의 권익을 존중하는지 반성해 봅시다.</p> <h3 style="text-align: center;">체육 시간</h3> <p>지난 체육 시간의 일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남학생은 축구를, 여학생은 발아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p> <p>그 때, 모든 운동을 좋아하는 최경이가 선생님께, “선생님, 축구를 하고 싶은 여학생은 축구를 해도 되나요?” 라고 여쭙어 보았습니다.</p> <p>“그래, 좋아. 자신이 하고 싶은 종목을 택해서 하자구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무슨 축구냐?”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p> <p>의견을 물으니, 여학생 중에서는 최경이만 축구를 하고 싶어했습니다. 결국, 최경이는 남학생들과 축구를 하고 나머지 여학생들은 발아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학생들은 최경이와 같은 편이 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하여 진 편에 최경이가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p> <p>최경이는 우리 편이 되었습니다. 우리 편 친구들은 불안스러워했습니다. 모두들 최경이 때문에 우리 편이 경기에서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p> <p>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최경이는 수비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전반전을 1:1로 끝낸 우리 편 친구들은 모두 우리가 지겠다고 걱정했습니다.</p> <p>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빗나갔습니다. 후반전이 끝날 무렵, 내가 찬 공이 골대를 맞고 나오자 최경이가 재빨리 달려와 그 공을 골문 안으로 차 넣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기뻐서 최경이에게 달려가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조금 전까</p> </div> <div style="width: 50%; text-align: right;">  </div>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width: fit-content; margin-left: auto;"> <p> 내가 최경이라면, “여자가 무슨 축구냐?”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기분이 어땠을까요?</p> </div> </div>		
추천 사유	<p>이 사례는 축구는 남성을 위한 종목이라고 여기는 편견을 매개로 성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하고 있다. 성별에 대한 편견을 주제로 한 것도 좋으나 초등학교에서 가능한 ‘축구’를 소재로 하고 있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적절한 예시라 할 것이다.</p>		

학교급	초등 6	과목	도덕
대단원	1. 성실한 생활	쪽수	12-13
교과서 내용	<div data-bbox="449 339 1118 1277" data-label="Image"> </div> <p>장애인인 ‘민성이 언니’가 가구 장식 조각품 공장에 취직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은 후 멋있는 조각을 만들어 공장에 취직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p>		
추천 사유	<p>본 사례는 최선을 다하는 기쁨의 사례 주인공이 장애를 가진 민성이 언니라는 점도 좋지만, 사례안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취직과정에서 차별당하고, 일에 있어서 힘들어 하는 모습 등의 과정을 잘 그려놓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노력으로 이겨내는 민성이 언니를 잘 소개하고 있어 장애에 대해 바람직한 관점으로 기술했다.</p>		


학교급	중등1	교과목	영어	출판사	천재(이재영)
대단원	Lesson10 활동책	중단원	마지막 단원 안내사진	쪽수	300
교과서 내용					
추천 사유	<p>대다수의 교과서에 하얀 피부를 가진 백인이 등장해서 하얀 피부를 가진 백인우월주의를 연상하게 되는데 반해, 이 사례는 한 페이지 안에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학생들을 등장시켜 자연스럽게 현대사회가 다인종, 다문화 사회임을 인식시키고 있다.</p>				

학교급	중등1	교과목	영어	출판사	천재(이재영)
대단원	Lesson1 본책	중단원	Read and Do	쪽수	17
교과서 내용					
추천 사유	<p>위 사례는 영어책 내 인도 뉴델리 소년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흔히 백인의 금발머리 어린이가 많이 등장하지만, 이 사례는 인도 어린이가 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린이를 통해 간단한 인도음식을 소개하고 있다. 또 ‘태권도’ 라는 것을 매개로 인도의 어린이를 보다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p>				

학교급	중등1	교과목	영어	출판사	두산(김덕기)
대단원	Lesson12 본책	중단원	Enjoy Reading	쪽수	172
교과서 내용					
추천 사유	<p>위 사례는 영어책에 나오는 지문으로, 가난해서 매일 똑같이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어느 소녀를 둘러싼 친구들의 이야기이다. 인권과 관련된 과목이 아니지만 이야기의 소재가 차별을 당하는 것이 남루한 옷(가난)때문이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p>				

학교급	고등	교과목	법과사회	출판사	교학사
대단원	Ⅲ. 사회생활 과 법	중단원	3. 소비자의 권리보호	쪽수	93
교과서 내용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 style="text-align: center;">소비 선택의 자유 소비자는 다양한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p> <p>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을 다루는 내용이다. 이 중 소비자의 8대 권리의 내용 중 하나로서 소비 선택의 자유의 사진을 다루고 있다</p>				
추천 사유	<p>소비선택의 자유라는 사진으로 마트에서 상품을 고르는 모습을 다루고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다정히 장을 보는 모습이 가정에서의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해야 하는 일, 소비자로서의 남성과 여성을 자연스럽게 인식시키는 사진으로 보인다.</p>				

학교급	고등	교과목	윤리와 사상		
대단원		중단원		쪽수	47
교과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심적 병역 거부' 공방 : 양심적 병역 거부는 병역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 악이라고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특정 종교나 윤리적 확신에 따라 전쟁에 참가하는 것을 반대하는 자에게 병역을 강제한다면, 그것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근거로서 형평성의 문제, 분단 상황에 있는 국가 안보의 문제, 선정의 모호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사형 제도 존속·폐지' 공방 : 사형 제도 찬성론자들은 중대한 범죄나 잔인하고 포악한 범죄에 대처하고 국가적 질서 유지와 인류 문화의 유지를 위해 사형 제도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형 제도 폐지론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에 부응하고 형벌이라는 미명하에 행해지는 '또 하나의 살인' 을 막기 위해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추천 사유	<p>현 인권사안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토론학습을 유도하는 좋은 사례이다. 다만,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에게 양심적 병역 거부나 사형제도 존속 폐지를 권고한 바 있는데, 이러한 국제적 흐름 등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 아쉽다</p>				

학교급	중등3	교과목	도덕		
대단원		중단원		쪽수	84
교과서 내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함께 하기 2 사형 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형 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 연합'이 2001년 7월에 연합 행사를 가지고, 사형 폐지 공론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를 계기로 사형 제도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잔인한 형벌로 범죄 억제 효과가 없다."는 사형 제도 폐지론과, "사형 제도 폐지는 흉악 범죄를 조장할 수 있으므로, 선량한 국민과 사회를 보호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형 제도 유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형 제도에 대해 여러분은 어떠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을 바탕으로 각자의 주장을 정리하여 토론해 보자.  </div>				
추천 사유	<p>인권현안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유도하게 하는 좋은 사례이다. 다만,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에게 사형제도를 폐지를 권고한 바 있는데, 이러한 국제적 흐름 등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 아쉽다</p>				

학교급	중등3	교과목	사회	출판사	디딤돌															
대단원		중단원		쪽수	10															
교과서 내용	<p>탐구 활동</p> <p>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table border="1"> <caption>국제조약 비준국 수 (연도)</caption> <thead> <tr> <th>연도</th> <th>사회권 조약 비준국 (개국)</th> <th>자유권 조약 비준국 (개국)</th> </tr> </thead> <tbody> <tr> <td>1970</td> <td>11</td> <td>11</td> </tr> <tr> <td>1980</td> <td>65</td> <td>64</td> </tr> <tr> <td>1990</td> <td>97</td> <td>91</td> </tr> <tr> <td>2001</td> <td>153</td> <td>152</td> </tr> </tbody> </table> <p> ■ 사회권 조약 비준국 ■ 자유권 조약 비준국 - 자료: 국제 연합 - </p> </div> <div style="width: 50%;"> <p>현대에 들어 시민들은 제 1·2차 세계 대전 중에 인간의 기본적 인권이 철저히 무시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다.</p> <p>시민들은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세계 인권 선언(1948)이 발표되었고, 뒤이어 각국 정부는 인권에 대한 국제적 약속인 사회권 조약(1966)과 자유권 조약(1966)에 비준하였다. 이처럼 현재 많은 국가들은 기본적인 인권의 보장을 인류의 과제로 인정하고 있다.</p> </div> </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계 인권 선언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 배경을 조사해 보자. 2. 위 표에서 국제 조약에 비준한 국가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를 찾아 그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조사해 보자. 					연도	사회권 조약 비준국 (개국)	자유권 조약 비준국 (개국)	1970	11	11	1980	65	64	1990	97	91	2001	153	152
연도	사회권 조약 비준국 (개국)	자유권 조약 비준국 (개국)																		
1970	11	11																		
1980	65	64																		
1990	97	91																		
2001	153	152																		
추천 사유	<p>국제조약에 대한 언급이 없는 현 교과서에서 이러한 언급은 바람직하다. 다만, 자유권이나 사회권 규약에 대한 설명이 아쉽다.</p>																			